

***HORMONE***

***호르몬***

“욕구를 절제하는 사람은 욕구가 절제될 수 있을 만큼 약한 것이기 때문에 절제한다” - 윌리엄 블레이크

철커덕. 흰 수술 장갑을 낀 길쭉한 손이 커다란 시험관들 중 하나에서 코드를 뽑는다. 시험관 안에는 평범한 아기 하나가 열 달을 모두 채운 채 물 속에서 꿈지락거린다. 길쭉한 손의 소유자는 안경 밑으로 보이는 긴장한 듯하지만 수습, 수백번은 이 일을 해 봤다는 눈빛으로 섬세하게 연결되어 있던 나머지 코드들도 정리하며 뽑아간다. 잠시 뒤, 현란한 손놀림에 정리된 코드 선들은 조심스레 놓아지고, 의사는 시험관 탱크 밑에 있는 바퀴 달린 받침대를 수백개의 시험관들이 있는 창백한 방에서 끌고 나간다. 구불구불하고 긴 복도를 통해서 그의 발자국 소리와, 받침대가 굴러가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한참을 꺾고, 돌고 난 뒤, 그는 불투명한 유리 문을 통해 들어갔다. 안은 복잡하고 징그러워 보이기가까지 하는 기계 장비들이 놓여 바쁘게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그 중 하나에 받침대와 아기가 잠들어 있는 시험관을 끌어다 놓고, 옆에서 리모콘을 꺼내들어 시험관에 적혀있는 번호 #90137을 누른 후 초록색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 먼곳에서 비명 소리와 함께 털썩하고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의사는 손가락을 재빨리 거둬들이고, 유리문 밖으로 초조하게 나아간다. 여전히 아무도 없다. 그는 비명이 들려온 왼쪽으로 꺾은 후, 계속해서 뒤를 살펴보며 걷다 달리기 시작한다. 목에 걸린 이름표가 좌우, 상하로 진자운동을 계속하고, 흰색 가운이 맞바람을 맞아 뒤로 한껏 부풀려졌다. 계속해서 뛰던 그는, 멈춰섰다. 탁 탁 데구르르.. 무언가가 발치로 굴러온다. 소스라치게 몇 걸음 뒤로 물러나자, 그것의 정체가 밝혀진다. 수류탄이다. 쿵! 하는 폭발음과 함께, 하얗던 가운은 피로 빨갛게 물들여지고, 무릎은 힘없이 꺾이며 의사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온 방향을 돌아본다. 그러곤 생명이 꺼진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그 자리에 남은 피를 쏟아부었다.

\*

눈을 떴다. 커튼을 쳐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햇빛은 틈새로 마구 비집고 들어왔다. 윤슬은 얼른 일어나 이불을 끌어다 탁탁 편 다음,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어 침대의 끝에 살포시 올려놓았다. 침대 옆에는 원목 책상과 의자, 그리고 전신 거울 하나가 놓여 있었다. 윤슬은 습관처럼 거울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목과 어깨, 그리고 팔에까지 착 달라붙은 끈적해 보이는 길고 검은 머리카락, 하얗진 않지만 그닥 까맣다고 말할 수도 없는 매끈한 피부, 그럭저럭 만족하는 긴 팔과 다리, 그리고 아주 조금은 예쁘장하다고 생각할 만한 얼굴. 그녀는 이 정도면 자신에게 만족해야 한다고 수도 없이 되뇌었다. 윤슬은 샤워가 꼭 필요할 만큼 머리가 끈적한지 만져보고는, 수건을 들고 욕실로 직행했다. 샤워 후, 훨씬 더 깔끔해진 그녀는 만족하며 옷을 챙겨입었다. 짧은 운동복 바지와 초록색 칠부 티셔츠를 허둥지둥 입은 뒤, 어제 밤에 자기 전까지 읽던 책을 집어들고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벌써부터 코를 찌르는 따끈한 토마토 스프가 먹고싶어 안달이 나 있었던 윤슬은 얼른 요리하고 있던 엄마 뒤로 돌아가 허리를 껴안았다.

“어머나!” 예상대로 엄마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윤슬을 내려다보았다.

“엄마! 스프 언제 다 돼? 빨리 주면 안-”

“놀래키지 마.”

“아 알겠어. 언제 줘?”

“수프 없어, 너 거.”

안아준 것이 뭐가 그리 대수라고. 그녀는 엄마가 자신을 안아주면, 엄마도 자신을 안아주며 잘 잤냐는 말 한 마디만 해 주었으면 했다. 자신을 딸로서 아끼기는 하는지 의문까지 들 지경이었다. 그녀의 엄마는 윤슬을 딸이 아닌, 의무처럼 생각하고 취급했다. 그 의무가 아니었다면 윤슬에게 따뜻한 스프 한 그릇 정도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하자 속이 상했다. 윤슬이 느끼는 감정을, 윤슬의 엄마와 주변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칼에 손이 베이더라도, 자신의 손이 불쌍하지도 않은 것처럼 통증만 가시면 다시 칼을 조심해서 사용하지 않다 다시 베이기 일쑤였다. 이제는 익숙했다. 윤슬은 집 밖으로 힘없이 걸어나갔다. 집들은 똑같은 풍경을 끝없이 펼치고 있었다. 정말로 똑같았다. 한 집을 복사하고 끝없이 붙여넣기를 했다 하더라도 믿을 판이었다. 어제와 조금 달라진 풍경은 딱 하나, 광장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분수 가장자리에 웬 남자아이가 자신의 집을 등지고 앉아 있다는 점이었다. 윤슬은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는 점에 감사하며 얼른 그 쪽으로 달려가 남자아이 곁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실망스럽게도 그 남자아이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앉아있었다.

“너는…. 예전에 본 적이 없는데 여기는 왜 앉아있어? 얼른 너네 마을로 돌아가.”

“이사왔어.”

이상했다. 이사를 온다면 반드시 새 집이 지어져야 했고, 그 이후에 마을 전체의 TV 채널에 이사오는 사람의 신원과 얼굴을 밝히는 게 정상이었다. 윤슬은 의아하게 여겨 물어보았다.

“이사? 언제 왔는데?”

“어제.”

“무슨말이야- 아니 이사를 오면 TV에 너가 나왔어야지. 게다가 집짓는 것도 못 봤는데? 솔직히 너가 생각해도 말이 안되지 않아?”

“.....”

남자아이는 답이 없었다.

“알겠어. 말하기 싫은 거지? 난 이윤슬이야. 16살인데, 너는?”

남자아이는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치자 깜짝 놀란 윤슬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시야에 스친 남자아이의 얼굴은 무언가 뒤엎킨 표정이었다.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꼭 필요하지 않으면 서로 말을 걸지 않기 때문이다. 윤슬이 무슨 이유든 꼭 필요한 용무가 있나 보다 하는 표정으로 남자아이가 답했다.

“윤은호. 16살.”

윤슬이 여기 있을동안 알아온 정보에 따르면, 여기 도시의 그 누구도 말을 이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아주 단편적인, 그리고 사무적인 대화가 오갈 뿐이다. 그래서 항상 윤슬이 말을 이어 가야만 했다. 은호는 윤슬이 말을 건 적도 없다는 듯이 다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너 왜 살아?”

그 아이는 그녀의 눈동자 쪽으로 고개를 획 돌려 공허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몰라.”

삶의 목표 하나 없이 그저 태어났다고 사는 삶은 그닥 의미있는 삶은 아니어 보였다. 어정쩡해진 표정을 수습하기 위해 윤슬은 얼른 미소를 억지로 지어 보인 다음, 대답했다.

“음... 넌 뭐 좋아하는 거 없어?”

윤슬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없어.”

이거야말로 예상했던 답변이라 윤슬은 놀라지 않았다. 아무도 좋아하는 게 없다. 그렇다고 모든 걸 싫어하는 것도 아니다.

“아, 그래? 뭔가를 좋아해 보려고 한 적은 있고?” 예상치 못하게 차갑게 말이 튀어나와 버렸다. 윤슬은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다.

“그러니까-”

“없어.”

은호가 딱딱하게 대답했다. 그러곤 윤슬을 한 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몇 년 후에 자신도 이렇게 변해 버릴까 두려웠다. 저렇게 살기가 싫어질까 봐 두려웠다. 무엇보다 윤슬이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그 특별한 감정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두려웠다. 자신이 그렇게 변하더라도 활기와 삶의 의지, 그리고 복잡하고도 단순한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 변한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다.

\*

다음날, 방학이라 학교를 가지 않은 윤슬은 은호를 다시 보았다. 그녀는 얼른 그에게로 뛰어가 은호의 옆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윤슬이 웃으며 말했다.

“아, 안녕- 오늘도 여기 앉아있네? 너도 방학이야?”

은호는 어제와 같은 뒤엉키고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윤슬을 쳐다보았다. 여전히 왜 말을 거는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얼굴이었다. 윤슬은 다시 한 번 물었다.

“방학이-”

“응.”

윤슬은 웃었다. 같은 학교임이 분명했다. 학교는 여덟 마을에 한 개씩 있었는데, 주변 마을의 아이들은 거의 모두 윤슬이 다니는 학교, 하원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이 마을에 소리소문없이 이사온 은호 역시 하원학교에 다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가야 했을 테니까.

“그렇구나. 원래 나 혼잔데, 너가 있으니까 뭔가 좀 다르네. 여기 원래 내 자리거든! 여기서 보는 경치가 제일 나아. 그래봤자 똑같이 생긴 집들만 주욱 나열되어 있지만, 적어도 이 분수가 보이지는 않잖아? 그럼 우리집에서 보는 경치랑은 조금 다르잖아. 아닌가?”

“응.”

윤슬은 놀랐다. 지금 혼잣말에 대답을 한 것인가 하고 의아해했지만 생각해 보니 ‘아닌가?’에 대해 혼잣말인지도 모르고 대답을 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더 이상했다. 경치가 다르다고 말한 것에 반응해준 게, 왜 이렇게 고맙지? 드디어 윤슬의 마음을 이해해준 사람이 나타난 것만 같았고, 웬지 은호라면 자신의 모든 것 또한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실상은, 그저 분수가 없으니 다르다라는 아주 기초적인 틀림그림찾기 정도의 대답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웃음이 입가로 번지는 것은 막지 못했다.

\*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은호는 그 자리에 같은 표정으로 앉아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은호는 윤슬에게 일상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 은호도 더이상 윤슬에게 왜 말을 거느냐는 표정은 짓지 않았고, 그로써 윤슬은 은호를 더욱 편하게 느꼈다. 윤슬이 대화의 99퍼센트를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곧 오십 대 오십으로 나누어 질 것이라는 희망에 말을 계속했다. 그리고 은호는 귀찮다는 기색 없이 잘 대답해 주었다. 그저 그 길이가 2글자 이하일 뿐.

\*

개학날 윤슬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은호를 만나 일상을 이야기하는 대신, 조금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시도해보려 했다. 그것은 그녀의 감정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녀가 일생동안 마음에 품고만 있던 이야기였다. 그렇기에 이야기를 꺼내기 전, 윤슬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뿔었다. 은호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이건 내가 예전부터 누군가에게는 꼭 말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지금 너한테 가르쳐 - 그러니까 말해 주려는 것은, 나 빼고 아무도 몰라. 엄마도, 아빠도, 어차피 친구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알려주면,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걸 도와줄래?” 은호는 의문인 눈빛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그것만으로 감사하다.

“먼저, 내가 가르쳐 주려는 게 감정이라는 걸 알면 좋겠어. 그래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걸 나도 알고 있어. 아무도 모르는 감정. 음... 내가 하는 걸 한 번 따라해 봐.” 윤슬은 잠시 망설이다 손을 심장 부근에 올려놓았다. 무언가가 그녀의 손을 규칙적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윤슬은 이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엄연히 이 마을의 일원이며, 하나의 인간이며 생명체라는 걸. 그걸 은호가 느낄지는 의문이었지만 말이다. 은호는 그녀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자신의 손을 심장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특별히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녀는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공허하고 왜 사는지 모르는 표정만이 그의 얼굴 위를 맴돌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봐. 이 마을에선 아무도 그러지 않아. 그저 살 수 있을 만큼의 공기를 빨아들일 뿐이야. 어서 해 봐.”

그녀도 눈을 감고 들숨과 날숨을 느꼈다. 옆의 은호도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소리가 들려왔다. 윤슬은 눈을 뜨고 그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짙은 눈썹, 오묘한 곡선의 코, 그리고 부드러운 턱선. 잘생겼다는 말을 들어도 흠집 하나 없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무언가 비어 있었다. 그 자리에 자리잡고 있어야 할 무언가가 없어진 느낌이었다. 그 순간, 은호의 얼굴에 그 무언가가 채워진 느낌이 들었다. 아주 잠시였지만, 완벽히 채워진 그 얼굴에 윤슬은 압도당해 그대로 굳어 있었다. 조금 뒤, 은호가 눈꺼풀을 들었다. 이제 그 무언가는 다시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래도 윤슬은 자신이 무언가 변화를 주었다는 느낌에, 한껏 기분이 좋아졌다.

“아, 그러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하면 돼. 오늘은 내가 가야 돼서 여기까지. 안되면 쪽지라도 미리 남겨주고 가. 그러면 나 12시부터 학교라서 갈게. 너도 오늘 개학날이니까 시간 맞춰서 가.”

때마침 윤슬의 엄마가 문밖으로 나와 소리쳤다.

“학교가!”

‘학교 가자 딸’이 아니라서 조금 실망했지만, 윤슬은 웃으며 은호에게 손을 흔들었다. 윤슬은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 미리 챙겨놓은 책가방을 들고 집 앞에서 버스가 오기를 기다렸다. 산들바람이 얼굴을 부드럽게 간지럽히는 느낌에 절로 웃음이 나왔다.

\*

평소처럼 버스 안은 사람이 가득 차 있었지만, 소리는 없었다. 그녀가 윤호에게 말했듯이, 윤슬은 친구가 단 한명도 없었다. 그래서 인사할 사람도 없이 짝이 없는 자기에 홀로 앉았고, 그러자마자 갈색 버스가 웅 소리를 내며 출발했다. 창밖에는 도로 양옆에 줄지어 서있는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쏜살같이 뒤로 지나갔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급하게 걸음하거나 뛰지 않았다. 곧이어 버스는 좌우 대칭인 학교 정문 앞에 꺾 소리를 내며 정차했다. 아이들은 줄지어 버스에서 내리고 서로 말도 하지 않는 친구와 함께 삼삼오오 모여 학교 정문으로 들어갔다. 학교 안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발자국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윤슬 또한 아무 말 없이 3학년 62반을 찾아 들어갔다.

안에는 아이들이 반 정도 차 있었다. 다들 자신의 숙제나 일을 공허한 눈으로 바라보며 하고 있었다. 윤슬은 12번이 앉아야 하는 자리에 평소처럼 앉고, 책가방을 책상 옆의 고리에 걸었다. 얼른 휴대전화를 끈 후, 1교시인 기계공학 책을 꺼내 펼쳐 예습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책이 쓸모없음을 깨닫고 얼른 책가방 속으로 밀어 넣었다. 오늘은 정부에서 일하는 과학자가 출장 수업을 온다고 한 것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곧이어 수업종이 울렸고, 의사라는 걸 온곳에 밝히고 다닐 수 있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반장이 서서 의미없는 목소리로 인사를 하자 나머지 아이들 역시 웅얼거리며 인사를 읊었다. 바로 뒤에는 기계공학용 로봇이 따라 들어오고 있었다. 반장은 인사를 한 번 더 해야 할지 고민하더니, 그냥 자신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의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교실을 한 번 둘러보더니, 씩 웃었다. 그 순간, 윤슬은 느꼈다. 저 의사는 눈도, 그의 표정도, 움직임도 힘이 없고 텅 비지 않았다는 걸. 저 의사도 자신이 느끼는 그 감정을 느낄 것이라고. 의사가 웃음을 매만지며 입을 열었다.

“음…. 안녕 애들아, 저번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정부에서 일하는 의사야. 꼭 집어서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음…. 시험관 아기들을 관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는 손을 마주 비비며, 다시 한 번 윤슬의 반을 둘러보았다.

“선생님? 이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은 고개를 끄덕이곤 출석부를 교탁 위에 올려놓은 뒤 문을 밀고 나갔다. 의사는 그 출석부를 보더니 집어 들고 사람 수를 세기 시작했다.

“이 반 모두….12명 맞지?”

반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의사는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의사의 이름은 플로이드라고 밝혔다. 플로이드는 소개를 마치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했다.

“내가 하는 일은, 아까 전 말했듯이, 시험관 아기들을 관리하는 일이야. 매년 죽는 신생아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험관 아기가 옳다고 믿었고, 그 결과는 꽤 좋았어. 시험관 아기들은 그냥 낳아지는 아기보다 훨씬 죽는 비율이 적었지. 시험관 아기 탱크는 이렇게 원기둥으로 생겼고, 항상 아기들이 어디가 불편하지는 않은지 보기 위해서 벽은 투명하게 생겼지.”

플로이드는 전자 펜으로 레이저 빔이 쏘아진 곳에 파란색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아기들이 받는 영양분은 딱 10달치야. 그건 전기 코드처럼 생긴 곳에서부터 나오는데, 단백질, 지방, 비타민 등등 필요한 모든 게 들어있지. 하지만 10달 안에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아이들을 ‘불량품’이라고 봐. 생각해 봐. 다른 아이들은 10만분의 영양분을 받고 태어났는데, 어떤 아이는 10만으로 부족하다는 건, 뭔가 불량이 있는 것 아니겠어?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을 어쩔 수 없이 버려야만 해.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는 신생아들이 매우 불쌍하다는 것처럼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윤슬은 그 뒤에 있는 가식과 추악함을 읽을 수 있었다.

“자, 그럼 넘어갈게. 음... 갑자기 이런 말해서 뜬금없겠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지구에 엄청난 질병이 돌았지. 그 질병이 뭔지 아는 사람?”

가인이 손을 들었다. 플로이드는 가인을 지목했고, 가인은 ‘바이러스 9C90’라고 대답했다.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인 다음 대답했다.

“맞아. 그게 무슨 징후를 보이는데도 말해봐”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지만 대뇌 변연계 속 편도체에서 특정 자극을 받아들이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그 특정 호르몬이 분비되는 순간 그 바이러스는 뇌를 파괴하고 결국 뇌사로 이어집니다.”

가인은 무표정하게 답을 읊었다. 플로이드는 미소를 짓더니 교실을 다시 한 번 눈으로 훑었다. 윤슬은 그와 눈이 마주치자 섬뜩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지목하기는커녕 더이상 쳐다보지도 않았다. 잠시 동안의 침묵이 이어지다 플로이드가 입을 뗐다.

“음... 이 반은 되게 공부를 잘 하나보네? 좋아. 그러면 가인 학생 말고 다른 사람이 대답해봐. 정부에서는 이를 어떻게 대처했지?”

이번에는 윤슬이 손을 들었다. 윤슬은 답을 알면서도 손을 들지 않는 것은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플로이드가 적잖이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 손을 살며시 들어올렸다. 플로이드는 당황한 듯한 눈빛이지만 최대한 억지웃음으로 가리며 윤슬을 지목했다.

“정부의 대처는 기계로 호르몬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예. 아예... 아예...”

윤슬은 문득 떠올랐다. 모든 것이 아귀가 맞아떨어졌다. 턱이 의지와 다르게 툭 벌려졌으며, 무언가 말을 하려 해도 아무 말도, 소리조차도 나오지 않았다. 플로이드는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윤슬 학생, 괜찮습니까? 양호 로봇을 부르도록 할까요?”

윤슬은 얼른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다.

“아뇨, 괜찮아요. 아예 그 호르몬이 주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플로이드도 안심하는 눈치로 다시 물었다.

“아, 맞아요. 그리고 그 호르몬의 이름은 무엇이죠?”

윤슬은 허둥거리며 대답했다. 얼른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도...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옥시토신입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자리에 앉았다. 하마터면 의자에서 떨어질 뻔 했다. 윤슬은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무언가 비었다. 하지만 빈 그것이 무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과 다르게 행동 했고, 심지어 다르게 생각하기까지 하는 것 같았다. 사람 사이의 인격 차이를 넘어서, 무언가 달라도 너무나도 달랐다. 자신을 그저 의무로만 생각하는 엄마와, 흐릿한 눈동자로 퍼런 하늘만 하염없이 뚫어져라 보는 은호까지. 윤슬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그

이유가 정부가 관리하는 이 신생아들과 관련이 있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충격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그들에게 없는 것, 그러니까 정부가 막아놓은 욕구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

학교가 끝나자 이미 하늘은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밤바람이 꽤 차가워서 윤슬은 그 충격을 잠시나마 완화할 수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이 튀어나왔다.

“하… 어찌지…”

어느새 버스 정류장까지 와 있었다. 마지막 버스였다. 그녀는 놓칠까 얼른 버스에 올라탔다. 윤슬이 올라타기 무섭게 버스가 출발했고, 그로 인해 윤슬은 뒤로 확 쏠렸다.

“어어어…?!”

넘어질 거라고 예상해 두 눈을 질끈 감고, 머리가 아프긴 기다렸지만,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바닥에 넘어진 것 같지가 않았다. 윤슬은 살며시 두 눈을 뜨고, 머리가 아프지 확인했고, 전혀 아프지 않았다. 그녀는 45도쯤 기울어져 있었지만, 벽에 닿은 것은 아닌 듯했다. 두 팔을 보니, 누군가 몸을 감싼 자신의 두 팔 윗부분을 꼭 잡고 있었다.

“으아! 누구야!”

윤슬은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손의 힘이 풀어졌고, 뒤에는 학교 교복을 입은 누군가가 서 있었다. 서서히 위를 올려다보니, 은호가 당황한 채 손을 아까 그 자세로 뻗뻗하게 들고 있었다.

“어… 아- 너구나? 고마워…”

윤슬은 당황한 듯 머리를 매만지며 은호에게서 두 걸음 떨어져 손잡이를 잡았다. 얼른 머리카락과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은호는 아까 얼굴 표정은 그대로 굳은 채로 버스의 빈 자리에 앉았다. 어색함이 흘렀다. 윤슬은 어색함에 계속해서 얼굴이 화끈거리며 말을 걸었다.

“이..이번이 마지막 차잖아. 그래서 얼른, 어, 얼른 타려고 했더니 너무 딱 맞춰 왔네…”

윤슬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 상황이 웃기기도 했지만,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부끄러워 어딘가로 숨어버리고 싶었다. 그리고 보니 온통 텅텅 빈 좌석들인데 왜 서 있는 것인지도 이상해 은호의 두 칸 앞에 앉았다. 은호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뒤를 보니 그는 창문 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버스가 덜컥거리며 계속해서 마을로 나아갔다. 윤슬은 생각을 가다듬었고, 첫 수업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예전에는 특별한 것이 마냥 좋기만 했는데, 이제는 두려웠다. 이걸 정부가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 보듯 뻔했다. 윤슬의 특별함은 짊어지기 힘든 짐이었지만, 감히 내려놓고 싶지가 않았다. 은호가 뒤에서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다. 왜 저 아이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가. 그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으려는 것이 그저 헛된 시도라고 느껴졌다. 은호는 아무것도 모른다. 버스는 아무일도 없다는 듯이 계속 덜컥거리며 갔고,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밖이 어둑어둑해서 잘은 보이지 않았지만, 윤슬은 집에 거의 도착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눈을 한 번 더 비빈 다음 버스 문 앞으로 나아갔다. 때마침 여자 기계음의 안내방송이 나오기 시작했다.

“학생 여러분, 이곳은 종착역입니다. 남은 학생들 모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저녁 되세요.”

윤슬은 은호가 오는 기색이 없길래 뒤를 돌아보았다. 은호는 여전히 창문 밖을 내다보며 내릴 생각조차 없어 보였다. 윤슬은 은호를 불렀다.



“윤은호! 우리 내려야돼. 너 집 여기잖아.”

버스가 꺾 소음을 내며 멈췄고, 버스문이 공기 빠지는 소리를 내며 멈췄다. 윤슬은 책가방을 다시 한 번 들쳐메고, 버스 계단을 내려갔다. 뒤따라 은호가 내려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입꼬리만 올리며 뒤로 돌아섰다. 은호가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윤슬은 작별인사를 하고 집에 들어가기로 했다.

“잘가- 내일도 만나는거 잊지 말고!”

“잘가 내일 봐”

윤슬은 다시 한 번 물었다.

“어...어? 지금 나한테 잘가라고 한거야?”

“응.”

“아- 아니야, 잘가! ”

“어.”

윤슬은 은호에게 손을 흔들며 집으로 걸어갔다. 사실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은호를 믿긴 했지만 자신을 정부에 팔아넘기지 않을 거라는 확신까지는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잘가라고, 내일 보자는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

집에 들어온 윤슬은 교복을 벗고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메시지로 학교 숙제가 날아와 있었다. 윤슬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쉴 뒤 천천히 숙제를 읽어 나갔다.

~숙제~

- 1.) 일일 교사 플로이드의 수업에 대해 감상문을 쓰시오
  - 2.) 2교시 숙제 없음
  - 3.) 3교시 숙제 없음
  - 4.) 피타고라스의 정리.pdf
  - 5.) 태양계 행성 ppt
- ...(더보기)

첫번째 숙제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이 감상문은 반드시 거짓으로 써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정부에 끌려갈 것이다. 윤슬은 홀로그램 판을 꺼내 공중에 홀로그램을 띄웠다. 최근 검색란에는 하루 전의 날짜로 욕구, 살아남자는 욕구, 온통 감정에 관한 것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검색 기록을 초기화시키고는 새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끌어서 결국 요약하면 정부가 어떻게 신생아를 관리하는지 알게 되어 좋았다는 내용이었다. 시계를 보니 밤 12시였다. 윤슬은 그만 자기로 하고 세수하기 위해 화장실로 갔다. 세수를 한 뒤 머리를 풀고 침대에 누웠지만, 찬물로 세수를 해 잠이 쉽사리 오지를 않았다. 생각은 더이상 하고싶지가 않아 아무것도 떠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다.

\*

다음 날은 느닷없이 태풍이 몰아쳤다. 학교에서는 12시까지 태풍이 잦아들지 않으면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고 메시지가 날아왔다. 윤슬은 메시지에 잠이 깨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밖은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고, 창문까지 덜컥거렸다. 그런 날씨에 꼭 한 번은 나가 보고 싶었던 그녀는 옷을 얼른 입었다. 태풍용 우비를 꺼내 배터리를 확인한 다음, 엄마가 자고 있는 새를 틔타 밖으로 나갔다. 예상대로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에 날아갈 것만 같았다. 빗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깨지 않을 것 같았다. 윤슬은 마음에 쌓아두고 있었던 모든 것을 소리로 날려버리고 싶었다. 그녀는 웃고는 눈을 꼭 감고 마음껏 소리를 내질렀다.

“윤은호! 내가 왜 다른 줄 알아?”

“알아!”

“알긴 뭘 알-!”

윤슬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충격적인 표정으로 눈을 떴다. 눈앞에 모르는 남자아이 하나가 떡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입을 틀어막았다.

“다 들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곤 화사하게 웃었다. 윤슬이 은호에게 원하던 그 웃음이었다. 빈 곳이 없고 행복해 보이는 채워진 입꼬리가 귀에 걸린다는 미소. 그러나 걸리는 점이 있는 미소였다. 무언가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윤슬의 눈을 마주치자 아픈 기억이 떠오른 듯이 입술을 잠깐 깨무는 것을 윤슬은 놓치지 않았다. 그래도 그녀도 덩달아 웃고 싶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청소년이 법적 보호자 없이 태풍이 몰아치는 광장에 나온 것이 발각되면, 그걸로 외출은 끝이었다. 하지만 청소년인 것은 자신뿐이 아닌 것 같았다. 맞은편에 서 있는 아이 역시 자신보다 한두 살쯤 많은 것 같았다.

“누구세요? 처음 보는데! 밖에 나오면 안되잖아요!”

윤슬은 일단 밀고 나갔다. 다른 방도가 없었다. 게다가 이상한 점은, 이사한다는 소식 하나도 없이 또 누군가 이사왔다는 일이다. 은호 또한 불법 이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다. 앞에 있는 이 남자아이도 그럴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답변은 예상 밖이었다.

“하하하! 뭐야? 너도 밖에 있는거 알려지면 학교 정학 당할게 뻔한데!”

윤슬은 할 말이 없어졌다. 그래서 진심으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기로 했다.

“저기, 이사 오는 소식조차 못 들었는데, 누구세요?”

남자아이는 다시 한 번 웃어젖혔다. 그러곤 윤슬을 광장 정자 아래로 안내했다. 윤슬은 군말 없이 따라갔다. 그녀는 그런 사람을 자신 빼고는 만난 적이 없었다. 모두 공허한 눈으로 세상을 멀뚱히 볼 뿐, 그것에 대해 저토록 맑게 웃는 사람은 만난 적이 없었다. 남자아이는 대답했다.

“아, 난 건너 건너 마을에서 온 한채빈인데, 너는?”

윤슬은 당황하며 입을 뗐다.

“어... 저는 이윤슬인데요, 16살이고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것 맞죠?”

채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맞아. 난 17살. 오늘 아침에 이 마을로 이사와서, 잘 모르니까 잘 부탁해! 혹시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라도 있어? 나도 이 마을 학교 다니게 되었거든. 친구 소개해 달라고 하려 했지.”

윤슬은 미소를 지었다. ‘친구’라는 말을 들으니 웬지 기분이 좋고, 은하가 떠올랐다. 얼른 윤은호라는 친구도 여기 이사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라고, 소개해 주려고 하는 순간 윤슬은 저 건너편 집에서 은호가 태풍용 우비를 쓰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서둘러 은호를 불렀다.

“윤은호! 윤은호! 여기! 와봐!”

빗속이라 잘 안 들릴까 싶어 팔을 필사적으로 흔들고, 거의 악을 쓰다싶이 했다. 그 소리에 채빈은 피식 웃고는 덩달아 손을 흔들어주었다. 은호는 소리를 겨우 들은 듯 주위를 둘러보더니 윤슬과 채빈이 앉아있는 정자를 발견하고는 걸어왔다. 윤슬은 채빈에게 은호를 소개했다.

“저기 걸어오는 애가 제 친구예요. 윤은호라고, 저랑 동갑이에요. 애도 한 이주일 정도 전에 이사왔거든요? 근데 그쪽-아니-어-”

“그냥 편한대로 불러.”

“아, 오빠랑 되게 비슷해요. 진짜 TV에 공지도 안되고, 집도 안 짓고 이사왔다니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자꾸 이사를 오는 거예요?”

채빈은 고개를 가웃하더니 입술을 비죽 내밀곤 말했다.

“글쎄? 그거야 잘 모르지. 우리 가족은 그냥 여기 빈 집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살라는 발령을 받았거든. 그래서 그냥 온 건데, 왜, 싫어?”

채빈이 장난스러운 어투로 눈썹을 치켜올리자 윤슬은 얼른 고개를 휘휘 저었다.

“아뇨! 그런 건 아니구요, 그냥, 평소에 없던 일들이라서요. 요즘에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이상하더라고요.”

그러고선 활짝 웃었다. 채빈 앞에서는 그래도 될 것만 같았다. 마음껏 웃어도, 윤슬의 고민을 마음껏 털어놓아도 이해할 사람 같았다. 정자 앞으로 은호가 걸어와 앉았다. 윤슬은 은호가 채빈을 뚫어져라 쳐다보길래, 얼른 소개를 해 주려 했다. 그러나, 은호가 먼저 입을 뗐다.

“배신자.”

\*

윤슬은 당황했다. 배신자라니, 둘이 아는 사이였다는 말인가? 채빈도 적잖이 당황한 표정이었다. 윤슬이 중재에 나섰다.

“저기…. 둘이 아는 사이..였어? 윤은호! 대답좀 해봐. 오빠, 아는 사이예요?”

채빈이 적잖이 황당한 얼굴로 입을 먼저 열었다.

“아니. 모르는데? 처음 봐. 아까 전에 소개해줬잖아. 알았으면 말해줬겠지.”

윤슬이 이번엔 은호를 보았다. 은호는 굳은 표정에, 약간 화가 난 듯했다. 어째서 은호는 채빈을 알고, 채빈은 은호를 모르는 것일까? 채빈이 무슨 유명인이라도 되는 것일까?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연예계 뉴스에서 채빈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럼 어째서 은호는 채빈을 아는 것일까 하고 의문에 의문이 달렸다. 은호가 말했다.

“몰라.”

윤슬은 더욱 당황했다. 모르는 사이에 어째서 채빈을 싫어하는 것인가? 인상이 나쁜 것도 아니다. 무언가 걸리는 웃음이기는 했지만 웃으면 함께 웃고 싶어지는 얼굴인데다가 아무리 봐도 싫어할 수가 없는 얼굴이다. 윤슬은 조금 화가 나기도 한 상태로 따져 물었다.

“그럼 왜 배신자라고 한 거야? 잘못된 것도 없잖아.”

은호는 처음으로 고민하는 듯했다. 그러다 숨을 마시고 대답했다.

“정부에서 너를 감시하려고 보낸 사람이니까.”

\*

윤슬은 눈을 치켜떴다. 채빈은 아까보다 더 당황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채빈을 치켜뜯 눈으로 보았다. 은호는 아직도 채빈을 노려보고 있었다. 깊숙이서 분노가 느껴졌다.

“오빠, 진짜예요? 윤은호, 확실한 것 맞아?”

윤슬은 채빈과 은호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채빈은 인상을 찌푸리고는 대답했다.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야?”

은호는 계속해서 채빈을 매섭게 쏘아보고 있다, 윤슬을 향해 말했다.

“눈.”

윤슬은 은호를 멀뚱하게 쳐다보다, 채빈에게 몸을 돌려 그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채빈은 피하려 하지 않았다.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으나, 당혹스러운 기색만이 역력했지, 다른 것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윤슬은 무언가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자 채빈의 눈에서 무언가 빛이 나는 것을 발견했다. 채빈의 눈동자 색이 아닌 전혀 다른 색이었다. 그녀는 순간 놀라 뒤로 몸을 물렸다.

“카메라...?”

윤슬이 발견한 것은, 몇년 전까지만 해도 유행했던 일명 카메라 수술이었다. 눈에 카메라를 이식한다고 볼 수 있는 시술로, 사진을 찍기 위해 의도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것과 평상시에 눈을 깜빡이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과 저렴한 시술료로 젊은 세대층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시술이다. 그러나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이 시술은 금지되었고, 이미 시술을 받은 사람들은 카메라를 다시 빼내는 것으로 끝났다. 지금은 이 시술을 정부가 군사적인 요소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반인이 시술을 받는 것은 법으로 처벌하고 있었기에, 아무도 시술을 받지 않는 상태였다.

채빈이 이 시술을 받은 것은 두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윤슬은 생각했다. 첫 번째, 채빈이 법을 어기고까지 이 시술을 받고 싶어 불법으로 행했거나, 두 번째, 채빈이 누군가를 감시하기 위해 이 마을로 보내진 정부의 스파이이거나 이 두가지였다. 그리고 은호는 이중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녀도 그걸 미리 알았다면 두 번째 가능성을 더 의심했을 것이라 믿었다.

“오빠, 정말이에요? 카메라 시술, 정부에서 받으라고 한 거예요?”

“.....”

채빈은 묵묵부답이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몰랐어.”

그럼 알았다는 얘기인가, 몰랐다는 얘기인가. 윤슬은 채빈이 원해서 받은 시술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의 말대로 그는 그저 ‘예상’만 했다는 이야기이다. 그 말이 사실이기를 그녀는 빌었다. 채빈은 한숨을 내쉬었다. 은호는 그 말을 믿었는지 눈빛이 조금 누그러들어 있었다. 윤슬은 그걸 보곤 조금 안심이 되었다. 아직 궁금증은 남아 있었기에, 윤슬이 물었다.

“그럼 이유는 알아요? 카메라를 설치다는게 나를 감시한다는 뜻인건 확실해요? 그리고 그게 오빠인 이유요.”

채빈이 잠시 생각하는 듯하더니 대답했다.

“음… 그제 왜 꼭 나인지는 모르겠어. 여기 발령된 이유도 잘 모르겠고, 너를 감시하려고 여기 보내진 건 아닐지도…? 그저- 그저 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 마을을 감시하라는 거 아닐까-?”

중간에 더듬거리기는 것이 수상하기는 했으나, 그 뒤의 말이 충격적인 바람에 윤슬의 관심은 그곳에 집중되었다. 그녀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말을 더듬거렸다.

“마을요? 딱히 특별할 것도 없고, 이상한 일도 없었는데…?”

“음… 이걸 말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채빈은 한참 뜬 입을 닫고 입을 열었다.

“내가 살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같이 달라.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되나? 너가 특별한 건 알고 있지?”

장치를 심지 않은 사람들의 마을에는 윤슬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 그 말을 듣자 윤슬은 플로이드가 떠올랐다. 플로이드 또한 그녀의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그렇다면 그도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 중 하나일까. 선볼리 묻기도 조금 꺼려했지만, 지금이 아니면 물어보지도 못할 것 같아 윤슬은 입을 뗐다.

“혹시 그 마을에 플로이드라는 정부에서 일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채빈이 대답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여태까지 가만히 있던 은호가 갑작스럽게 대답했다.

“응.”

윤슬이 몸을 약간 뒤로 젖혔다. 은호가 왜 이렇게 아는 것이 많은지 궁금했다.

“윤은호, 넌 어떻게 알아? 너도 그 사람 수업 들었어?”

은호가 다시 돌아온 공허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윤슬은 플로이드가 수업에서 그런 내용을 밝혔다고 생각했지만, 조금 더 고민해보니 그럴 리가 없었다. 이때까지 자신이 모르고 살아왔던 사실인데, 일종의 비밀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플로이드가 학교에서 그걸 떠들고 다닐 리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래서 은호에게 물었다.

“어떻게 알아?”

“카메라 수술.”

“그 사람도 카메라 수술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플로이드도 우리 마을이 아닌 다른 마을을 감시하는 사람이라는 거네?”

“응.”

윤슬은 생각을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리해보면, 정부에서 특별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허락 없이 카메라 시술을 시킨 뒤, 그들의 가족과 그들을 특정 마을에 보내 감시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왜 굳이 그 호르몬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는지 윤슬은 알 수가 없었다. 게다가 자신은 카메라 시술을 받지도, 발령 지시를 받은 적도 없었는데 왜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있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시간을 보니 12시가 다 되어 가고 있었는데, 비는 그칠 기미도 없었다. 윤슬은 오늘 학교를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것이라 예상했고, 방금 채빈과 은호에게서 전해들은 놀랍고도 충격적인 정보를 머리에 입력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걸 모두 믿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해하기도 힘들었다. 속으로는 온라인 수업이라도 출석하고 싶지가 않았다. 머릿속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고, 그동안 은호와 채빈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기계음이 들리고, 윤슬, 은호, 채빈의

손목에서 스크린이 떴다. 학교에서 온 메시지로, 학교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다. 윤슬은 내심 기뻐하며 은호를 보며 말했다.

“온라인으로 수업한다니까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갈까? 비도 많이 오고, 부모님이 찾겠다. 오빠도요. 얼른 들어가 보세요. 이사 첫 날이니까 정리할 것도 많을 것 아니에요.”

은호는 고개를 가만히 끄덕였다. 그러나 채빈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난 여기 있을 거야. 나가서 동네 구경하다 온다고 했으니까 안 와도 걱정 안 할걸?”

윤슬은 놀랐다.

“네? 그럼 부모님이 밖에 나가는 걸 허락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학교를 쉬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게다가 걱정이라구요?”

채빈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반응이 이상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는 친절하게 답해주었다.

“응. 우리 가족 전부 너랑 같아. 그래서 자식들을 아끼고….음….그런 걸 뭐라고 하지? 그 감정을? 어쨌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서로를 신뢰하고, 아….그런 걸 뭐라고 부르더라….뭔가 알듯 하면서도 모르겠네.”

그러나 이 말을 하면서 채빈의 얼굴에는 전과 같이 그의 얼굴에서 스쳐 지나가던 아픔의 표정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윤슬도 예전부터 고민했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감정을 따로 부르는 명칭이 없었던 것이다.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아프면 슬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만 같고 웃음이 나면 기쁨. 세상이 자신만 괴롭히고 누군가를 짓밟고 싶은 것은 분노.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감정을 알 수가 없었다. 채빈이 모른다면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이런 감정이 존재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다. 그녀는 그 문제를 제쳐두고 다른 주제에 대해 묻기로 했다.

“그럼 왜 오빠 같은 사람들을 따로 모아 놓아봤는지는 아세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흠, 그러고 보니 그렇네!”

그러고 보니 그렇네? 여태까지 그 이유를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눈치다. 윤슬은 의아하게 여겼다. 방금까지만 해도 자신의 마을에 윤슬과 같은 사람들의 부류가 모여 있다는 말을 해 놓고, 왜 그 마을 밖에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지 궁금함을 단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윤슬은 살면서 궁금증을 느낄 때가 많았는데, 대부분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것들이었다. 그녀는 채빈이 도파민과 옥시토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자신과 같은 의문점들을 모두 공유할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또 아니라는 것에 놀라기까지 했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윤슬을 채빈이 끄집어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왜? 내가 뭐 잘못된 말이라도 한 건 아니지?”

윤슬은 얼른 대답했다.

“아, 아니에요. 잠시 생각할 일이 있는데, 별 일은 아니에요. 제가 원래 잡생각이 많아요.”

채빈은 관찰하듯이 고개를 가만히 끄덕이더니, 여태 가지 않은 은호를 바라보았다. 은호는 아직 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윤슬이 물었다.

“윤은호, 안 가? 간다며.”

은호는 대답했다.

“둘 다 안 가는데.”

윤슬이 놀라며 말했다.

“그럼 우리 안 가면 안 갈 거야? 난 조금 있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채빈은 상관 없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하고는 머리를 쓸었다. 윤슬은 은호를 만난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았고 하루하루 변하는 모습에 더 놀랄 게 없다 해도 계속해서 경탄했다. 자신이 변화시키는 것 같기도 하여 뿌듯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녀는 방금 들은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저번에 가르쳐 주던 것을 더 가르쳐 주기로 하였다.

“윤은호. 그럼 내가 어제 가르쳐 줬던 것 가르쳐 줄게. 근데 이번에는 채빈 오빠도 알고 있는 거니까, 같이 가르쳐 줄 수 있겠다!”

채빈이 궁금해 하는 눈빛으로 윤슬을 쳐다보았다.

“뭘 가르쳐주는데?”

윤슬이 미소지으며 말했다.

“감정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여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려구요. 그런데 오빠가 오면서 예상치 못하게 더 수월해졌네요. 같이 가르치면 제가 못 말한 부분을 오빠가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채빈은 제법 놀란 모양이었다. 그런 발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을 테니 말이다. 윤슬은 그걸 예상하고 은호를 본 다음 말을 시작했다.

“저번에 말해 준 거, 매일 아침에 했어?”

은호는 예상과 다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윤슬은 뿌듯하여 웃음이 절로 나왔다.

“좋아.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갈게. 너가 이제 여기에 살고 있음을 알겠어?”

채빈은 계속해서 은호와 윤슬을 번갈아 보며 빤히 쳐다보았고,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이 진실인지는 윤슬이 확신할 수 있었다. 그래서 윤슬은 말을 이었다.

“그럼-내가 여기 있고, 나도 너랑 같은 사람인 건 이해하겠어? 아니,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

은호는 당황한 눈빛이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도 어려웠지만, 남을 이해하기는 더 어려운 법이었다. 윤슬의 감정에 다가가려면 좋아하기보다는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기에, 자신을 이해시키고 그 다음으로는 윤슬을 이해시키려고 했다.

“알겠어. 그게 오늘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차피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음-먼저 아무 쪽 손이나 쥐 봐.”

은호는 오른손을 내밀었다.

“이제 눈을 감아 봐. 저번에 했던 것처럼 편하게.”

채빈은 호기심 가득해 보이는 눈으로 은호의 손을 바라보았다. 자신은 고민해 본 적 없는 것을 윤슬은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그걸 가르쳐 줄 정도로 고민했다는 것을 깨닫자 무언가 깊은 고민이 밀려왔다. 윤슬은 손을 뻗어 은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채빈을 향해서도 손을 내밀었다. 채빈은 고민했다. 이 손을 잡아도 될지 걱정되어 보였지만, 잠시 머뭇거리다 손을 윤슬의 손바닥에 올렸다. 윤슬은 채빈에게 눈을 감으라고 말했고, 채빈은 윤슬을 짧은 시간동안 바라보다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내쉬었다. 이상하다고 말하려 했지만, 비도 그치지 않아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았고 지나다니다 하더라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 그만하자는 말은 거두었다.

윤슬은 양쪽으로 앉아 있는 채빈과 은호를 살며시 눈을 뜨고 바라보았다. 은호의 때처럼 채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짧은 머리에 밖에서 많이 활동한 듯한 그을린 피부, 조금 모진 눈, 은호와 대조되는 날카로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둘은 확연히 달랐다. 은호는 깨질 것 같은 도자기라면, 채빈은 기대어도 될 것 같은 견고한 건축물 같았다. 웃는 얼굴이 오랜만이였다. 거울에서밖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보게 되니 설레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 역시 얼굴 한쪽에 어두움이 자리잡고 있었다. 윤슬은 순간적으로 흠칫했다. 분명히 자신과 같아 보였는데, 은호의 얼굴에서도 볼 수 없는 깊은 아픔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얼른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았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난 뒤, 윤슬은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채빈과 은호가 그대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의아해하며 윤슬은 말을 꺼냈다.

“잠시 딴 생각 하느라 말을 못 꺼냈…”

“췌-”

채빈이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윤슬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렇게 눈만 감고 손만 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을 것 같은데 채빈이 왜 그런 행동을 취했는지는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그가 더 잘 아는 부분도 있을 듯해서 윤슬은 눈을 다시 감았다. 빗소리가 들렸다. 아까 말을 할 때에는 잘 들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눈을 감고 집중하니 아주 잘 들렸다. 처음에는 췌아-하는 소리만이 들렸지만, 더 자세히 들어보니 빗방울 하나하나가 길에, 정자의 꼭대기에 부딪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빗방울은 물이 고인 곳에, 어떤 빗방울은 다른 빗방울이 한 번도 내리지 않은 곳에 내리는 것이 귀로 느껴졌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맞잡은 손에서는 차가운 바닥이 아닌 따스한 손이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고맙고 좋아서 감긴 눈 안으로 눈물이 채워졌다. 윤슬은 가까스로 눈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곤 미소를 지었다. 자신을 감시하라고 시킨 정부로 인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았다. 채빈이 손으로 신호를 보냈다. 윤슬은 눈을 살며시 뜨고 은호에게도 손으로 신호를 보냈다. 은호도 눈을 뜨고 그녀를 보았다.

“빗소리가..잘 느껴졌어요. 비를 맞아본 적은 있어도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본 적은 없는데, 평소에 듣던 소리와 조금 달랐어요. 뭐라고 해야 하지…? 음…. 하나하나가 모두 귀로 들어서-잘 모르겠어요. 원래 이렇게 설명한 적이 없어서요..”

채빈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뭐 그렇게 심오하게까지 의미를 바란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주니 고맙네…”

윤슬은 은호를 쳐다보았다.

“이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어땠어? 뭔가 달랐어?”

은호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말했다.

“어.”

윤슬은 빙긋이 웃고는 대답했다.

“정말? 잘됐다. 앞으로도 이렇게 만나는 것 어때? 오빠, 저희 원래 날씨 좋은 날에는 저-기 분수대에서 만나거든요. 아침에 아무 시간에나 나오면 돼요. 학교 가기 전까지 얘기하다가 가요. 물론 오빠 부모님이 허락해 주시면요.”

채빈은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 내 눈에 이상한 시술 때문에 널 지켜보는데도?”

윤슬은 입을 열고 대답하려 했다.

“아-”

“괜찮아.”



윤슬은 놀라서 옆을 쳐다보았다. 은호가 무표정하게 채빈을 쳐다보며 대답한 것이다. 채빈도 놀란 눈치였다. 방금까지 자신더러 배신자라고 했던 아이가 자신이 그들의 모임에 가도 된다고 한 것이다.

“저도 된다고 하려 했어요. 상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오빠 잘못도 아니니까 괜찮아요. 은호도 된다고 했으니, 정말 좋을 거예요.”

채빈은 미소지으며 윤슬과 은호를 바라보곤, 아직까지도 잡고 있던 손을 놓고는 일어났다.

“그럼 난 이제 갈게.”

“잠시만요! 오는 거죠?”

채빈은 여전히 미소만 지으며 우비의 모자를 쓰고는 밖으로 나갔다. 어쩐지 불안한 미소였다. 윤슬은 채빈이 오지 않을까, 너무 무리한 부탁이었나 생각했다. 아직 안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색한가 싶었다. 그녀는 어색하게 은호를 쳐다보았다. 은호는 빗속을 걸어가는 채빈의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윤슬도 그 쪽을 바라보았다. 채빈은 투명한 우비에 손을 찢어넣고 걸어가고 있었다. 윤슬은 입꼬리만으로 웃고는 은호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도 가자. 학교 수업은 집에서 한대도 아침은 먹어야지.”

은호는 고개만 끄덕이곤, 옆에 벗어 놓은 우비를 입었다. 윤슬도 열어 놓았던 우비의 지퍼를 잠궜다. 손목을 보자, 일기예보는 비가 내일 오전까지 온다고 공지되어 있었다. 그녀는 허공에 손가락을 그어 일기예보를 다시 메시지함으로 넣었다. 그러고는 창을 닫은 뒤, 일어났다. 나가기 직전, 모자를 쓰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눈앞에 바로 떨어지는 비가 시원해 보였다. 윤슬은 은호를 돌아보았다.

“빨리 와-”

은호는 속도에 변함 없이 걸어왔다. 윤슬은 웃으며 말했다.

“여기서 우비 벗어보는 것 어때?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그는 아무 대답 없이 가만히 서 있었다. 윤슬은 배시시 웃었다. 젖기는 싫은 모양이었다. 그녀도 젖는 것을 썩 좋아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따듯한 물로만 젖어 자연 그대로의 물에 잠겨보고 싶었다. 윤슬은 더이상 말 없이 우비 모자를 벗었다. 그러자 손목에서 진동과 경보가 울리더니, 병균에 감염될 확률이 10퍼센트 가량 상승되었다. 그러나 윤슬은 상관치 않고 지퍼를 내렸다. 그러자 또다시 확률이 30퍼센트 정도 올라갔다. 그녀는 우비를 벗어 정자에 놓고 빗속으로 들어갔다. 귓가에 빗소리가 와닿았다.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 머리를 치켜 올렸다. 얼굴에도 비가 떨어졌다. 문득 수업시간에 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기억났다.

윤슬은 자연과학 수업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인간인 선생님은 다른 길로 새기 일쑤였으며, 말을 더듬기까지 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다. 윤슬만이 이상하다고 느낄 뿐이었다. 그날도 화학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혼자 떠들던 중간에 다른 길로 새고 말았다.

“그, 그러니까 여기서는 산성이... 아! 애, 애들아. 그걸 아니? 불과 백 년 전만 해도 비를 맞으면 머, 머리가 빠졌어. 그건 비가 산성이라서 그런데, 철로 만든 동상도 녹이고 말이야, 사람이 탈모가 오고 그랬어. 그, 그런데 지금은 비, 비가 깨끗해. 웬지 아는 사람? 없구나. 정부의 과학자들이 비를 정화해서 내리게 해, 했어. 지금 비를 마시면, 수, 수돗물을 마시는 거야. 알겠니-?”

그 생각을 하니 비가 자연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사실 이 주변의 모든 것이 인공적이었다. 풀쭉, 나무 한 그루, 나비 한 마리까지 모두가 과학자들의 실험실에서 태어난 것들이었다. 어쩔

수가 없었다. 선생님의 말대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는 환경 오염으로 되돌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로 인해 과학자들이 총동원되어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낸 것이다. 생각에 빠져 있는데, 옆에서 은호가 어깨를 툭툭 쳤다.

“왜?”

“....”

은호는 우비 모자를 벗고 우비를 모두 벗었다. 비가 은호의 남색 옷에 스며들어 색이 진해졌다. 머리카락도 젖어 머리에 찰싹 달라붙었다. 윤슬은 그를 향해 활짝 웃어 보였다.

“어때? 시원하지?”

윤슬이 반쯤은 소리치며 말했다. 은호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눈 주위에서 물이 흘러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다. 윤슬의 머리도 목과 어깨에 붙어 간지러웠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고 물이 고인 바닥을 뛰어 다녔다.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좋은 것도 오랜만이였다. 신발 사이로 물이 스며 들어와 발이 시려오기 시작했다. 발이 완전히 젖자, 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 신기한 기분이였다. 이때까지 왜 빗속에서 이렇게 뛰지 않았는지 후회가 되었다. 은호는 아직도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다 두 팔을 벌려 손바닥을 위로 보게 하였다. 윤슬은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이 나왔다. 마치 하늘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듯한 몸짓이였다.

“뭐 해? 너 진짜 웃겨, 지금!”

은호는 하늘에서 눈을 떼어 윤슬을 쳐다보았다. 헛갈린 눈빛이였다. 그가 웃기다는 말을 생전 처음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는 입을 뗐다.

“너도.”

윤슬은 웃음을 터뜨렸다.

“뭐? 내가? 뭐라는거야! 너보다는 낫거든? 너 지금 막 심오하게 기도하는 사람 같아!”

은호는 눈을 돌려 다시 하늘을 쳐다보고는, 두 손을 모아 오목하게 만들어 빗물을 손 안에 가두려 했다. 그러곤 그 물을 마셨다. 윤슬은 그 선생님이 떠올라 말했다.

“너, 수돗물 마시는 거야. 다 정화돼서 자연적인 비가 아니래.”

그렇게 말하고 나니 끝이 무언가 씁쓸했다. 하지 말걸하는 생각이 들었다. 윤슬은 입으로만 웃으며 은호를 쳐다보았다.

“아냐. 마셔도 안된다는 말은 아니야. 어때?”

은호는 말 대신 손에 물을 담아 윤슬에게 건넸다. 윤슬은 당황했다.

“아니아니 난 괜찮아- 그냥 어떻게냐고 물어본 거야.”

그는 다시 물을 건넸다. 윤슬은 순수하게 건네는 은호를 거부하기도 그래서 은호의 손에 든 물을 마셨다. 정말 수돗물 맛이였다. 그녀는 궁금해서 집에서 정수기 물이 아닌 세면대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 보았다. 약품 냄새가 나고, 맛은 약간 비릿했다. 비에서 수돗물 맛이 나는 것이 이상했다. 조금 더 신선하고 깔끔한 맛을 기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진짜 수돗물 맛이네... 좀 별로다, 그치?”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윤슬은 웃고는 말했다.

“안 추워? 이제 진짜 들어갈까? 씻어야 돼잖아. 아, 수돗물이라서 씻을 필요 없나..어쨌든 머리는 감아야 하니까, 감기 걸리겠다.”

은호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는 우비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윤슬도 따라 걸었다. 우비는 감기 걸릴 확률이 70퍼센트라며 빼빅거렸다. 윤슬은 알람을 켜다. 우비를 다시 입기도 별로 내키지

않아 한쪽 팔에 우비를 들고 걸었다. 집에 가서 엄마가 할 말을 듣기가 싫었다. 걱정도 하지 않으면서 의미없는 잔소리만 할 것이다. 씻지 않아도 된다면 밖에서 이대로 수돗물 비라도 맞고 있고 싶었다. 신선한 경험이라고 생각했다.

\*

집에 도착하니 엄마는 대형 스크린으로 연예계 뉴스를 전혀 흥미롭지 않다는 눈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다 윤슬이 젖은 채로 들어온 것을 보자 호들갑을 떨며 윤슬을 현관으로 밀어냈다.

“우비를 왜 벗은거야? 바닥이 젖잖아.”

그러면서 수건을 들고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윤슬은 입을 열었다.

“엄마- 나도 수건 좀 갖다-”

“기다려 봐. 물 빨리 안 닦으면 바닥에 스며서 곰팡이 필 수도 있어. 다 닦고 수건 줄게.”

“어?..... 응.”

윤슬의 엄마는 눈을 깜빡하지도 않고 바닥을 꼼꼼히 닦았다. 윤슬은 약 20분가량을 현관에 떨어져 있었다. 물을 별로 흘린 것 같지도 않았는데, 진공 청소기까지 가져와 바닥을 닦게 했다. 역시 의무였다.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었다. 결국 윤슬은 엄마가 청소기를 돌리는 동안 엄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화장실로 물을 똑똑 흘리며 들어갔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꽁 닫고 거울을 보았다. 추위에 입술이 보라색이 되어 있었다. 얼른 젖은 옷을 벗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도, 땀속 추위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머리를 말리고, 따뜻한 옷을 입은 후 침대로 기어들어갔다. 힘들었지만 괜히 빗속에 나갔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이불을 머리 끝까지 끌어올린 뒤 머리를 짚어 보았더니 조금 뜨거운 것 같았지만, 엄마는 아직도 청소기를 돌리고 있을 테니 한숨 자고 난 뒤 약을 챙겨 먹기로 했다. 그리고 깊은 잠으로 빠져들었다.

\*

일어나보니 뜨거우면서도 차가웠다. 덥다가 춥다가를 1초에 수백 번씩 반복하는 기분이었다. 윤슬은 열이 난다고 확신했다. 그것도 아주 높은 열이. 그녀는 신음을 내뱉으며 몸을 일으켜 앉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팔에 힘이 계속 빠져 굵혀져 그저 버둥거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하는 수 없이 누워 이마에 손을 대 보았다. 손은 얼음처럼 시렸고, 이마는 용암같이 뜨거워 이마가 더욱 뜨겁게 느껴졌다. 윤슬은 다시 눈을 감고 손을 덥히기 위해 이불 속으로 집어넣었다. 엄마가 미웠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엄마가 미웠다. 바닥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윤슬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가서 따진다고 해도 엄마는 왜 화가 났는지 이해를 못할 것이다.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 다시 다시 잠으로 빠져들었다.

\*

다시 눈을 떴을 땐 밖이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그렇게 많이 잔 것 같지도 않아 시계를 보니 7시 45분이었다. 온라인 수업을 완전히 빠져 버린 것에 걱정을 하기도 잠시, 일으켜 앉으려고 하니 시야에 전에 못 보던 것이 들어왔다. 책상 위에 놓인 한 상자였다. 완전히 검은색이다,

정성스럽게 빨간색 리본까지 묶여 있었다. 크기는 가로세로 15cm 정도였다. 윤슬은 힘을 주고 겨우 일어나 앉아 책상 위로 손을 뻗어 상자를 잡았다. 표면이 매끈매끈하고 시원했다. 침대 곁으로 가져와 리본을 풀으려 했다. 그 순간, 리본 사이에 숨겨져 있던 소형 카메라가 빨간색으로 윤슬의 얼굴을 레이저 스캐닝을 했다. 윤슬은 깜짝 놀라 상자를 떨어뜨렸다. 침대에 안정적으로 착지한 상자는 리본이 저절로 풀리고 열렸다. 안에는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초라한 편지 한 통과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다. 윤슬은 조심스럽게 입구를 열어 보았다. 편지를 받아 본 것은 처음이었다. 역사 시간에 옛날 옛적에 사람들이 소식을 주고받을 때 편지라는 것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종이 봉투가 편지 봉투처럼 생겼다고 생각했다. 편지 봉투 안에는 깨끗한 종이에 까만 잉크로 뿔뿔한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

### <이윤슬>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심이라서 미안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도망가라는 말밖에 없어 미안해. 다 내 탓이야. 너를 만나던 그 순간순간이 다 가짜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최대한 남쪽으로 가. 이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상자에 나침반이 있을 테니까 된다면 윤은호도 데려가도록 해 짐도 단단히 싸고. 익숙하지도 않은 내가 한 말만 듣고 떠나는 건 별로 믿음직스럽지 않겠지만 딱 한 번만 믿어줘. 너가 나한테 대해준 호의에 대한 보답이라고나 할까... 만약에 가는 길에 날 발견해도 모른 척해줘 한 번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10년은 알고 지낸 사람 같았다고만 할게. 이런 곳에서 너같이 감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 너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내가 잘 이해해. 그렇지만 딱 꼬집어 무엇이라고는 말하기 힘들네. 옛날에는 있었을 거야. 그때 좋았다고들 하니까. 너가 눈치 챘을 것 같지만 나도 그걸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난 너가 살고 있는 곳처럼 그게 없는 사람들 사이에 살지는 않았어. 우린 그 감정이 없는것만도 못한 것 같아. 모든 건 정부가 관리할 따름이야. 나도 그 중 하나이고. 그런데 나는 더이상 그렇게 관리되고 싶지가 않더라. 오늘 너랑 얘기할 때도 눈을 감고 있고 싶었어. 이 카메라를 정부에서 해주는 정교한 수술을 하지 않고 떼어내려면 눈을 없애야 한대. 사실 그게 나을지도 몰라. 너를 위해서라면 그렇게까지라도 하고싶어. 그렇지만 막상 하러니 겁이 나더라. 난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봐. 윤은호, 그 애 정말 신기해. 좀비같은 사람들 사이에 너와 윤은호밖에 보이지 않아. 너도 다르지만, 윤은호도 달라. 그건 내가 확신해. 내 눈에 찍힌 게 전부 정부에 들어갔을 테니, 한시바삐 떠나는게 좋을 거야. 아, 절대 전자기기는 들고가지 마. 추적당할 게 뻔하거든 이제와서 이러니 좀 당황스럽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은 이렇게라도 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서 좋다. 여기는 혹시 몰라서 너한테 정말로 하고싶은 말들을 적을 수가 없네. 그렇지만 너가 도망가야 한다는 것도 적지 않을 수는 없었어.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실망할 것도 많겠지만 다시는 너가 살던 마을로 돌아가지 마. 넌 가면 안 돼. 윤은호도 이미 되돌릴 수 없이 바깥에 버렸어. 네 눈엔 그대로겠지만, 곧 튀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 데려가고 싶다면 데려가. 아니, 제발 데려가. 날 찾지 않을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 찾지 마. 그래봤자 헛수고만 할 테니까. 글쎄, 찾는다 해도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네. 미안해.

<한채빈>

\*

머리 안에서 벌레가 수천 마리 기어다니는 기분이 들었다. 도망가라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자신은 잘못된 것이 없었다. 아니, 애초에 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던 말인가? 윤슬은 알 수가 없었다. 아무 설명도 없이 미안하다는 말과, 옛날이 좋았다는 말, 도망가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자신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또 무엇인지 감도 오지 않았다. 지금은 갈 수가 없었다.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운 데다, 힘도 없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짚어 보기 위해서 자리에 누웠다.

\*

윤슬은 시간이 한참 지난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실제로 시계를 보니 5시간이 지나 있었다. 침대에서 책상 위로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움켜잡아 다시 놓고 난 뒤 전원을 켰다. 윤슬의 예상과 달리 채빈에게서는 전화 한 통 오지 않았다. 윤슬은 한숨을 쉬고 잠금을 푼 뒤 통화 기록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마에 휴대전화를 대고 체온을 잴다. 정상을 알리는 기계음이 울리더니 빨간 바탕에 36.7도라고 떴다. 윤슬은 한숨을 다시 쉬고는 전화번호 목록으로 들어갔다. 채빈의 전화번호를 누를지 잠시 고민했다. 그러나 끝에는 전원을 끄고 침대에 털썩 누웠다. 천장의 불빛이 취침 모드로 은은하게 빛났다. 5시간 전 일과 잠시 전의 일이 뒤섞여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게 맴돌았다. 오늘 하루만 해도 너무 많은 일들이 꽉 차 있었다. 도망가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기는 했는데, 남쪽으로 가라고 했을 뿐 정확한 목적지는 정해지지도 않았다. 윤슬은 일단 최선은 윤은호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손을 더듬어 옆에 놓인 전화기를 킨 다음 전화번호 목록에서 ‘윤은호’를 입력하자 수십 명이 나왔지만, 거리순으로 정리하니 옆 옆 집의 윤은호가 한 명 떴다. 채빈의 편지대로 정부가 이걸 들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만무했지만, 한밤중에 집으로 찾아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 통화 버튼을 눌렀다. 눈을 꼭 감고 신호가 갈 동안 기다렸다. 진동과 함께 통화 시간이 세어지기 시작했다. 1초, 2초, 3초...

“윤은호.”

“왜?”

윤슬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는 내뱉었다.

“잘 들어. 이유는 설명 못 해줘. 지금 당장 짐 싸. 물이랑 음식, 그러니까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것들 다 챙겨. 너무 무겁게는 말고. 여벌 옷도 챙겨. 반팔이랑 긴팔 다 챙기고 비상용품, 그런거 다 챙겨. 필요할 거야. 최대한 필요할 것 같은 것들 다 챙기고, 불필요한 건 빼. 전자기기는 아무것도 챙겨오지 마. 다시는 여기 안 돌아올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그 각오도 하고. 떠나기 싫다면... 떠나지 마. 그런데 난 갈 거야. 그러니까 너도 와. 알겠지? 아, 그리고 올 거면 내일 아침 4시 30분에 분수 앞으로 와. 그 시간까지 안 오면 먼저 갈 거야. 절대 늦지 마. 끊는다.”

“어-?”

윤슬은 은호의 말을 듣는 대신 귀에서 전화기를 땀 다음 곧바로 끊었다. 한숨을 쉬었다. 이때까지 살던 세상이 모두 무너지는데, 전혀 아쉬울 것 하나 없는 게 이상했다. 뭔가 하나쯤은 아쉬울 줄 알았는데 말이다. 엄마, 주민들, 모두 그림자가 없을 것 같았다. 몇번 만나지도 않은 채빈을 믿고 떠나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가슴 깊숙히에서부터 그를 믿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유는 알 수가 없었다. 윤슬은 생각할 때가 아니라며 몸을 움직여 옷을 챙기기 시작했다. 여러 색의 반팔, 위에 걸칠 수 있는 가디건과 패딩, 청바지와 트레이닝복 등 사계절 모두에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챙겼다.

소리가 크게 나 엄마가 꺾 걱정도 되었지만 상관없었다. 엄마는 항상 수면제를 먹은 뒤 깊게 잠들었고,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음식을 챙겨야 했다. 부엌으로 내려가야 했는데, 엄마가 깨지 않기를 기도해야 했다. 방문 앞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문열림 버튼을 누르면 분명히 “문이 열립니다”하는 기계음이 들릴 터라 비상 버튼을 누르고 손으로 열어야 했다. 예전에 비상 버튼을 눌렀을 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던 것 같았다. 윤슬은 문 옆에 있는 빨간 버튼을 누르고 눈을 꼭 감았다. 공기 빠지는 소리와 함께 문의 힘이 빠져 늘어졌다. 윤슬은 있는 힘껏 문을 옆으로 밀었다.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다. 윤슬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엄마의 방 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냉장고로 내려가는 것이 뭐가 대수라고. 걸려도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고 있었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며 내려갔지만, 심장이 심하게 뛰었다. 냉장고 앞에서 멈춰섰다. 다시 숨을 쉬고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빵 몇 개와 물이 있었다.

그녀의 집은 먹을 것을 많이 비치해두지 않는 편이었다. 그때그때 먹고 다음 날 바로 사러 가는 편이었기 때문에, 있는 빵 6개를 모두 배낭에 넣고, 물도 너무 무겁지 않을 정도로 0.5리터를 3개 가방에 쭈셔 넣었다. 제법 무거워진 가방을 들고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엄마는 깨지 않았고, 방에 도착해 문을 닫았다. 휴대전화를 충전시켰다. 옷은 수트케이스에 넣고, 음식은 배낭에 넣은 채로 침낭을 찾기 시작했다.

어렸을 적에 엄마한테 사달라고 졸라 한 번도 써 보지 못하고 어딘가에 숨겨 놓았던 것이 기억났다. 길을 걷다 보면 필요할 것 같았다. 옷장 깊숙이를 뒤졌다. 차가운 방수천의 느낌이 손끝에 닿아 그걸 끄집어냈더니, 예상대로 먼지가 가득 쌓여 있는 짙은 초록색의 침낭이 손에 쥐여 있었다. 윤슬은 먼지를 탁탁 털고 최대한 작게 바람을 빼고 접은 뒤 배낭에 넣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챙겨야 할지 생각하며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았다. 은호에게 문자가 와 있었다. 열어보니, 짐을 다 싣 사진이었다. 윤슬은 내심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짐을 싣 가방들을 사진을 찍어 은호에게 보냈다. 휴대전화를 끄고, 더 챙길 것들을 생각하다,

제일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것을 느꼈다. 나침반이었다. 윤슬은 벌떡 일어나 풀어헤쳐져 있는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자그마한 갈색 상자가 하나 담겨 있었다. 그녀는 손바닥에 그걸 올려 놓고 뚜껑을 열었다. 정말로 나침반과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금속 표면이 매끄러웠다. 바늘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북쪽, 남쪽, 서쪽, 동쪽을 말해주는 N, S, W, E가 있었다. 윤슬은 유리 표면을 쓰다듬었다. 차갑고 부드러웠다. 종이는 그 나침반을 어떻게 쓰는 지에 대한 설명서인 듯 했다. 윤슬은 뚜껑을 닫고 설명서를 가볍게 읽은 뒤 쉽게 댈 수 있는 가방에 나침반과 휴대전화, 물과 충전기를 집어넣었다.

시계를 보니 벌써 4시 15분이었다. 1시간이 남은 것을 보고 마지막 점검을 하기 시작했다. 옷가지, 물, 음식, 휴대전화, 나침반, 채빈의 편지 등을 챙긴 것을 확인하고는 옷을 입기 시작했다. 제일 편하다고 느끼는 검은색 트레이닝복 바지와 눈에 떨 것을 염려해 검은색 후드티를 입었다. 혹시 추울 것을 대비해 바람막이도 챙겼다. 그리고 다시 시계를 보니 20분이었다. 윤슬은 시간이 딱 맞을 것을 예감하며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해는 아직도 뜰 기미를 보이지도 않았다. 엄마도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 같아 다행이었다. 자신이 사라진 것을 알아채려면 적어도 6시간은 있어야 할 것 같았다. 새벽 공기는 시원하고 달콤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 불안하기도 한 것을 아침의 새로운 바람이 덜어주는 것만도 같았다. 분수대 앞은 아직 아무도 없었다. 가방이 조금 무거운 것 같았다. 이걸 메고 먼 길을 어떻게 가나 싶었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이제 그만하자 싶었다. 이제 이 단조로운 세상에서 벗어난다는 것만으로 가슴이 벅차 오를 것이라고 믿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았다.

‘하긴, 평생 살아온 곳인데 발걸음이 쉽게 떼지는 게 이상한 거지.’

윤슬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방 끈을 단단히 거머쥐었다. 은호가 빨리 왔으면 싶었다. 혼자선 이 모든 걸 감당하기가 힘들었다. 바닥을 쳐다보고 있으니, 은호의 스니커즈가 윤곽만 희미하게 눈에 띄었다. 윤슬은 침을 삼키며 미소짓고는, 시선을 올렸다. 은호가 평소같은 무덤덤한 얼굴로 큰 베낭을 메고 윤슬의 앞에 서 있었다.

“아, 왔어? 나도 방금 왔어. 출발하자”

윤슬은 애써 밝게 웃으며 한 번 더 가방끈을 손마디가 하얘지도록 잡았다. 그것이 마치 생명줄인 것처럼. 은호는 아무 말 없이 윤슬에게 고개만 끄덕이고는 걸음을 땀다. 그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윤슬은 이 도시를 마지막으로 주의 깊게 둘러보았다. 겨울이라서인지 해가 뜰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주변은 추웠고, 이상한 흥분과 두려움 때문에 머리에 열이 다시 오르는 듯했다. 그러나 돌아갈 수는 없었다. 큰 결심을 하고 나왔는데, 집으로 다시 간다면 다시는 나올 용기가 나지 않을 듯했기 때문이다.

\*

얼마간은 평소의 마을과 다른없는 풍경이 계속해서 펼쳐졌다. 주변에 같은 간격으로 똑바로 서 있는 나무들과, 자신의 집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인 집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윤슬은 마지막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자신의 생에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없었다. 항상 똑같은 것으로 시작되어 아직까지 끝을 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학년의 마지막이라 해도 내년에 똑같은 선생님, 똑같은 교육방식, 똑같은 학급이 기다리고 있어 아쉬움이랄 것도 없는 학교였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마지막이었다. 학급의 친구들 모두가 마지막이었으며, 학교의 모든 건물과 풍경과 수업과 교사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가능성이 컸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쉬움’이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는 기분이었다. 신선한 기분이었으나, 좋다고 느낄 수는 없었다. 이때까지는 전혀 반갑지 않고, 끝났으면 했던 것들이 정말로 끝을 맺은 것인데 뭐가 그리다고 마음이 허전한지 알 수 없었다. 윤슬은 울적한 기분을 달래려 은호에게 말을 걸었다.

“넌 안 아쉬워? 이 마을 이제 마지막이잖아.”

은호가 윤슬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약 3초간을 생각하는듯 싶더니, 그대로 고개를 돌렸다. 윤슬은 굳이 한번 더 묻지 않았다. 그저 미소를 머금고 나침반을 보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걸었다. 윤슬의 나침반이 그녀의 걸음에 따라 조금씩, 부드럽게 흔들렸다. 남쪽이 학교를 지나쳐 가는 길이라는 것은 처음 깨달은 순간이었다. 한참을 걸으니 유난히 웅장해 보이는 석조 건물, 학교가 나타났다. 윤슬은 앞서가다 발걸음을 멈추고 옆으로 돌아보았다. 주변에는 나무가 뻗뻗이 심어져 있었고, 얼마 전에 조성한 공원도 슬며시 보였다. 교문은 굳게 닫힌 상태였다. 윤슬은 큰 주물로 만들어진 하얀 교문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곳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예상대로 밤공기보다 차가웠고, 금방 손이 시려워졌다. 윤슬은 손을 떼고, 은호를 돌아보았다. 은호도 학교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이 학교도 다시는 못 오겠네…”

윤슬은 혼잣말 하듯이 말했다. 은호는 그 소리를 듣고 대답했다.

“그렇겠지. 어쩌면 올 지도 모르고.”

윤슬은 잠시 생각하다 어깨를 으쓱했다. 미래는 알 수가 없었기에 다시는 오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확신할 수는 없었다. 불과 몇시간 전만 해도 다음 날 학교 갈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잠시 뒤 떠나라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순간, 한 줄기의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잠시만. 윤은호. 지금 우리 뭘 믿고 남쪽으로 가는 거지?”

“...?”

“아니, 뭔가 말이 안되지않아!”

“뭐가?”

“잠깐만. 지금 우리 그냥 편지 한 장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삶을 포기하고 떠나는 거잖아! 설사 그게 진실이라 해도.. 아니, 애초에 그게 조작된 거면 어찌지? 누가 보냈는지 확신할 수도 없는 데 말이야. 난 왜 그게 이제 생각난 거지? 편지-편지를 다시 봐야겠어.”

윤슬은 급히 뒤에 멘 가방을 앞으로 돌려멘 다음 받았던 상자를 꺼냈다. 리본의 한쪽 끝을 잡고 당기자 상자에서 소형 카메라가 튀어나와 그녀의 얼굴을 스캐냈다. 은호는 그 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윤슬은 그 안에서 편지를 내어 열고 내용을 다시 한 번 쪽 훑었다.

“봐, 여기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 그리고 왜 나한테만 편지를 보내? 너한테도 보내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을텐데... 넌 뭐 받은 거 없어? 나한테 나침반을 줬잖아. 너한테도 뭔가를 줬을 법한데, 그렇지 않아?”

“난 너를 따라가라는 말만 들었어.”

“어...? 정말? 나를 따라가라는 말을 오빠가 했던 말이야? 음... 알겠어. 근데 딱히 다른 방도는 없는 것 같아. 그냥 가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알았지만 가슴이 움직이라는 말을 건네는 듯했다. 머리와 가슴이 여느 때와 같이 다른 말을 전하고 있었다. 윤슬은 체념한 표정을 짓고는 교문에서 물러났다. 그들은 걸었다. 나침반만 계속해서 따라갔다. 그러다 윤슬은 무엇인가 생각난 듯이 가방의 앞주머니에서 일출 시간과 일몰 시간이 적힌 쪽지를 꺼내 보았다. 일출은 6시 13분이라고 급하게 적은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윤슬은 시간을 확인했다. 5시 27분이었다. 주변에는 여전히 나무들밖에 없었다.

“음... 윤은호, 일출이 6시 13분이고, 지금 5시 30분이거든? 그런데 일출 후에는 도로에 차들이 많이 돌아다닐 것 아냐.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주변에 건물 없나? 휴대폰도, 아무 전자기기도 없으니... 어찌지? 아는 데 있어?”

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여기는 학교에서 내 옛날 동네로 가는 길이니까, 아마 호텔이 하나 있을걸, 좀 오래된.”

“호텔에 가면 기록이 남으니까 위험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지나다니는 정부 차에 붙잡히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럼 너가 앞장서.”

은호가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윤슬은 그 뒤로 말없이 따라 걸었다. 남쪽이란 방향을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넓던 대로는 점점 좁아지고, 주변에 풀들이 자라나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나무들이 숲으로 변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윤슬은 감탄했다. 한 번도 숲을 직접 본 적이 없었다. 항상 태블릿이나 교과서에서만 그림으로 보아 왔을 뿐, 실제로 숲을 느끼고



숲의 공기를 마셔 본 경험은 없었다. 어떨까 가끔 궁금해 왔는데, 도심에 숲이 있다는 것은 생소하고도 신기했다.

“우와-여기 웬 숲이 있어? 숲… 맞지?”

윤슬은 감탄하며 물었고, 은호가 대답했다.

“응.”

윤슬은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마저 잊어버리고 숲을 둘러보았다.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아닌 다른 종류들의 나무들도 많이 보였다. 책에서 본 나무들과 하나하나 대조해보며 기억을 떠올려 보니, 겨울에도 푸른 소나무들이 많았다. 겨울이라서 그런지 열매를 맺거나 꽃이 달린 나무나 식물은 보이지 않았다. 마냥 신기해하던 윤슬이 앞을 보자, 길의 끝에 5층 정도의 석조 건물이 보였다. 단조로운 마을에 있던 벽돌 집과는 매우 대조되었다. 녀굴이 건물의 거의 모든 부분을 덮고 있었으며, 주변에 잡초도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관리를 하지 않은 지 10년은 족히 되어 보였는데, ‘호텔’이라는 간판만이 떨어질 듯 말듯 달려 바람을 따라 움직였다. 윤슬은 생각난 듯이 시간을 보았고, 6시 5분이었다. 딱 맞게 도착한 셈이었다. 윤슬은 경치를 보느라 은호와 떨어진 거리를 따라잡느라 뛰어 은호 곁에 다다랐다.

“여긴 어떻게 안 거야? 나도 몰랐는데”

은호는 뒤돌아 보더니 말했다.

“그냥. 원래 알던 데였어”

윤슬은 미소를 짓고는 뛰어갔다. 건물 입구의 유리문에는 ‘열림’이라는 홀로그램에 나쁜 화질로 지직거리며 걸려 있었다. 윤슬은 잠시 은호를 기다리다 은호도 도착하자 문을 열었다. 안은 매우 캄캄해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며, 전등이 달려 있던 자리에는 꺼진 손전등들이 대신 걸려 있었다. 윤슬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여기 사람 없어?”

은호가 대답했다.

“응. 빈 건물인데.”

윤슬은 놀랐다. 이 시대에 빈 건물이 있다니. 모든 건물은 정부에서 제어하고 새로 짓거나 허무는 건물은 정부에 기록되었다. 그러는 정부에서 이렇게 오래된 건물을 그냥 놔둘 리가 없었다. 폐기처분하여 부수거나, 새로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관리가 되지 않은 10년 된 건물을 이렇게 오랫동안 놔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상하네, 정부가 못 찾은 건가? 그래도 피할 곳이 있어서 다행이다.”

윤슬은 말하고는 희미하게 보이는 손전등으로 다가가 스위치를 손으로 찾은 다음, 켜다. 호텔 로비로 추정되는 1층은 난장판이었다. 소파는 두 동강이 나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었으며, 테이블 중 성한 것은 세 개도 되지 않았다. 의자들은 테이블 옆에 쓰러져 있거나 부러져 있어 앉을 수가 없었다. 바(Bar)로 보이는 곳은 술병들이 깨져 있어 다가갈 수도 없어 보였다. 저만치 구석에는 구식인 엘리베이터가 자리잡고 있었는데, 작동이 될지는 의문이었다. 다행히 엘리베이터 옆에 계단이 있었다. 윤슬은 그곳을 한바퀴 둘러보았다.

“와… 정말 관리가 아예 안 된 거구나?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신기하다. 난 이런 데 처음 봐. 여기서 딱히 뭘 할 수가 없어 보이는데, 올라가 볼래?”

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갔다. 위층 엘리베이터 옆에는 거의 부스러기로 없어질 듯한 종이로 층간 안내가 있었다. 1층은 로비, 2, 3, 4층은 객실,

5층의 안내는 찢어져 보이지 않았다. 윤슬은 그것을 보고는 은호에게 알려 주었다. 엘리베이터 오른쪽에는 창문이 있었는데, 깨진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윤슬이 말했다.

“음… 여기 있다가는 창문으로 다 보일 것이 분명하니까, 객실로 들어가 보자. 하나쯤은 열려 있겠지, 뭐. 그리고 어차피 낮동안은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한숨 자도 괜찮을 듯한데, 어때?”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찢어진 카펫이 깔린 호텔 복도를 따라 움직였다. 예상치 못하게 호텔 방들은 거의 모두 열려 있었다. 그러나 문제점은 설 곳이 못 된다는 점이었다. 매트리스가 전혀 원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먼지는 기본으로 소복이 쌓여 있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바닥이나 매트리스나 모두 유리병 조각이나 창문의 유리로 뒤덮여 있어 치울 엄두도 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계속해서 방문 하나하나를 열어 보는데, 4층의 복도 끝에 있던 방문을 열자, 꽤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 침대는 한 개였고 매트리스와 바닥은 먼지만 쌓였을 뿐 유리조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전반적인 호텔의 방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에, 동시에 동의하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윤슬은 먼저 매트리스의 먼지를 치우기 시작했다. 대충 치운 뒤, 배낭에서 집에서 가져온 초록색 침낭을 꺼내 침대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은호를 돌아보았다.

“소파는 어때?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소파에서 잘까?”

“아니. 괜찮은 것 같은데.”

은호는 대답하고는 자신의 가방에서 검은색 침낭을 꺼내 소파에 놓았다.

“음… 그럼 지금 7시쯤 되었으니까 몇시에 알람을 맞추을까?”

윤슬이 묻자 은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

“11시쯤. 아침도 먹어야 하니까.”

윤슬은 고개를 끄덕이곤 시계에 알람을 11시로 맞추었다.

“그럼 잘 자”

“응. 너도.”

\*

윤슬이 눈을 떴을 땐 해가 환하게 내리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오전 11시라고는 말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 옆을 보니 은호가 곤히 자고 있었다. 얼른 아날로그 시계를 보니 오후 1시였다. 어째서 알람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알람을 보니 오후 11시로 설정되어 있었다. 윤슬은 한숨을 내쉬고 일몰 시간을 확인했다. 7시 40분이 일몰 시간이었다. 일몰까지의 긴 시간동안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윤슬은 침대에서 일어나 가방을 열었다. 싸 왔던 대로 빵과 물이 들어 있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지 꽤 됐다는 생각에 배가 고파졌다. 빵 한 개의 비닐을 뜯고, 먹으려는 순간 은호가 깨어났다. 비닐을 뜯는 소리에 깨어났다고 윤슬은 생각했다.

“응, 일어났어? 나도 지금 일어났는데. 빵 먹어.”

“응.”

은호가 윤슬의 곁으로 걸어왔다. 윤슬은 그에게 빵 하나를 내밀었다. 은호는 받아 들고 빵 봉지를 뜯었다. 둘은 한동안 빵만 먹고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촉박감이 찾아왔다. 뒤에서 정부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쫓아올 텐데, 자신들은 겨우 밤에만 움직일 수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윤슬은 입을 뗐다.

“근데 우리 좀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지 않아? 밤밖에 움직일 수 없으면 따라잡힐 것 같은데… 안그래? 그 정부 사람들은 낮이나 밤이나 대놓고 돌아다녀도 사람들이 의심조차도 안 할걸”

“그럼 낮에도 움직여.”

윤슬은 이 단순하고도 어려운 해결책에 대해 잠시 고민했다. 낮에 움직인다면 발각될 확률은 훨씬 높으나 따라잡히는 거리는 줄어든 것이다. 어느 것이 더 현명할지는 확신이 되지않았다.

“음…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긴 할 텐데… 어떡하지? 아, 일몰은 7시 40분이더라고. 꽤 일찍이어서 그때 출발할까? 아니면… 더 일찍 출발할까?”

은호도 잠시 고민하는 듯했다. 잠시 뒤 은호가 앉아있던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것만 먹고 가자.”

윤슬은 놀라 눈을 휘둥그레 떴다.

“정말? 그럼 한낮인데 괜찮겠어?”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곤 말했다.

“응. 곧 따라잡힐 것 같아. 있을만한 곳은 이런 호텔밖에 없으니 금방 잡혀. 얼른 먹고 가야 돼.”

윤슬은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배 아래쪽부터 심장까지 불안한 기운이 짙 차 있는 느낌이었다. 씹고 있던 빵을 겨우겨우 삼키고는 일어났다. 빵 봉지는 소파 위에 놔두었다. 윤슬과 은호는 가방을 황급히 싸기 시작했다. 침낭은 곱게 접어 바람을 뺀 후 배낭 안쪽에 넣었다. 최종적으로 남기고 가는 것은 없는지 한 번 더 방을 확인한 후, 그들은 방을 나왔다. 4층 맨 끝 복도에서 나와 몇 번씩이나 뒤를 돌아보며 걸었다. 윤슬은 심장이 점점 더 세게 뛰는 것을 느꼈다. 너무 빠르고 시끄럽게 뛰어 은호에게까지 들릴 것만 같았다. 그러나 은호는 아무 표정 없이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쳐 가고 있을 뿐이었다. 윤슬은 순간 은호가 불안감도 없는지 궁금해졌다. 이렇다할 기본적인 욕구도 없는데 불안감이 없을 확률도 높았다. 윤슬은 얼른 그 생각을 떨쳐내며 고장난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이 있는 쪽으로 은호를 쫓아가며 거의 뛰다시피했다. 그런데 모퉁이를 도는 앞, 은호가 멈춰서 있었다. 윤슬도 얼른 멈춰서고 은호의 뒤에 섰다.

“왜-”

“싫.”

윤슬은 겁에 질려 입을 앙다물었다. 은호의 옆에 서 모퉁이 뒤에 바짝 붙어 엘리베이터와 계단 앞을 보았더니, 웬 건장한 남자 몇 명이 무장한 채 총을 들고 무전을 치고 있었다.

“-색 중입니다. 4층 올라왔습니다. 예-예-”

윤슬은 너무 놀라 눈을 둥그렇게 뜨고는 은호를 바라보았다. 은호 불안한 표정은 아니었지만 적잖이 당황한 표정이었다. 윤슬은 은호의 옷 소매를 땀으로 흥건한 손으로 움켜잡고 잡아당겼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이대로 잡힐 상황이었다. 윤슬은 복도 끝을 가리키며 뛰자는 표시로 팔을 휘둘렀다. 은호는 알아들은 듯 뛰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카펫 덕분에 큰 소리가 나지 않았으며 군인들은 그렇게 긴장한 눈치가 아니며 천천히 수색할 예정인 듯했다. 윤슬이 마지막으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한 군인의 목소리였다.

“어-아냐! 야 이런 게 어딴노 진짜 이딴 일을 우리한테 시켜뵈고 난리고! 마 쉬었다 가재이 4층까지 기 올라오는것도 힘들어 죽겠다야”

곧이어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상금이 후하다는데 안 찾을 거란 말이야?”

다시 처음의 목소리.

“아 마 글킨 하다 우야꼬 그냥 후딱 보고 가자! 임마들 멀리 못갔을기 뻔-하다 아이가~! 아들 둘인데 뭐 총이라도 쏘겠나 하하하! 마 쏘면 나도 썩뽀다이가!”

윤슬은 입을 틀어막고 달리기 시작했다. 바닥의 벗겨지기 시작한 카펫이 너무나도 고마웠다. 저 끝 방 문 앞에서 은호가 손으로 손짓했다. 윤슬은 체육 시간에도 뛰지 않았던 속도로 더욱 빠르게 질주했다. 방문이 코앞에 보였다. 윤슬은 문틈을 손으로 잡고 들어가 최대한 소리가 안 나도록 손마디가 하얘지도록 문손잡이를 잡고 문을 살짝 닫았다. 잠그기도 했지만, 자신의 힘으로도 부술 수 있을 것 같은 문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았다. 그들은 4층 창문 옆으로 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4층은 꽤 높은 위치였다. 그러나 저 사람들에게 총을 맞아 바로 죽는 것보다는 4층에서 뛰어내려 살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슬은 급박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다리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에 좌절하고 말았다. 윤슬은 절망, 두려움, 긴장이 뒤섞인 눈빛으로 은호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돌아온 눈빛은 자신의 눈빛과 같았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 지는 듯했다. 웃음소리와 등에 진 총이 절그럭거리는 소리도 함께.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번도 누군가가 총에 쏘이는 광경을 보기는커녕 진짜 총을 실제로 보는 것은 생전 처음이었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다칠 것은 뻔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윤슬은 창문 밑을 내다보았다. 녹슬어 부서질 것 같은 난간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윤슬은 은호를 흘끗 보며 이리로 오라는 손짓을 해보았다. 은호는 헛갈린 눈빛이었지만 순순히 창문 쪽으로 걸어왔다. 윤슬은 천천히 난간 하나를 왼쪽 손으로, 다른 난간을 오른쪽 손으로 잡고는 몸을 창문 바깥쪽으로 넘겼다. 발을 디딜 곳을 찾기는,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손과 발이 후들거렸다. 다리가 녹슨 난간인 양 약한 바람에도 미끄러질 것 같았다. 손에는 땀이 흥건했고, 페인트칠이 벗겨진 건물 외곽의 촉감이 땀과 섞여 불쾌하게 느껴졌다. 윤슬과 은호는 한 손, 한 손을 옮겨 가며 내려갔다. 다행히도 1층에 도착할 때까지 총을 든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난간들은 간신히 버텨 주었다.

\*

윤슬과 은호는 땅의 잔디에 발을 디디자마자 숲의 깊숙한 곳으로 숨이 벅차도록 달려갔다. 달리는 동안 둘 중 아무도 말을 꺼내지도, 꺼내려 하지도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말소리, 도시의 불빛, 햇빛조차 잘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달렸을 무렵, 둘은 멈췄다. 한동안은 둘 다 숨이 차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뒤 숨을 고른 윤슬이 말을 꺼냈다.

“저 사람들, 우리 잡으러 온 거지? 그렇지?”

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윤슬은 풀밭에 주저앉아 뻘뻘한 나뭇가지들 사이로 희미하게 비쳐 들어오는 햇빛을 가만히 바라보다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사람들, 총 들고있는 거 봤지? 내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억양이 섞여 있어서 대충 무슨 말인지만 듣고 정확히는 모르겠더라고….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둘 다 총을 들고 있었어. 한 사람이 막 힘들다고 그러고 다른 한 사람이… 아! 상금이 후하다고 그랬어. 그게 무슨 말이지? 우리를 다시 데려오면 상금..을 준다고…? 말이 안 돼. 어떻게 사람을 데려오는데 돈을 줄 수가 있지? 그게 그 사람들의 전문적인 일인가? 이게 끝이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첫 번째 사람이 멀리 못 갔을 거라고, 썩어버리면 된다고 말했다니까! 마을 밖으로 한 번 나간 게 총까지 쏘 일인가? 아니, 아니, 우리 잡히면 죽는 거야?”

윤슬의 눈에서 두려움이 흘러내렸다. 은호는 그런 윤슬을 가만히 쳐다보다 말했다.

“나침반, 쥐 봐.”

윤슬은 눈을 비비고는 목에 걸었던 나침반을 풀어 은호에게 건넸다. 은호는 나침반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도록 살짝 돌렸다. 은호가 도망쳐 왔던 호텔의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쪽이 북쪽.”

윤슬이 간신히 대답했다.

“아, 그럼 우린 우리가 뛰어가던 쪽으로 계속 가면 되겠네. 숲이라서 다행이야…”

은호가 대답했다.

“응.”

윤슬이 바지를 털고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가는 게 좋겠다. 언제 우리를 따라올지 몰라. 최대한 멀리 가야 해. 남쪽으로 가야 한다고 했잖아…. 거기 뭐가 있을지는 나도, 너도 모르지만 일단 가보면 알지 않겠어? 그리고 이제 돌아가지도 못해. 단순히 도망쳤다고 총까지 들고 쫓아오는 걸 보면 뭔가 있는 게 분명해. 안그래?”

은호는 잠시 고민하다 일어난 다음 윤슬을 뺨히 쳐다보다 말했다.

“응.”

윤슬과 은호는 잠시 말없이 걸었다. 둘 모두 앞길에 무엇이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주변의 뻘뻘한 나무들이 햇빛을 위해 사이사이로 길을 터 주고 있었다. 잎들이 바람에 바스락거리고, 윤슬에게는 처음인 풀내음이 코를 가볍게 찔렸다. 푸르스름한 이끼가 돌 위에 편안히 앉아 있는 평온한 숲속이 윤슬의 마음과 너무 반대되어서 혼란스러울 정도였다.

윤슬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1시간 정도의 미래에 자신이 뭘 하게 될지 너무나도 뻔한 삶이었다. 밥을 먹은 뒤엔 방으로 가서 숙제를 하고 잘 준비를 한 다음 아침엔 밥을 먹고 학교에 간 다음, 학교에서 오면 또 밥을 먹고 방으로 가서 숙제를 하고…. 은호가 오기 전까지는 그랬다. 게다가 갑자기 채빈이라는 새로운 인물까지, 보지 못했던 사람이 삶에 2명씩이나 등장하는 것은 처음 일어나는 일이었다. 이제는 며칠 전에 자신의 삶에 끼어든 사람의 편지 한 장을 받고 떠나다니…. 처음에는 자신답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생각할수록 자신다운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항상 모험과 변화를 갈망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입가에 미소가 떠올고 있었다.

\*

한참을 그렇게 걷다 보니 나뭇가지 사이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힘겨워하기 시작했다. 대신, 밤향기의 색들이 하늘을 조금씩 조금씩 메워 나갔다. 나침반과 하늘을 번갈아 바라보던 은호가 입을 열었다.

“해는 서쪽으로 지네.”

하늘만 바라보던 윤슬이 은호를 돌아보며 되물었다.

“어? 뭐라고?”

은호는 아무 말 없이 나침반에서 바늘이 서쪽을 가리키는 곳을 팔을 뻗어 가리켰다. 윤슬은 그곳을 보았고 빨강, 분홍,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는 하늘이 저물어 가는 태양을 감싸고 있었다. 윤슬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네. 학교에서 배우기만 했지 이렇게 보는건 처음이야...! 좋다, 이렇게 보는 거. 맨날 똑같은 풍경에서만 살다 숲도 보고, 노을도 보고...”

그 순간, 윤슬은 희미하게나마 은호가 미소지었다고 생각했다. 착각이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윤슬은 은호가 아무 말이 없자 목을 가다듬고 나무들이 별로 뻗뻗하지 않은 곳을 찾아 평평한 곳에 침낭을 꺼냈다. 꽤 덥던 윤슬과 은호가 살던 마을과 달리 숲속은 선선했다. 잠시 고요함을 즐기던 윤슬이 다시 말을 꺼냈다.

“지금이 7시 35분이거든? 그럼 5분 뒤에는 깜깜해질 거라는 거야. 어떡할까, 밤에 움직일까 아니면 잘까?”

은호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다.

“움직이자. 피곤해?”

윤슬이 대답했다.

“음... 모르겠어 지금은. 아직 들떠서 그런가? 하하... 그냥 움직이자. 숲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지금 여름이라서 일출 시간이 빠르잖아. 많이 움직여 놓는게 좋겠지 아마? 자지는 말고, 조금만 쉬었다 가자.”

무심코 대답했다가 윤슬은 은호가 무언갈 자신에게 처음 물어봐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주동안 매일 만났지만 은호가 먼저 말을 건 것은 처음이었다. 게다가 피곤하냐고 물어봐주는 것은 더더욱 마음에 와닿았다. 그 마을을 떠나서 변화가 더욱 빨라진 걸까? 어쨌거나 뿌듯하고 행복한 기분이 드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쫓기는 듯이 달려가는 길에서 소소한 즐거움이 금인듯 사치처럼 느껴졌다. 윤슬은 퍼던 침낭을 끝까지 펴고 그 위에 앉았다. 집 구석에 박혀 있던 천이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신기하게만 느껴졌다. 앞을 보니 일미터쯤 떨어진 곳에 은호가 침낭을 펴고 앉아 있었다. 윤슬은 가방에서 물을 꺼내 조금 마신 뒤, 다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점점 색이 진해지는 하늘이 미술 시간에 섞던 팔레트 같았다. 모든 색을 섞으면 되는 까만색처럼 하늘은 붉은빛과 보랏빛이 한가득 섞여 까맣게 변해가고 있었다. 잠시 있으니 밤길 도로의 가로등처럼 하늘에 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늘의 변화를 천천히 지켜보고 있자니 마음속에 편안함이 스며들었다.

깜빡하고 시간을 보고 있지 않은 것이 생각나 시계를 보니 30분 정도가 지나 있었다. 하늘만 30분 동안 바라본 것을 자각하자 뒷목이 뻣뻣하게 아파왔다. 누워서 봤으면 더 편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윤슬은 목을 가볍게 스트레칭 한 후 은호를 보았다. 은호 역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윤슬의 시선을 느꼈는지, 은호도 윤슬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윤슬은 채빈의 편지가 떠올랐다. 은호에게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곧 좀비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튀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지금의 은호를 보니 이미 튀고도 남을 것 같았다.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에 임하는 자세가 달랐다. 이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즐기며 살아가는 것 같았다. 비록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새로운 상황이 닥친 만큼 그대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듯했다.

“왜?” 은호가 윤슬의 시선이 계속 자신에게 머물러 있자 물었다.

“아, 그냥, 별 거 아니야.” 윤슬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생각하는 동안 계속 은호를 바라봤으니 부담스러웠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윤슬은 또다시 생각에 잠겼다. ‘이대로 남쪽으로 간다면 무엇이 있을까’가 그녀의 최대 관심사였다. 세세한 정보를 편지에서 전달을 못 받은 터라 머릿속은 궁금증으로 꽉 차다못해 터질 것 같았다. 결국 윤슬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말했다.

“남쪽에는 뭐가 있을까? 계속 가다 보면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않아? 채빈오빠가 남쪽으로 가라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냐. 안그래?”

은호는 윤슬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일어서서 말했다.

“출발하자.”

윤슬은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다.

“그래.”

\*

윤슬과 은호는 이틀을 긴 잠 없이 더 걸었다. 숲은 계속되었고, 아무리 선선하다 해도 여름의 더운 기운이 둘을 점점 지치게 하고 있었다. 이틀째 낮, 윤슬은 결국 잠이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은호 역시 지칠대로 지쳤기에 동의하고, 숲의 잔디 위에 침낭을 펴 잠을 청했다.

\*

윤슬이 눈을 뜨자 별이 하늘에 총총히 박혀있는 밤이었다. 시간을 보니 밤 11시경이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고 은호를 깨웠다. 은호는 일어나기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윤슬이 반 강제로 깨우자 일어나 군소리 없이 침낭을 정리했다. 은호가 침낭을 정리할 동안 윤슬은 가방을 정리하여 나무 옆에 세워둔 다음,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침반을 꺼내 남쪽을 가리키는 바늘이 향하는 곳을 바라보자 조그마한 불빛들이 모여 빛나는 것이 보였다. 윤슬은 은호를 잡아끌어 불빛을 보여주었다. 은호는 불빛을 보고는 나침반을 들여다 보았다. 윤슬이 속삭이듯 말했다.

“저쪽이 남쪽이야..! 불빛 보이지? 어쩌면 채빈오빠가 말한 곳이 저곳인지도 몰라. 어차피 남쪽이라면 저쪽으로 가야 하니까, 가보자. 우리를 반겨줄지도 모르잖아?”

은호는 말없이 출발했다. 발밑의 풀이 이슬을 머금고 가볍게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귀에 울렸다. 밤이라 그런지 자그마한 소리들이 크게 느껴졌다. 가끔 나뭇가지를 밟으면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에 긴장감이 목을 조여오기도 했다. 윤슬은 저 불빛이 있는 곳에 자신을 반겨줄 사람들이 있을지, 아니면 그 반대로 며칠 전의 총을 든 사람들처럼 상금을 받기 위해 자신들을 쫓 사람들이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어제와 그저께처럼 아무 생각 없이 숲속에서 하늘을 바라보았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수풀을 점점 헤치고 나아갈수록 불빛이 또렷해졌다. 몇 분을 더 걸자, 윤슬과 은호의 시야 앞으로는 더이상 나무와 풀이 서 있지 않았다. 선 하나를 경계로 하듯 어느 순간부터 나무들은 없어지고 폭 넓은 아스팔트 도로가 턱하니 버티고 있었다. 그들은 숲의 경계에 우뚝 서 있었다.

\*

도시의 형태가 드러났다. 한마디로, 달랐다. 행복마을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 윤슬은 불빛들이 하늘 위까지 치솟아 있음을 발견했다. 직사각형의 높은 건물들이 뽁뽁이 서 있었고, 낮은 벽돌 집은 빌딩들 사이에서 찾아보기도 힘들었다. 밤 12시 경인데도 도시는 환했다. 층마다 자그마한

창문들에서 별빛같은 전등 불빛이 새어나와 거리를 비추었다. 게다가 거리에는 가로등이 몇미터에 하나씩 놓여져 있어 거리는 더욱 환하게 빛났다. 도시의 입구에는 게이트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화려한 무늬의 울타리가 높게 자라 있었다. 문으로 보이는 곳에는 온통 까맣게 입은 듯한 건장한 남자 두 명이 서 있었다.

윤슬과 은호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여기가 만약 채빈이 말한 그곳이라면, 들어가야 했지만 앞의 저 두 남자가 자신들을 어떻게 대할지는 모르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채빈이 말한 곳을 그저 지나치는 것이 될 테니, 그것도 좋은 방안은 아니었다. 숲의 경계에서 멀찌감치 도시를 바라보자니 아름답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저기 들어가는 게 맞는 걸까?” 윤슬이 그 생각을 옆으로 치우며 말했다.

“.....” 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슬은 침묵을 동의로 치부하여 이어 말했다.

“저 도시가 채빈오빠가 말한 곳이라면, 들어가야 해. 그런데 중간에 큰 도시는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말도 편지에 없었잖아. 그렇다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그냥 들어간다고 말하면 들여보내 줄까? 아니면 총을 들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를 잡으려고 하면 어떡하지...?”

은호는 가만히 생각에 잠긴 듯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윤슬은 답답하기도 하지만 겁이 났다. 어느 결정이 옳은지 알 수가 없었다. 누군가 그녀를 위해 결정을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이게 정말 그녀가 원하던 모험이었는지, 사실 자신이 원하던 모험은 그저 안전함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재미를 느낄 정도까지만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그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갈 방법은 없었다. 그녀는 은호에게 ‘감정’을 보여준 날 지루한 안전과 재미있는 위험 중에서 위험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니, 태어날 때 그 수술을 받지 못한 것이 그녀의 인생 주사위에서 ‘위험’을 나오게 한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나 ‘수술을 받았더라면’이라는 소원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자신을 다독였다. 그 순간, 멀리서 불빛이 쏘아져 나와 윤슬과 은호가 있는 부근을 환히 비추었다.

\*

갑작스러운 불빛에 윤슬과 은호는 팔을 들어 눈에서 불빛을 가렸다. 윤슬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들킨 것이었다. 숲의 끝자락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서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선택권이라는 것이 없었다. 멀리서 확성기를 통해 울리는 걸걸한 목소리가 고막을 세차게 찢어냈다.

〈다른 구역에서 이전해 온다는 공지는 전해듣지 못했는데, 가까이 오도록〉

윤슬과 은호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서로의 눈빛이 같음을 눈치챈 지는 오래였다.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다만 윤슬의 눈에 그런 감정이 더 실려있었을 뿐. 윤슬이 먼저 도로에 한 발짝을 내딛었다. 도망가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 윤슬이 최대한 관찮을 거라는 의미를 눈에 담은 후 뒤로 은호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윤슬의 다리는 버려진 호텔의 난간을 내려갈 때처럼 후들거렸다. 다음 발짝에서 발을 헛디뎠다 넘어질 것만 같았다. 반면에 은호는 여전히 헛갈리면서도 무표정한 얼굴로 윤슬을 쳐다보고는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었다. 둘은 그렇게 천천히 큰 폭의 도로를 비오는 날의 달팽이처럼 건넜다. 건너는 동안 계속해서 스포트라이트는 그들을 비추며 따라왔다. 윤슬이 떨리는 입술을 침으로 축이고 은호에게 작게 말했다.



“우리 이름을 말하면 안돼. 우리...우릴 쫓고 있잖아... 절대...우리가 우리라는 걸-말하면 안, 안돼, 알았지?”

은호는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은호의 몸도 떨리고 있다는 것을, 윤슬은 알 수 있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런 감정은 느낄 수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몇 초 뒤에 누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삶이라니. 헛웃음까지 나왔다. 여름 밤의 더운 공기에도 불구하고 온 몸이 떨려왔다. 무엇에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은호의 손을 잡았다. 손마디마디가 하얘지게 잡았다. 손이 너무 떨려서, 그 손을 멈추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다. 두려움이었다. 두려움이 온 몸을 끈적하게 뒤덮은 느낌이었다. 눈이 부셔서 앞을 볼 수 없었고, 뒤를 돌아보면 금방이라도 뛰어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일까 봐 뒤도 보지 못했다. 그저 매끈한 아스팔트 도로와 한 걸음 한 걸음을 만들어내는 떨리는 발끝만을 쳐다보며 걸었다. 옆을 보니 은호는 무표정으로 걷고 있었다. 자신처럼 떨리지 않는 것 같았다. 부러움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윤슬의 뇌 속 두려움을 조금 밀어내고 잠시 들어앉았다 떠났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는지도 모르는 영원같은 시간들이 지나고 보니 한 순간이었다. 어느새 그들은 그 화려한 게이트 앞에 떨어져 있었다.

\*

건장한 남자, 아니 로봇들이 윤슬과 은호를 향해 천천히 미끄러지듯 걸어왔다. 키는 2미터를 훌쩍 넘겼고, 학교의 선생 로봇과는 사뭇 달랐다. 온 몸이 윤기나는 검은색이었으며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부근에 하얀 눈만을 빚내는 전등이 박혀 있었다. 그 하얀 눈들은 윤슬과 은호를 위 아래로 훑었다. 그 중 한 개가 ‘말’했다. 확성기에서 뿜어져 나온 그 걸걸한 목소리였다.

〈이름과 지역을 밝혀라.〉

윤슬과 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겨우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바닥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올 것만 같이 애타게 바라보았다. 1초, 1초가 영원처럼 지나갔다. 윤슬은 그 로봇이 자신의 얼굴을 스캔해 누군지 알아내면 어찌나 싶어 필사적으로 머리카락을 사용해 얼굴을 가린답시고 가렸다. 그러나 곧 로봇이 얼굴을 들라 하고, 얼굴을 스캔한 다음 그 충을 든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 뻔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손은 계속해서 떨려왔다. 은호의 맞잡은 손도 여름의 밤공기에 비해 너무 차가웠다. 더우면서도 한기가 들어 식은땀이 계속해서 흘러내렸다.로봇은 기다리기 지쳤다는 듯이 다시 한번 말했다.

〈이름과 지역을 밝-〉

“잠시.” 누군가가 게이트를 통해 나왔다.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것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윤슬은 그 목소리를 알아보고 바닥을 향해 있던 시선을 서서히 앞으로 향했다. 상황을 중단시킨 사람의 얼굴을 단박에 알아본 윤슬의 입이 희망과 두려움으로 떡 벌어졌다.

“오빠..!” 윤슬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들을 구출해 주러 온 채빈이었다.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남쪽으로 가라 했던 것은 그곳에 채빈이 살던, 모든 사람이 욕구와 감정을 가지고 있다던 그 마을이었기 때문이었던 걸까? 그것을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채빈의 얼굴을 보자 안심이 되었다.

“이름과 지역을 밝히세요.” 그러나 기대는 이 한 마디에 바스러지는 나뭇잎처럼 조각조각이 되어 나뉘고그리고 말았다.

“어..?” 윤슬은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묻고는 도움을 바라는 눈빛으로 채빈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채빈의 눈빛은 한없이 차갑기만 했다. 욕구가 없는 사람의 무표정이 아니라, 모든 감정을 가지고 있기에 지을 수 있는 ‘표정이 없는’ 얼굴이었다. 윤슬은 은호를 바라보았다. 은호는 무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혼란과,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눈치가 스며들어 있었다. 윤슬은 이 사람이 자신이 알던, 그 채워진 웃음을 잘 짓던 채빈이 맞는지 의심까지도 들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모든게 완벽히 빈 곳이 없었고, 짧은 머리와 조금 모진듯한 눈은 며칠 전과 같았다. 어느새 로봇들은 채빈의 뒤로 물러나 있었다. 채빈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름과 지역을-”

“김별, 17살이고요, 앤 제 남동생 김별하, 16살입니다. 하원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전부터 생각해 놓은 각본이었다. 누군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것이라는 것은 물보듯 뻔했다. 그때 가짜 이름과 가짜 나이를 적당히 대는 것이 가장 안전할 듯했다. 하지만 상대는 채빈이었다. 이미 자신과 은호가 어디 사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다시 묻고 있었다. 기억이 지워진 것일까? 알 방법이 없었다. 기억이 지워졌다면 자신들이 거짓말을 해도 모를 것이니, 일단 자신이 생각해 놓은 이름과 가짜 나이를 댔다. 그리고 지역이라니. 사는 마을을 물어보는 것일까? 그러나 자신이 사는 마을은 이름이 없었다. 그 어느 마을도 이름이 없었다. 이때까지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열 마을이 합쳐서 다니는 하원학교를 말했다. 채빈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로봇들에게 말했다.

“들어가 주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버지도 제가 하는 걸 원하실 거예요.”

로봇들은 순순히 고개를 숙이더니 뒤로 물러나 게이트 한쪽에 있는 낮은 감시탑으로 올 때처럼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게이트 앞에는 채빈, 윤슬, 은호만 남아 있었다. 윤슬은 로봇들 때문에 채빈이 차가운 척을 했다면 이제는 평소처럼 대해줄 것이라고 기대한 순간, 채빈의 편지가 다시금 떠올랐다.

[다시 만나도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네.]

윤슬은 눈이 크게 뜨였다. 이것이, 채빈이 말한 좋지 못한 모습인 걸까. 미안하다고 한 이유도, 자신을 찾지 말라고도 한 이유가 기억 수술을 받아서일까? 아니면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태도가 바뀌어야 했던 이유가 있는 걸까. 그것도 아니라면 애초에 편지를 보낸 것이 자신들을 이쪽으로 불러오기 위해서, 며칠 전 마을에서 보였던 그 모습들은 다 이 순간을 위해 계획된 그런 행동들이었다면 채빈이 죽도록 미웠다.

[너를 만나던 그 순간순간이 다 가짜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 부분이 떠오르자 윤슬은 자신의 입에게 닫혀 있으라는 명령을 제때 내리는 데에 실패했다.

“그런 거였던 거예요? 나를 만났던 그 순간순간이 다 가짜예요? 오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왜 나한테 그 카메라 수술 얘기도 했는데요? 그것도 가짜예요? 눈을 떼어내고 싶다면서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오빠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인데요? 왜 웃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그냥 잡고 싶었던 거잖아요. 나를 잡아서, 수술을 시키려고 그렇게 연기한 거예요? 좋겠네요! 오빠가 바라시는데로 나는, 나는 이제...나는 이제 윤은호처럼 되겠네요! 아무 생각도 없이, 오빠가 말했던 좀비들처럼 살게 되겠네요! 이게 정말 바라는 거였다면 그렇게 연기할 필요 없이 그냥, 그냥-” 윤슬의 목소리가 점점 갈라지더니 울음으로 변해갔다. 채빈은 그런 윤슬의 모습을 아무 표정 변화 없이 쳐다보더니, 은호를 쳐다봤다. 은호는 우는 윤슬의 모습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다. 채빈의 시선은 은호에서 윤슬이 생명줄처럼 잡고 있는 은호의 손으로 옮겨갔다. 시선은 다시 윤슬로 옮겨갔다.

윤슬은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우는 것으로 자신이 욕구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슬픈 적은 처음이었다. 드디어 모든 것이 안정되었다고 생각한 순간에 가장 믿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약점으로 자신을 가두려 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다. 마을에서 한 번밖에 만나지 않은 사람을 믿은 것의 대가였다. 하지만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윤슬은 자신이 편지를 믿고 떠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 생활이 지루해서만이 아니라, 채빈에게는 자신이 평생 꿈꿔온, 필요하다고 느꼈던 모든 것이 있었다. 마음 놓고 환하게 웃고, 사소한 것에 대해 떠들 수 있는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사람이 필요했고, 그게 채빈이었다고 믿었다.

“안으로 들어가죠.” 채빈이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윤슬은 바닥을 보며 울고 있던 얼굴을 천천히 들어 채빈과 은호를 번갈아 가며 보았다. 채빈이 게이트 앞으로 다가가 스캐너에 자신의 얼굴을 스캔하고 열린 게이트 문 속으로 들어갔다. 윤슬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하게 가만히 서있자 은호가 손을 잡아끌며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다.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 처음 보인 것은 터널이었다. 끝이 쉽사리 보이지 않는 터널의 입구에는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고, 그 옆에는 승합차와 같은 색의 양복을 입고 있는 남자 한 명이 서 있었다. 채빈, 윤슬과 은호가 다가가자 그 남자는 승합차의 문을 열어 주었다.

“ㄱ..감사합니다...” 윤슬이 인사하며 남자를 흘끗 보았고,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그 남자는 윤슬의 마을에 살던 주민들처럼 아무 의미 없는 무표정을 짓고 있었다. 감정, 욕구가 없는 사람이었다. 수술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이곳은 윤슬이 살던 마을처럼 모두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인가? 하지만 윤슬이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그녀는 순순히 승합차에 올랐다. 그 뒤로 은호가 올랐고, 채빈은 조수석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메고 있었다. 은호와 윤슬이 모두 착석하자 승합차가 출발해 길고 긴 터널을 지나기 시작했다. 터널의 벽에 박힌 색색깔의 타일들이 천장의 불빛에 비춰져 은은하게 반짝거렸다. 그 도시는 입구의 터널마저 아름다웠다. 운전자가 감정이 없는 사람이니, 윤슬은 그들 셋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디로....가는 거예요?” 윤슬이 잔뜩 겁을 먹은 채 물었다. 채빈은 아무 말이 없었고, 은호 또한 창문 밖의 빛나는 타일들만 바라보았다. 윤슬은 심호흡을 하고 다른 질문을 했다.

“우리가 떠난 뒤로 어떻게 됐는데요?” 이 질문 또한 대답이 없었다. 윤슬은 어차피 잡힌 신세이니 대답이 나오는 질문이 생길 때까지 말하기로 했다. 여기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녀밖에 없을 테니.

“기억을 잃은 거예요 아님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누군지 몰라서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

“우린 이제 어디로 가는데요? 그 편-”

“시끄러워.”

채빈이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다. 윤슬은 편지에 무언가 있음을 깨달았다. 편지에 채빈이 반응하는 이유는 편지를 썼다는 것이 후회되서인지 아니면 편지를 썼다는 것을 누군가 알게 되면 안되서인지 알 수가 없었다. 후자인 편이 윤슬에게는 더 좋은 편이었지만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 후로 윤슬은 승합차에서 내릴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거운 적막만이 차 안을 헤집고 돌아다녔다. 직선인 터널은 단 한 번도 꺾여지지 않고 끝을 뻗었다.

터널의 끝에서 본 도시의 야경은 윤슬과 은호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다. 멀리서 보았을 때 빌딩들이 높다고는 생각했으나, 가까이서 보니 그 위엄이 차원이 달랐다. 두어 개의 건물은 너무 층이 높아서 땅에서는 끝이 보이지가 않을 정도였다. 색색깔의 전등 불빛들이 아름답게 도시를 빛나게 했다. 윤슬과 은호는 낮이 나가 건물들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운전사가 먼저 내린 다음 조수석의 문을 열어 채빈을 내리게 해 주었다. 그 다음으로는 승합차의 왼쪽 문을 옆으로 밀어 은호가 내리도록 하였다. 그 뒤로 윤슬이 그 뒤로 따라 내렸다. 운전사는 벤의 옆에 서 있고, 채빈이 앞장서서 걸었다. 윤슬은 잠시 그 뒤에서 따라가야 할지 고민하다 따라 나섰고, 은호는 윤슬이 걷기 시작하자 따라 걸었다.

한적한 외곽 도로는 사람이 없었지만 걸을수록 드문드문 보이던 사람의 수가 늘기 시작했다. 대부분 행복하게 웃으며 걸어갔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왔다. 윤슬은 놀랐다.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두 완벽하게 채워져 있는 얼굴들을 한 채 더운 밤의 길거리의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웃음은 거울 밖에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도시를 보니, 무언가 떠오르려고 하면서도 도통 떠오르지 않았다. 한참을 걷다 보니 이 도시에서 한참동안 살았던 것만 같았다. 반짝이는 불빛 아래 가식 없이 웃는 사람들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윤슬은 잠시동안 자신이 어디로 가도 상관 없다고 생각했다. 죽기 전에 이런 풍경을 잠시라도 볼 수 있었다는 것에 만족할 수 있을 것도 같았다. 그러나 그 만족감은 오래 가지 못했다. 이 도시의 일부가 되고 싶었다. 자신도 저 사람들처럼 근심거리 없는 표정으로 길거리를 웃으며 다니고 싶었다. 그 상상 속에는 채빈과 은호가 있었다. 셋이 함께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고 돌아갈 따뜻한 집에 돌아가 밤새도록 수다를 떨고, 지금같은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책을 읽고 싶었다. 그 순간, 윤슬은 아찔한 기분이 들었다.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며 윤슬의 몸이 벽돌길 위로 맥없이 쓰러졌다.

\*

“너 여동생 윤슬이야, 한윤슬. 인사해, 채빈아.”

웃는 얼굴의 아주머니가 새하얀 옷을 입은 1살배기 정도의 아기를 품에 고이 안고 구석의 하얀 방문으로부터 걸어 들어왔다. 집 안은 깔끔하고 환했다. 그 중심에는 2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바닥의 폭신한 이불 위에서 걸어다니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아이를 살며시 들어 그 이불 위에 내렸다. 남자아이는 자신보다도 작은 아기가 궁금한지 아장거리며 다가갔다. 여자아이는 곧히 잠들어 있었다.

“애기야?” 남자아이가 물었다.

“응, 애기야. 예쁘지? 채빈이 여동생이야, 여, 동, 생.” 아주머니는 채빈이 따라할 수 있도록 한 마디 한 마디를 천천히, 강조해서 말했다.

“여, 동-생!” 채빈이 그대로 따라했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채빈을 안아 주었다. 채빈은 까르르 웃으며 윤슬을 반기는 듯했다. 아주머니는 일어나 부엌에서 이유식을 챙긴 후 그 사이에라도 혹여 일이 생길까 열른 거실로 바빠 움직였다.

“엄-마!” 잠시 뒤 윤슬이 깨자 엄마를 불렀다. 옆에서 잠들어 있던 아주머니는 그런 윤슬의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그래, 엄마 여기 있어~”

\*

“생일축하합니다, 생일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채빈이, 생일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노래가 집 안에 울려 퍼졌다. 곧 11개의 불꽃들이 채빈의 입김에 연기를 남기며 꺼졌다.

“소원 빌었어?” 윤슬이 생글생글 웃으며 물었다.

“응, 빌었어.” 채빈 역시 한껏 들떠 있었다.

“생일 선물로 뭐 받고싶니?” 채빈의 아버지가 채빈에게 물었다. 채빈은 잠시 고민하다 싶더니, 장난감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아버지는 무슨 장난감인지 구체적으로 묻지 않고는,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다. 채빈, 윤슬,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3단 케이크를 다같이 잘랐다. 그날 저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38층 창문 밖으로 새어 나갔다.

다음 날, 채빈과 윤슬은 함께 학교로 향했다. 검은색 승합차에 무언가 알 수 없이 무표정한 기사의 차에서 내린 후, 학교라고 보기엔 어려운 으리으리한 르네상스 시대의 성 같은 건물에 웃으며 들어섰다. 내부 역시 화려하게 대리석으로 조각되어 있었다. 각 교실마다 아이들이 넘쳐났고, 저마다 모두 세상의 흥악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듯한 얼굴로 뛰놀았다. 채빈과 윤슬 역시 그들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채빈과 윤슬은 서로 헤어져서 각자의 교실로 들어섰다.

채빈의 교실에는 남자 아이들만이 시끄럽게 가벼운 몸싸움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 중 한 무리가 채빈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다.

“야! 한채빈! 애가-”

“아 그랬다니까-! 하하하”

“아 그래-?” 채빈은 가볍게 대화에 끼었다가 자신의 자리를 찾아 앉았다. 지켜왔다. 이 모든 놀음같은 일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아버지가 높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사귀기도 싫은 무리의 아이들이 자신에게 매일같이 아부떨듯 말을 걸었다. 역겨웠다. 자신을 1급 공무원의 아들로 봐주지 않는 사람이 필요했다. 잠시 뒤 선생 로봇이 들어왔고, 아이들은 점점 조용해졌다. 몇십 초 뒤 아무 잡담 소리도 없이 남자아이들이 모두 자리에 앉은 것을 확인한 선생은 모노톤으로 전학생이 있다는 공지사항을 전달해 왔다. 모두가 그렇듯 3반의 남자아이들 역시 전학생이라는 말에 한껏 기대를 하는 눈치였다.

〈들어오세요.〉 선생 로봇이 말하자 기다렸다는 듯 교실의 앞문이 열리고 남자아이 한 명이 들어섰다.

〈이름과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 나는 이 학교에 새로 오게 된 만 11살 윤은호야. 앞으로 잘 지내보자!” 해맑게 웃으며 인사말을 건넨 남자아이는 빈 자리를 찾아 채빈의 옆자리에 앉았다. 비싼 축에 들지도 않는

가방을 책상 옆의 가방 걸이에 걸고는 채빈에게 물었다.

“일교시는 뭐야?”

“수학이야. 난 한채빈. 반가워” 채빈은 너무 딱딱하지도, 너무 바보같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살짝 웃고는 말했다.

“아, 그래? 그렇구나” 은호가 환하게 웃어 보이며 말했다. 곧 수업이 시작했고, 둘은 수업시간에 별 말 없이 공부에만 열중했다. 점심 시간이 다가오자, 은호가 채빈에게 쪽지를 건넸다.

「혹시 점심 먹는 곳이 어딘지 알아?」

채빈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말로 하면 될 것을, 자신의 여동생처럼 쪽지로 건네는 것이 우스웠다. 그래도 채빈은 그 밑에 답글을 적었다.

「같이 가자」

그 쪽지를 보고 은호는 다시금 그 환한 미소를 지었고,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 채빈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 윤은호가 자신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

기온은 쌀쌀하고 바람은 제법 불었지만, 햇빛은 따스하게 내리쬘고 있었다. 은호, 채빈, 그리고 윤슬까지 채빈과 윤슬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우리 저녁에 뭐 할거야? 막 무서운 얘기도 하고, 손전등 하나만 켜놓고 얘기하자! 재밌겠지 않아? 그리고 몰래 밖에 나가서 밤공기도 쐬고 오자, 응?” 윤슬은 들떠서 하룻밤동안 무슨 이야기를 할지 혼자서 떠들어댔고, 채빈과 은호는 양옆에서 그 이야기를 꽤 재미있게 듣고 있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저녁 먹고 밖에서 좀 놀다가, 안에 들어와서 어른들 얘기 몰래 듣는 거 어때 평소엔 엄마 아빠가 항상 비밀 얘기만 하잖아. 저번에 듣다가 혼나긴 했는데, 제대로 듣지도 못했더니까-! 친구랑 같이 있는 거니까 들켜도 크게 혼나지는 않을거야, 그치?” 채빈이 의견을 제시했고, 윤슬과 은호는 격렬하게 동의했다. 채빈과 윤슬은 절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었으며, 은호 역시 비밀이라면 사족을 못 쓰도록 좋아했다. 셋은 온갖 얘기를 다 하며 벽돌로 가지런히 놓인 길을 뛰어갔다.

집으로 오자 어른들이 셋을 반겨 주었다. 그러나 무언가 달랐다. 무언가 어두웠다. 평소라면 셋을 아주 밝게 마주해 주었을 어머니와 아버지 둘다 켜키는 것이 있는 듯 눈을 회피하고 대화를 줄였다. 은호는 평소에도 그런가 싶다 하고 넘어갔지만, 윤슬과 채빈은 걱정이 되면서도 오늘 밤에 아주 비밀스러운 대화가 오갈 것을 예감하고 짜릿함을 느꼈다.

저녁을 먹고 몇 시간이 흐른 후 평소에 자던 시간이 다가오자 셋은 자는 시늉을 하기로 계획했다. 잠시 뒤, 방에 불이 꺼지고 부모님의 방에서 이야기 소리가 슬며시 흘러나오는 것을 들은 윤슬이 채빈과 은호를 흔들어 일으켰다. 채빈이 어두운 방에서 방문을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금씩, 조금씩 열었다. 부엌과 거실은 작은 등이 켜져 있어 사물들의 윤곽이 겨우 보일 정도로 밝혀져 있었다. 채빈이 앞장서려다 말고 속삭였다.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이 앞장서서 가자-!”

셋 모두 동의하여 그 자리에서 가위바위보를 했고, 은호가 진 사람으로 판결이 났다. 채빈과 윤슬이 킁킁거리며 앞장서라는 손짓을 했다. 은호가 뒤돌아 살금살금 대리석 바닥을 걷기 시작하자, 윤슬이 채빈에게 귓속말했다.

“오빠, 우리 은호 오빠 놀래켜주자-! 우리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조금만 닫고 있다가, 은호 오빠가 뒤 돌아봤을때 우리가 없으면 엄청 무서울 것 아니야! 재밌겠지! 조용히 하고 들어가 있자-!”

채빈은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동의했다. 그들이 그 대화를 나누는 순간순간에 은호는 점점 부모님의 침실에 가까워져 가고 있었다. 희미한 이야기 소리가 점점 가까이, 또렷이 들렸다. 방문 앞에 도착한 은호의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긴장이 되면서도 짜릿했다. 어른들의 대화라니. 항상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터였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하-어떡하긴. 지금으로써는- 그냥 수술-B구역-방법이 없-”

작아서 끊기게 들리는 말소리가 은호의 호기심을 더 자극했다. 수술? B구역? 당최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윤슬-쌍하잖아요-조금만 더-기억수술-”

“안돼-원래 B구역에 속하던 아이잖아. 어쩔 수 없다는 걸 왜 이해를 못해! 당장 끌어내서 기억소멸수술을 행해도 되는 판에 무슨 말이야! 채빈이 친동생도 아닌 걸 왜 우리 집에서 채우고 있냐고!”

채빈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져 푹푹히 들려왔다. 은호는 이해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었다. 잘 이해했다면 윤슬이 채빈의 친동생, 즉 채빈 부모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이다. 원래는 B라는 구역에 속해 있던 아이이며, 기억 소멸 수술이라는 것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기억 소멸 수술이라면, 이때까지의 기억을 지우는 수술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었다. 원하는 기간의 기억을 아예 지울수도 있으며, 다른 기억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수술이었다. 윤슬에게 그 수술이 행해진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은호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할 것을 알면서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채빈 아버지의 목소리는 높은 상태로 계속해서 들려왔다.

“B구역의 모든 사람은 욕구 수술을 받아야 했었다고! 근데 한윤슬, 아니 이윤슬 앤 오류였어. 그때 쿠데타-담당 의사-죽-!”

그의 목소리가 다시 낮춰졌다. 그러나 은호는 들어야 할 모든 부분을 들은 것만 같았다. 그들 말고 다른 존재들은 태어날 때 ‘욕구 수술’이라는 것을 받는다고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모든 필요 이상의 욕구를 제어해 인구 조절에 가장 큰 이점을 제공했던 시스템이었다. 그런데 윤슬은 받아야 하는데도 안 받은것인지, 못 받은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받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은호는 자신의 손에 땀이 가득 난 것을 알아차렸다. 옷에 문질러 닦아 보았지만, 식은땀이 온몸에서 흐른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포기한 후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였다.

“그럼 어떡해요-”

“요즘 B구역의 - 통제가 안- 바이러스는 개뿔! 바이러스 진압이 되면 뭐 해! 사람들 통제가 안 된다고, 통제가!”

은호의 입이 찌억 벌어지고 말았다. 어렸을 때부터 눈치가 빠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지금은 자신의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정보들을 알아서 정리한 다음 무슨 뜻인지 번역해 주는

뇌가 미울 지경이었다. 태어나서 가장 큰 비밀을 알게 된 것이다. 욕구 수술은,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단이나 인구 조절이 주요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람들을 교묘히 다루기 위해서임을.

\*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일어나서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10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자신이 알아 왔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 심장이 처음 방문 앞에 도착했을 때보다 더 세차게 뛰어 머리까지 울리는 듯했다. 온 몸이 심장인 것처럼 뛰어 났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윤슬이 채빈의 친동생이 아닌 것부터, 바이러스라는 그럴듯한 정부의 거짓말까지. 은호 안에 다 담을 수 없는 비밀이었다. 이때까지 알아온 조그마한 비밀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이 세계의 비밀이었다. 이것이 알려진다면 이 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마을에 혼돈이 찾아올 것이다. 이 세상이 뒤집힐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열쇠는 은호의 손에 달려있었다. 은호는 계속해서 뒷걸음질쳤다. 뒤에서 나무 문이 느껴졌다. 방에 돌아온 것이다. 채빈과 윤슬이 은호의 겁에 질린 표정을 보고는 숨죽여 자지러지게 웃었다.

“미안-! 내가 제안한 건데, 무서웠어? 근데 뭘 그렇게 오래 듣-”

은호는 윤슬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외투를 챙긴 다음 현관문으로 뛰어갔다. 문을 다급하게 열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알아챘지만 신경쓰지 않았다. 이 집을 미친듯이 빠져나가고 싶었다.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이 비밀이 가득한 곳을 아예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싶었다. 현관문 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현관문이 등 뒤로 닫혔다.

\*

윤슬은 의아하게 여겼다. 그런 것 가지고 화가 날 은호가 아니었다. 게다가 집을 뛰쳐나갈 때 보인 표정은 분노가 아닌 두려움이었다. 그런 두려움에 휩싸인 표정은 은호의 얼굴에서는 처음 보았다.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은 표정이었다. 알면 안 되는 것을 알아버린, 그런 표정이었다. 설마..? 라는 눈빛이 윤슬의 눈에도 스며들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에 채빈의 부모님은 침실에서 밖으로 거의 뛰쳐나오듯이 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함도 담겨 있었지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까 하는 불안감도 얼굴을 뒤덮고 있었다.

“무슨 일이니?” 채빈의 어머니가 물었다.

“은호가 나갔어. 우리가 장난을 치기는 했는데 그렇게 심한 장난도 아니었거든...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아무말 없이 외투 챙겨서 나가더라고... 어떡하지...?” 채빈이 언짢은 표정으로 말했다. 채빈의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무슨 장난이었는데?”

“아, 그게- 그냥 별 거 아니었-”

“무슨 장난이었는데 당장 말해!” 이번에는 채빈의 아버지가 호통을 쳤다. 두려움과 분노였다. 채빈과 윤슬은 우물쭈물했다. 은호도 없는 이 자리에서, 어른들의 이야기를 몰래 엿들었다는 것을 밝힌다면 아주 크게 혼이 날 것이 너무나도 뻔했다.

“자는 걸 놀래켰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거짓말을 항상 잘 간파했던 아버지였다.



“똑바로 말하지 못해? 내가 그걸 믿길 바라는 거냐? 당장 사실대로 얘기해!” 아버지의 얼굴이 별경게 달아올랐고, 한밤중에 내서는 안되는 소리의 크기를 넘어선 목소리가 윤슬과 채빈의 심장을 조여왔다. 윤슬은 옷무새만 만지작거렸고, 채빈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선을 회피하기만 했다. 아버지는 숨을 들이쉬며 눈을 굴린 다음 거실의 벽에 11년동안 기념품처럼 걸려 있던 야구 방망이를 집어 들었다. 어머니는 눈을 휘둥그레 뜨며 손을 뻗어 아버지를 말리려 했지만 분노에 맹렬히 둘러싸여 버린 아버지를 힘으로 이길 수는 없었다. 채빈과 윤슬은 이 집에서 살아오는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에 입만 벌린 채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찌씩거리며 윤슬을 향해 걸어왔다.

“너-너-너-너, 모든 걸 윤은호한테 들었지? 들었냐고! 당장 말해-!”

아버지의 야구방망이가 머리 위로 획 쳐들어 올려졌고, 윤슬은 겁에 질려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것일까-라는 생각만이 머릿속에서 외쳐대고 있었다. 야구방망이는 윤슬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가구를 비추는 은은한 오렌지빛 등에 알루미늄 소재가 희번득거렸다. 윤슬은 눈을 질끈 감은 채 두 팔을 얼굴 앞으로 들어 올렸고, 팔에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아픈 충격이 오기를 기다렸다.

퍽-

소리는 들렸지만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 것에 의아해하며 윤슬이 감았던 눈을 슬며시 떴다. 그러나 자신의 팔 위에는 야구방망이가 놓여있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몸 앞에, 채빈이 서 있었다. 채빈의 팔에서 검붉은 액체가 아이보리 색의 대리석 위에 푹푹 떨어졌다. 카펫에 떨어진 피를 보던 윤슬이 멍하니 시선을 올려 채빈을 바라보았다. 채빈 역시 윤슬을 바라보았는데, 팔의 피가 얼굴까지 타고 흘러 머리에서도 피가 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걱정된다는 모습으로 그녀를 바라보던 채빈은 눈이 뒤로 뒤집히며 정신을 잃었다. 11살 아이의 무릎이 맥없이 꺾여 대리석 위에 쿵 찍듯이 내려앉았고, 상체는 그대로 직선을 그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윤슬은 입을 틀어막고 말았다. 그 행동을 취한 것은 윤슬뿐만이 아니었다. 채빈의 어머니 역시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주저앉고 말았다. 어느새 두 여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상황을 주도한 채빈의 아버지는 야구방망이를 바닥에 내팽겨치듯이 떨어뜨리고 짜증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듯 머리를 쓸어넘겼다.

“뭐? 나를 막아서? 니가 뭔데 나를 막아서-!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 이놈은 더 맞아도 싸!”

채빈의 아버지는 다시금 야구방망이를 피가 튄 바닥에서 주워 쓰러져 있는 채빈의 몸에게로 다가섰다. 윤슬은 너무나도 겁이 났지만 지금은 마음속 어디선가 분노와 용기, 절망과 슬픔이 동시다발적으로 북받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자신까지 쓰러진다면 아버지가 동정심을 가질지 모른다는 희망도 있었으며, 이대로라면 채빈이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뇌를 지배했다.

“그-그만하세요-! 아빠-! 제발...” 윤슬은 힘이 잘 들어가지도 않는 몸으로 매달렸다. 옷깃을 잡아당겨도 보고, 무릎을 접어 몸무게를 실어도 보았지만 10살의 몸이 성인 남성을 제지할 수 있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윤슬의 그 세 마디는 오히려 아버지의 화를 더 돋구었을 뿐이었다.

“뭐? 아빠-? 넌 내 자식이 아니야-! 그만식으로 부르지 말라고 이 천한-! 이거 안 놔?”

윤슬은 이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니. 그것은 또 무슨 말인가. 채빈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까? 오늘 어른들의 태도가 사뭇 달라진 이유가 이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과연 그것만이었을지는 의문이었지만. 은호가 뛰쳐나간 것도 이것을 엿들어서일까? 모든 사물이 멈추어 버린 듯했다. 눈물도 몇 초 가량 나오지 않았다. 왜 삶이 이렇게 한 순간에 가혹해져 버린 것일까라는 생각만이 뇌리를 휘젓고 다녔다. 이때까지의 채빈과 함께한 삶은 모두 자신에게 너무 과분했던 것이 분명했다. 이제는 어떻게 될까. 이대로 저 은색으로 빛나는 야구방망이에 맞아 죽는 걸까? 알 수 없었다. 채빈은 친동생도 아닌 자신을 지켜 주었다. 그렇지만 윤슬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턱없이 약했다. 특별하게 말을 잘 하는 것도, 도망갈 수 있을 만큼 달리가 빠르지도 않았다. 지금으로서는 울며 매달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게 없는 자신이 한심하고 또 한심했다. 채빈은 힘없이 쓰러져 피만 뿜어낼 뿐이었고, 이제는 어머니라고 부를 수도 없는 마음씨 여린 여자는 채빈의 옆에 주저앉아 구급대에 전화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채빈의 머리만 쓸어넘기며 목이 다 닳도록 울고만 있었다. 사물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느새 채빈의 아버지는 윤슬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 다른 한 손에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었다. 두피가 벗겨질 듯 아파왔다. 머리카락이 모두 빠질 것만 같았다. 자신의 두 손은 머리채를 잡고 있는 채빈의 아버지의 손목에 매달리고 있었다. 눈에서는 아픔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절망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입에서는 울음소리가 나오지도 않았다. 꺾꺾거리는 소리만이 겨우겨우 나왔다. 채빈의 아버지는 야구방망이를 천장에 거의 닿을 듯이 높이 들었다 방망이가 보이지도 않을 속도로 빠르게 윤슬의 배에 내리꽂혔고, 윤슬은 둔탁하면서도 뽕족한 아픔에 정신을 잃었다.

\*

“허억-!” 윤슬은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의 배에 손을 갖다대었지만, 아픔은 없었다. 누운 자세에서 갑자기 일어나니 머리가 어지러울 뿐이었다. 크게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쓰러진 채빈과 야구방망이를 든 아버지, 채빈의 옆에서 목 놓아 울고 있던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눈에 들어온 것들은 한때 집이라고 불렀던 곳과 똑같은 가구 배치가 되어 있는 곳이었다. 아무도 없었다. 자신은 거실의 소파에 누워 있었고, 하얀 이불을 덮고 있었다.

“오빠-? 채빈오빠-? 어-엄마-! 아빠...! 은호-! 윤은호오빠-!” 목에 걸린 듯한 울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윤슬이 깼다는 것을 알릴 정도의 목소리였다. 옛날 자신의 방이었던 구석의 문에서 채빈이 조금 조금해 보이게 걸어 나왔다. 그러나 11살의 채빈이 아니었다. 힘없이 야구방망이에 맞아 쓰러지던 날의 채빈보다 훨씬 키도 컸으며, 이상하게 더 나이가 많아 보였다. 대략 17살에서 18살쯤...? 그렇게 생각하고 나자 이때까지의 기억이 모두 떠올랐다. 의무적으로 자신을 대하던 엄마와의 삶, 몇 주 전에 만났다고 생각은 윤은호, 그리고 며칠 전에 만난 자신이 떠올리지 못했던 채빈까지. 이 도시를 처음 와 보았다고 생각한 것이 우스울 정도로 집이 익숙하게 느껴졌다. 어느새 채빈은 소파 앞에 걸터와서 물을 건네고 있었다. “아- 고마워...” 윤슬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며 말했다. 친하다고 생각했던 오빠였다가, 자신을 배신한 나쁜 배신자였다가, 10년을 함께 살아 온 친오빠였다가, 이제는 친오빠도 아니었다. 10년 동안은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알고보니 천천히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다리같은 삶이었던 것이다. 결국 기억 수술을 하면서 그 다리는 마지막 버팀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졌고, 자신은 감정이 없는 사람들 속 뛰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마셔.” 채빈이 윤슬이 물을 마시지 않고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자 말했다. 윤슬은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다. 어떻게 해서 이 도시에 왔는지, 자신을 모르는 척 무심하게 상처받는 말들을 내뱉었던 채빈과 그가 보냈던 편지. 윤슬은 물을 조금씩 마시며 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다.

“너를 만나던 그 순간순간이 다 가짜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게 그런 뜻이었어…?”

채빈은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다시 무표정으로 내렸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채빈이 이때까지 느껴온 아픔과 슬픔을 볼 수 있었다. 윤슬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쉴 뒤 낮게 물었다.

“은호오빠-아니 윤은호는? 지금 어디 있는데?”

“저 방에서 자고 있어.” 채빈은 소파 옆자리에 털썩 앉더니 대답했다. 윤슬은 안도감과 실망감에 웃음이 나왔다. 자신은 이렇게 쓰러져 있었는데, 은호는 태평하게 잠이나 자다니….

“좀 전에 잠들었어. 지금 새벽 4시야.” 채빈이 윤슬의 마음을 읽은 듯이 이어 말했다. 윤슬은 묻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다. 두 팔로 몸을 감싸니 자신이 식은땀에 젖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쓰러져 있는 동안 악몽을 꾸 듯이 말이다.

“여긴...옛날에 우리가 살던 집이야?” 윤슬이 잠시 뒤 물었다.

“응. 어머니랑 아버지는 여기에 더이상 살지 않아. 나 혼자 살아.” 채빈이 안심시키듯 말했다.

“아…. 그렇구나…. 난 기억 수술을 받은 거지? 오빠는 받지 않은 거고…?” 윤슬이 묻자 채빈이 잠시 윤슬을 쳐다보았다. 아버지의 야구방망이에 맞기 전 그 표정과 매우 흡사해서 윤슬은 흠칫 놀랐다.

“꼭 말할 필요는….” 윤슬이 말끝을 흐리며 조그맣게 덧붙였다.

“나도 받았어. 그런데 받고 1년만에 모든 기억이 돌아오더라. 웬지는 나도 몰라. 일부러 그렇게 한 걸 수도 있고. 그 이후로 아버지는 날 죽도록 미워했어. 그 방망이 앞에 겨우 한 번 선 것 가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맞았어, 그 후 몇 년 동안은. 술에 취해 그러는 것도 아니었고, 다른 데서 화가 난 것도 아니었어. 그냥 내 얼굴을 보면 화가 치밀었나 보지. 그 야구방망이로 맞았는데, 몇 번 맞고 나서는 아프지도 않더라. 처음에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나도 화도 내고, 도망도 다니고, 집도 나가고 했는데- 그냥 아버지한테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 1급 공무원이 미성년자 아들을 찾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겠지….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맞았어. 부러진 뼈가 아물 때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다 나아서 집에 오면 또 맞고, 또 부러지면 병원에 갔다가…. 그냥 그랬지 3년 정도는. 너를 미워해 보기도 하고 원망해 보기도 하고 싫어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 보고싶더라. 10년 같이 지냈다고 정이 그렇게 들었더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냥 나도 수술을 받을 테니 너랑 은호가 있는 마을로 가겠다고 했어. 아버지는 흔쾌히 허락하더라. 내가 그렇게 보기 싫었나 봐. 그런데 진짜로 수술을 받을 용기는 생기지 않더라고. 그래서 수술 하는 사람한테 돈 좀 주고 그냥 머리만 열었다 닫으라고 했어. 정말 그렇게 했더라. 그렇게 집을 나와서 어머니도 같이 B구역으로 갔어. 물론 가짜 엄마 아빠까지 그럴듯하게 구해서. 그렇게 해서 너를 만난거고. 그 카메라 수술, 진짜 한 줄 알았어. 그것 때문에 다시 이 A구역으로 온거야. 알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도록 수술해 놓았더라. 굳이 그렇게까지 한 이유를 물으니깐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대. 날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했겠지. 넌 그 마을에 있는게 차라리 안전했을 텐데, 그냥 모르고 지내는게 나았을 텐데 결국 내가 이 일에 널 끌어들여버렸어. 이 모든 게 아버지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겠지. 나한테 화를 내도, 원망을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어….”

채빈은 그렇게 말을 끝내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윤슬은 그 말에 대답할 적당한 말을 찾아 헤메느라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몇 분인지, 몇 초인지 알 수 없는 시간이 흘렀다. 결국 말을 먼저 꺼낸 것은 윤슬이었다.

“난…. 이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온 거나 마찬가지잖아. 내 진짜 인생은 저 밑에 깔려 묻혀 있었는데, 나는 저 위에 표면 위에서 나 혼자 특별한 척, 외로운 척 다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좀 웃기다. 그러다가 갑자기 은호랑 오빠가 내 지루하던 일상에 끼어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 은호는 변화하고 있었고, 오빠는 처음부터 내 옆에 있길 바랐던 그런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셋이서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또 모든게 엇어져 버렸네. 이번에는 옛날 일까지 다 가지고 표면으로 올라와 버렸어. 지난 며칠동안 제일 많이 한 생각이 ‘이젠 어떡하지’였어. 난 이제 어떡해야 할까, 내 앞에 어떤 미래가 있어야 하는 걸까라는 고민, 이때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생각했거든. 남쪽으로 오면서 나를 죽이려던 사람들도 봤고, 숲 위로 보이는 하늘도 봤고…. 왜 이런얘기까지 하는거야, 난…. 어쨌든 우리 세 명은 절대 떼어놓을 수 없나 봐- 정말 다시는 못 볼 것 같이 기억까지 지워가면서 강제로 헤어졌는데, 다시 이 집에서 6년 만에 만날 줄은 누가 알았겠냐고- 안그래?” 윤슬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채빈 역시 아까의 모든 것이 걱정된다는 표정은 좀 지워진 채 웃었다. 윤슬은 이제야 삶이 자리가 잡힌 기분이었다. 아직 모든 게 제자리는 아니었지만, 제자리로 돌아가는 중인 것 같았다. 그 길은 아주 험난하고 큰 산들이 자리잡고 있을 것이 뻔했지만, 가장 큰 고비를 넘긴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

다음날 오전, 윤슬은 소파에서 갓 자신을 발견했다. 어제 늦은 새벽에야 잠이 들어서인지 여전히 피곤했다. 일어나서 어제 덮고 있던 하얀 이불을 각을 잡아 갓 뒤, 습관적으로 부엌 쪽을 보니 채빈이 서서 요리하고 있었다. 윤슬은 잠시 놀랐다가, 이때까지 몇 년을 혼자 살았으니 요리를 하는 것쯤은 기본적인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채빈에게 살짝 웃은 뒤, 윤슬은 은호가 있다던 방의 문을 열었다. 은호는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여전히, 그 마을에서 만난 은호의 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보니 이상했다. 자신의 몇 년 전 기억 속에서 은호는 감정을 멀쩡히 가지고 있던 윤슬과 채빈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6년 전 이 도시를 떠난 후 은호를 6년 동안 보지 못했다 다시 만났을 땐 은호는 아예 다른 사람이었다. 자신이 왜사는지조차 모르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심장 부근이 아려 왔다. 윤슬은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다. 그렇다면 그 사이의 어느 시점에 감정, 욕구 조절 수술을 받았다는 것인데, 윤슬이 떠나보내지고 난 직후가 매우 유력했다. 윤슬의 아버지-아니 이제는 채빈의 아버지가 은호가 무언가를 엿들은 것을 안 것처럼 말했기 때문이다. 무엇을 엿들었기에…. 윤슬은 그 6년 동안 은호는 어디에 있었는지가 궁금해졌다. 자신과 같은 마을도, 하원학교에서 보이지도 않았기에 그 열 개의 마을과 이 도시는 배제해야 했다. 혼자 떠돌아다닌 것일까? 이사를 왔다고 소개를 했기에 그럴 가능성 또한 희박했다. 이 모든 것은 은호만이 알고 있을 것인데, 지금의 은호는 아무 기억도 없는 상태인 데다 감정과 욕구조차 자신과 채빈처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언젠가 모든 것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희망 빼고는 기댈 곳이 없어 한 구석으로는 실망감이 느껴졌다. 윤슬은

10년동안의 기억 속과 다른 은호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긴장감까지 안고, 문 손잡이를 돌려 열었다.

안의 은호는 아직 자는 중인 것 같았다. 바른 자세로 누워 자고 있는 은호의 모습은 윤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6년 전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은호는 보통의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 윤슬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는지 은호의 눈이 스르르 열렸다.

“아, 미안…내가 깨웠어?”

“아니.” 은호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 이불을 개기 시작했다.

“저- 있잖아-”

“괜찮아?”

“어?” 윤슬은 당황해서 되물었다. 괜찮냐니. 은호의 입에서는 처음 나온 말이었다. 남을 생각하기는커녕, 자신조차 생각하지 않던 은호가 자신의 안위를 물어주니 기쁠 따름이었다. 채빈의 말이 맞았다. 은호는 변화하고 있었고, 그것을 하루하루 느낄 수 있었다.

“아, 이젠 괜찮아. 채빈오빠가 아침 만들고 있던데, 우리도 가서 도와줄래?”

“응.”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불을 마저 개고는 윤슬과 함께 방을 나왔다. 검은색 앞치마를 한 채빈이 국의 간을 보는 듯했다.

“로봇을 안 시키네? 요리하는 거 좋아해?” 윤슬이 물었다.

“아, 로봇은 이제 믿을 수가 없더라고. 아버지가 감시할지, 정부에서 감시할지 모르겠어서. 이 집에 전자기기도 최대한 다 빼 버렸어. 좀 지루하긴 한데, 그래도 감시당하는 것 보다는 낫지 뭐. 그리고 요리하는 것도 꽤 재밌어.” 채빈이 담담하게 말하고는 윤슬과 은호에게 이리 오라는 손짓을 해 보였다. 윤슬과 은호가 인덕션 앞에 서자, 채빈이 국을 숟가락으로 떠 윤슬에게 건네주었다.

“먹어봐. 어떤지 말도 해주고.” 채빈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윤슬은 슬며시 웃으며 맛을 보았다. 처음 맛보는 국은 아니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나지를 않았다. 10년동안 살았던 이 집에서 맛 본 국 같은데, 기억이 돌아왔다 하더라도 너무 옛날의 일이라 생각이 나지 않는 듯했다.

“미역국이야. 오늘 너 생일이잖아.” 그 말을 듣자 생각났다. 잊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일은 뒷전이었던 것이다. 자신의 생일을 먼저 챙겨주는 사람은 6년만에 처음이었다. 항상 윤슬은 자기 자신에게 직접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 주었고, 다음 생일은 더 재미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6년만에 제일 좋은 생일이다…. 항상 나 스스로 생일 축하해줬는데, 누가 생일 챙겨주는 거 진짜 오랜만이야….고마워.” 윤슬은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눈앞을 흐렸다. 이젠 굳이 눈물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윤슬은 가볍게 눈가를 닦고는 말했다.

“너무 기뻐서 그래…. 나 지금 완전 감동받았잖아-!” 그 말을 들은 채빈이 같이 웃었다. 윤슬은 옆에 서 있던 은호도 웃은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셋이 모여 생일파티를 하던 그때로.

“반찬하고 밥하고 급하게 만들어서 얼마 없긴 한데, 저기 식탁에 옮기는 것 좀 도와주라.” 채빈이 말했고, 윤슬과 은호는 각자 먹을 밥그릇 등을 챙겨서 식탁 위로 올려놓았다. 곧 상이 다 차려졌고, 채빈, 윤슬, 은호는 식탁에 앉았다.

“생일축하해. 맛있게 먹어.” 채빈이 말했다. 윤슬의 코끝이 찡해졌다.

“고마워…” 윤슬이 대답하고는 김이 나는 밥을 떠서 먹으려는 순간, 은호가 희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생일축하해. 오늘 하루만은 너가 주인공이네.” 윤슬은 그대로 밥손가락을 식탁 위에 떨어뜨리고 말했다. 그 말은, 정확히 6년 전의 생일에 은호가 윤슬에게 했던 말이었다. 그것도 다같이 케이크를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말한 것이었다.

“기억이…돌아온 거야…?” 윤슬은 침을 꼴깍 삼키고는 은호를 바라보며 물었다. 채빈 역시 아무 말 없이 은호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였다.

“무슨 말이야?” 은호가 다시 돌아온 멍한 표정으로 물었다. 윤슬과 채빈은 심장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아니었다. 기억이 갑자기 돌아오기를 바란 것은 무리한 요구였음을 알아차린 둘은 어색하게 웃으며 밥을 먹었다. 그래도 윤슬은 은호가 그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설사 우연의 일치로 내뱉은 말이라고 해도 희망이 마음 속에 싹트고 있었다. 이때까지는 감정이 없는 사람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은호를 이만큼 변화시킨 것만으로도 기뻐해야 한다고 자신을 타일렀다. 그러나 지금 한 말은 마치 감정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였다. 웃음기가 밥을 먹는 내내 윤슬의 얼굴을 맴돌았다.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두 명의 사람이 옆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감출 수 없이 행복했다. 이 행복이 또 깨져 버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도 함께 찾아왔지만, 그런 것은 지금으로써는 신경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우리 여기서 계속 살 수 있는 거야?” 윤슬이 기대 반, 불안 반으로 물었다. 채빈은 윤슬을 흘깃 보더니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글쎄, 어제 그 로봇들이 아버지한테 벌써 일러바쳤을 수도 있어. 그럼 지금쯤 한창 이리로 오시는 중이겠지…” 채빈이 담담하지만 안타깝다는 투로 말했다.

“지금 여기 이 도시에 없어? 어디 있는데?” 윤슬은 6년 전 자신을 야구방망이로 죽기 직전까지 때리던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태연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했다.

“지금은 C구역 아니면 B구역에 가 있지…” 채빈이 말하기 꺼려진다는 식으로 웅얼거렸다. 윤슬은 이것을 놓치지 않았다.

“어제 말해준 A구역, B구역, C구역은 뭐야?” 윤슬이 물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돈을 가지고 있는 순서야. A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정부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 고위 장관들 아니면 공무원들이야. 아버지도 여기에 속하니까 내가, 우리가 여기에 살았었던 거고. B구역은 너가 살았던 마을이야. 모든 설계는 정부의 계획 아래에 되어 있어. 그래서 집들이 다 똑같이 생긴 거야. B구역 안에서도 10개의 마을로 나뉘진 건 알지? 그 마을들 사이에 차이점은 딱히 없어. 그 열 개의 마을이 모두 하원학교로 등교하는 거고. C구역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 구역이야. 그러니까 B구역 사람들은 C구역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선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지. 사실 최대한 구역이 나뉘져 있다는 것을 비밀로 부치고 싶어 해, A구역 사람들은. 뭐, 다 반란을 막기 위해서겠지만. 다시 C구역으로 돌아가자면, 그 구역은 그냥 노예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 존재 이유는 단 하나, A구역의 사람들의 부를 위해서. 그냥 일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기계야. 요즘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서 로봇을 고용하는 게 싸다고 하더라도, 그냥 사람을 멍대로 부리는 게 더 쉬운가 봐. 그래서 구역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아. 취급은 로봇보다 더 못해. 어떤 덴지 감이 오지?” 윤슬은 채빈이 충격적인 사실들을 지나치게 담담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 채빈이 말하는 내용도 충분히 놀랍고 소름끼치는 정보였지만 그것을 윤슬에게 전달한 채빈이 전혀 충격적이지 않은 태도로 말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이미 채빈은 겪을 대로 다 겪은 것이다. 더이상 놀랄 것이 없다는, 채빈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자신은 태평하게 마을에서 자신을 알아봐 줄 사람을 찾고 있는 동안 채빈은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터이다. B구역에서 보았던 채빈은 그의 표면밖에 되지 않는 모습, 아니 그저 가면일 뿐이었던 것이다. “응… 마을을 그렇게 분류하는지는 몰랐네…. 게다가 C구역이라니, 거긴 도대체 어디야..?”

“너네가 이 도시 온 것처럼 숲을 건너야 해. 집에 전체 계획도가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 봐.”

채빈은 밥을 먹다 말고 의자를 빼 일어난 다음 복도로 걸어갔다.

“아니-밥 마저 먹고 가지…” 윤슬이 말을 하다 채빈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자 말끝을 흐렸다. 윤슬은 은호를 보았다. 은호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있었다. 윤슬도 다시 젓가락과 숟가락을 들고 말없이 밥을 먹었다. 잠시 뒤, 채빈이 다시 복도 끝에서 나타났다. 커다랗게 말려 있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채빈은 다시 의자를 끌어 앉은 다음 지도를 폈다.

“밥 다 먹고 해도 되지 않을까?” 윤슬이 채빈의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채빈은 한숨을 쉬더니 지도를 보고 있던 고개를 들고 윤슬을 보았다.

“시간이 없어. 조금 있으면 떠나야 해. 생각해보니 경비 로봇들은 아버지에게 바로 알렸을 거야. 그러면 아버지는 B구역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쯤 분노에 차서 오고 계시겠지…. 이번엔 야구방망이로 맞는 것보다 더 심할 건 알지? 우리 모두 기억 수술을 받은 다음 욕구 수술까지도 받을 가능성이 커.” 채빈이 낙담한 듯이 말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지금 그들은 한가하게 윤슬의 생일이나 축하하며 밥을 먹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러나 채빈의 말투는 잔잔하고 조금함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았다.

“어떻게 할건데.” 은호가 밥을 다 먹고 물었다. 윤슬과 채빈이 동시에 은호를 보았다.

“C구역으로 갈 거야, 일단은. B구역이랑 A구역은 아버지의 통제가 제일 심한 곳들이라서 무조건 들킬 수 밖에 없거든. 거기서 정착할 수는 없으니까 A, B, C도 아닌 다른 곳을 찾아야 해. 그런 곳이 있을 거야, 아마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을 세 구역으로 나눈 건 말이 안 돼. 어쨌든 그건 그때 생각하고, C구역으로 가는 게 우선순위야. 가는 동안에 뭐가 있을 지 몰라.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해. 우리 셋이 힘을 합쳐도 무장한 성인 남자를 따돌릴 힘은 없어.” 채빈이 단호하면서도 힘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의 결정에 확신이 서지는 않지만 윤슬과 은호를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최대한 힘을 실은 목소리 같았다. 이상하게 윤슬은 어제 새벽의 대화 이후로 채빈이 하는 말들이 모두 마음에 걸렸다. 윤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무언가 모르게 윤슬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럼 최대한 빨리 떠나야 하는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윤슬이 물었다. 채빈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랑 은호는 일단 짐 싸고 있을게.” 윤슬은 그 말을 끝으로 어색하게 살짝 웃고는 식탁에서 일어나 밥그릇을 치웠다. 은호도 따라 일어나 밥그릇을 싱크대로 갖다 놓았다. 윤슬의 가방에는 여전히 옷들이 들어 있었다.

“혹시 씻을 시간이 있을까-?” 윤슬이 채빈에게 물었다. 채빈은 밥그릇을 치우지 않은 채 앉아서 지도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윤슬의 목소리를 듣고는 고개만 돌려 그녀를 바라보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곤 말했다.

“너무 길게 씻지는 말고.” 윤슬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 다음 챙겨온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챙겨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곳 역시 6년 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자신만 훌쩍 자라서 와서 그런지 기억했던 것보다 훨씬 작았다. 세면대 위의 거울은 깨끗이 청소되어 있어 윤슬의 모습이 잘 비쳤다. 며칠동안 씻지 못해 흙과 먼지로 더러워진 옷과 정돈할 기회 없이 헝클어져 있는 머리카락이 조화를 이루어 자신의 모습이 비참해 보이기까지 했다. 윤슬은 한숨을 쉰 다음 샤워 부스의 문을 열어 물을 틀었다. 따스한 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내려오자 따뜻함이 온 몸에 스며드는 듯 해 기분이 좋아졌다. 채빈이 길게 씻지는 말라 한 말이 떠올라 윤슬은 먼지가 몸에서 떨어져 나갈 정도로만 씻고는 얼른 나왔다.

은호는 짐을 짊어 가방을 옆에 둔 채로 채빈과 함께 지도에 빠져 있었다. 윤슬이 수건으로 머리의 물기를 닦으며 다가갔다.

“길을 찾고 있는 거야?”

“응. 최대한 숲 안으로 들어가려고. 낮에 움직일 수 있는 건 숲밖에 없어.” 채빈이 대답했다. 윤슬은 한 번도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 지는 배운 적도, 본 적도 없었다. B구역이 10개로 나누어졌다는 것 외에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기에 궁금해진 윤슬은 채빈이 들고 있는 지도를 채빈의 옆에서 내려다보았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직사각형 모양이었다. 중심에 세 마을이 길다랗게 연결되어 있었고, 그 주변과 테두리, 즉 빈 공간은 모두 숲이었다. B구역이 맨 위, 그 밑은 A구역, 그리고 그 아래에는 C구역이 자리하고 있었다. A구역은 지배층만 사는 곳이라 그런지 B구역이나 C구역의 절반 정도의 크기였다. 생각보다 단순한 구조에 윤슬은 신기해하면서도 궁금했다.

“이게 끝일까?” 무심코 윤슬의 생각이 말로 뱉어졌다. 채빈과 은호가 윤슬을 바라보았다. 윤슬은 다시 말했다.

“이 세 마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세상에?” 채빈과 은호 모두 곰곰히 생각하는 듯하더니, 은호가 모두를 대변해 대답했다.

“몰라.” 윤슬은 어깨를 으쓱하며 입꼬리를 올리고는 다시 물었다.

“그래서 어떤 길로 갈 건데? 손가락으로 표시해 봐봐.”

채빈이 다시 지도를 보고는 손가락으로 A구역의 서쪽 부근에서 메인 도로를 벗어난 숲길, 끝으로 C구역의 서쪽 부근으로 손을 그었다.

“자세한 길은 몰라. 이것보다 자세한 지도가 없거든.. A구역까지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어찌어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C구역은 어디에 몇 명 정도가 보초를 서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제일 가까운 루트로 짜긴 했는데 그쪽이 막혔으면 C구역 테두리를 한 바퀴 돌아야 할걸.” 윤슬은 고개를 희미하게 끄덕였고, 은호는 알아들은 눈치였다. 셋은 설명이 필요없는 눈빛을 주고받은 다음, 각자의 가방을 메고 일어섰다.

첼커덕.

현관문 쪽에서 갑작스럽게 도어락 소리가 들렸다. 채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윤슬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은호는 무표정하면서도 놀랍다는 표정으로 고개가 획 돌아갔다.

뵙-뵙-뵙-



비밀번호를 하나씩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윤슬의 귀에는 그 소리들이 이명처럼 길게 울렸다. 그 순간, 채빈이 움직였다. 티비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맞지 않은 채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다. 잠금 해제가 되지 않았다는 알림음이 계속해서 울렸다.

“빨리 와-조금 있으면 문을 부술 게 뻔해. 얼른.” 채빈은 TV의 아랫부분을 잡고 힘겹게 당겼다. 윤슬은 재빨리 뛰어가 옆에서 도왔고, 은호도 몇 초를 망설이다 TV를 들기 시작했다. TV가 서서히 움직였고, 거대한 검정 스크린의 뒤에 자리하고 있던 것이 드러났다.

사람 한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통로가 자리하고 있었고, 아랫면에는 철로 된 사다리가 놓여 있었다. 윤슬과 은호는 병쳐서 채빈을 바라보았다.

“얼른 들어가. 내가 TV로 대충 가릴 테니, 얼른!” 채빈이 속삭이는 목소리로 고함쳤다. 윤슬은 최대한 빨리 사다리를 잡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것에 대해 묻고 싶은 것이 산더미였지만, 상황이 급박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뻘-거리는 이명소리가 계속해서 귀에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하며 맴돌았다. 손에서는 다시 땀이 나기 시작했고, 날씨가 덥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에서도 식은땀이 흘렀다. 사다리 한 칸 한 칸을 생명줄인 양 온 힘을 다해 잡았다. 위를 보니 은호가 내려오고 있었다. 윤슬은 아래만을 보며 내려갔다. 곧 발이 보이지 않았고, 38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사다리로 38층의 아파트를 내려가야 했던 것이다.

미끌거리는 손을 팔로 이끌며 사다리를 내려갔다. 팔이 아파왔다. 지금이 몇 층쯤일지 궁금했지만, 암흑 속에서 그것을 알 방법은 전혀 없었다. 긴장으로 후들거리던 다리는 아픔으로 저려왔다. 여기서 한 손이라도, 한 발이라도 잘못 짚는 순간 밑에서 받아줄 사람도 없이 수직낙하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 두려웠다. 떨어진다면, 죽을까. 곧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질문은 ‘아플까’로 바뀌었다. 그것도 당연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윤슬은 숨이 찼다.

“잠시만, 멈추면 안될까? 너무, 숨이, 차서, 몇 초만, 쉬었다가, 갈게-” 윤슬은 그 말을 한 다음 멈추고 기다렸지만, 위에서 내려온 발이 자신의 손을 밟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숨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다. 잠시 뒤 숨이 고라지자 윤슬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위에서 슬며시 빛이 보였다. 갑작스러운 빛에 놀라 손을 놓칠 뻔 했지만, 가까스로 잡고는 위를 보았다. 자신의 목으로 침이 삼켜지는 소리가 들렸다.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쪽으로 내려간 것 같은데요? 따라 내려갈까요?”

“아니, 어차피 1층에 내려갈 것 아니냐. 자연스럽게 만나지겠지. 일층으로 가자. 한 명은 여기 남고.”

“예-”

목소리가 사라지고, 윤슬은 잠시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했다. 채빈의 아버지가 도착한 것이 분명했다. 윤슬은 위를 보았다. 채빈과 은호 모두 아직 위를 보고 있는 듯했다. 이제 길이 모두 막힌 것이다. 위로도, 아래로도 갈 곳이 없었다. 중간에 빠지는 길이 있지 않은 이상, 그들이 들키지 않고 이 건물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두려움과 절망이 몰려왔다. 막다른 벽에 막힌 기분이 들었다.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사다리, 아니 밧줄이라도 내려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슬이 조용히 물었다.

“계속...내려가...?”

몇 초간의 침묵이 계속되었다. 은호는 원래 말이 없었지만, 이런 때일수록 침착한 채빈 역시 아무 말도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된 윤슬은 더욱 불안해졌다. 채빈이라면 마지막 희망으로 무언가를 남겨

두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무언가 들었을 것 같았던 금고를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는 듯한 행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윤슬은 자신이 판단할 때가 왔다는 것을 느꼈다. 위로는 한 명, 밑으로는 여러 명이지만 그 한명조차 제압하기 어려울 것이다. 밑에서는 도망갈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지만, 위로는 결국 1층으로 내려가는 것 외에는 채빈의 계획대로 C구역으로 갈 방법이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이 옳았다. 결국 윤슬은 내려가는 것을 택했다. 잡힌다면, 다시 도망갈 기회를 엿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내려가자.” 잡힐 것이 뻔하다고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윤슬은 겨우 삼켰다. 여전히 답이 없자 윤슬은 계속해서 내려가기 시작했다. 긴장보다는 절망이 온 몸을 감쌌다. 더이상 불안감도 들지 않았다. 잡히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뻔했다. 총을 든 군사들에게 잡혀 수술을 받을 것이다. 기억 수술과 감정 욕구 수술 모두, 윤슬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들이었다. 옆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았기에 더욱 그랬다. 감정이 깊어지기 힘든 짐이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지만, 이제는 더이상 그런 생각을 하기도 싫었다. 내일 당장 수술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정상적인’ 사람임을 느끼고 싶었다. 따뜻한 눈물이 눈을 가득 채워 볼로 흘러내렸다. 자신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느껴진 것은 오랜만도 아니었지만, 무언가 할 수 있었다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온 세상이 그들에게 맞서 있었다. 윤슬은 맞서고 싶지 않았지만, 세상이 그들을 맞서게 만들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맞서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게 느껴졌다. 좀 더 나은 세상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내 감정을 마음대로 말해도, 표현해도 되는 세상. 나에게 소중한 것을 없애기 위한 수술따위는 없는 세상. 그런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상. 눈물이 흘러나오면서 얼굴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소리 없이 아래를 보며 흐느꼈다.

“올어?” 은호가 조용히 물었다. 윤슬은 깜짝 놀라 코를 훌쩍이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 아니-? 아니 울긴 했는데, 괜찮아. 어떻게든... 어떻게든 되겠지, 뭐.”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귀로 떨리자 더 서러워졌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판단대로 내려가고 있었고, 적어도 채빈과 은호에게는 확신을 주어야 했다.

\*

잠시 뒤, 윤슬은 1층이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바닥에서부터 희미한 빛이 시야를 밝혀 주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손과 팔의 희미한 윤곽들이 서서히 드러났다.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게 끝일까? 더이상 그들에게 함께 있을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것을 생각하니 다시 눈물이 세상을 부영게 만들기 시작했다. 윤슬은 소매로 눈가를 닦았다. 아직 기회가 있을지 몰랐다. 어쩌면 그들에게 희망을 줄 누군가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덧없는 줄 아는 소망이 피어났다. 윤슬은 한 칸 한 칸을 더 내려가다 멈추었다. 아래를 보았다. 사다리의 끝과 벽돌 바닥, 그리고 바닥을 비추는 햇살이 눈에 또렷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림자 하나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이 총을 든 사람일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팔과 다리가 떨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을 꼭 눌렀다. 윤슬은 팔과 다리뿐만 아니라 온 몸이 불안정하게 진동하는 것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상반신의 그림자가 통로의 바닥에 드리워졌고, 사람의 형태가 터널 안으로 들어왔다. 윤슬은 숨을 흡 들이켰다. 심장이 더욱 세차게 뛰고 있었다. 총을 든 남자가 아니었다.

\*

자신과 또래 즈음으로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짧고 까만 머리를 하나로 느슨하게 묶었으며, 얼굴은 씻지 못한지 며칠은 되어 보였다. 낡은 남색 티셔츠와 자신의 몸에 몹시 커 보이는 긴 치마를 입고 있었다. 그런 더럽고 허름한 모습 사이 빛나는 눈만이 윤슬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윤슬은 위를 보았다. 은호 역시 매우 놀란 눈치로 여자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아이가 급하게 손을 내저었다. 윤슬은 눈을 크게 뜨며 몇 초 망설이다 사다리를 몇 칸 더 내려간 다음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추운 날씨에 발목이 저려 왔지만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 윤슬은 좁은 통로 앞에서 여자아이의 바로 앞에 서 있었다. 여자아이가 검지손가락을 입술 앞에 대고는 따라오라는 듯 손짓했다. 윤슬은 숨을 들이키고 최대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려 노력했다.

이 아이가 그 사람들과는 한 패가 아닌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었다. 곧 은호와 채빈이 내려와서는 어리둥절하게 윤슬과 밖을 내다보고 있는 아이를 쳐다보았다. 윤슬은 그들에게 검지손가락을 입 앞에 대어 보이고는 여자아이를 따라 밖을 둘러보았다. 파란 하늘 아래 하얀 벽돌로 만들어진 길이 햇빛을 반사해 반짝였고, 그 맞은편에는 울창한 숲이 자리하고 있었다. 조금만 뛰면 숲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숲 옆에는 무장한 듯한 총을 든 남자들이 서 있었다. 여자아이는 주머니에 손을 넣는 듯하더니 하얀 천으로 만들어진 주머니를 꺼내 앞으로 던졌다. 곧 흰 연기가 펥 하는 소리와 함께 피어올랐다. 총을 든 사람들은 당황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이미 그들의 시야 앞은 흰 연기로 가려진 채였다. 여자아이는 뒤를 돌아보더니 그들을 향해 뛰라는 듯한 입모양을 해 보였다.

윤슬은 기회임을 알아차렸다. 자신이 그렇게 원하고 원하던 기회였다. 윤슬은 여자아이를 따라 뛰기 시작했다. 앞이 하얗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여자아이의 희미하게 보이는 등을 따라 뛰었다. 가슴이 벅차도록 긴장되고 희망이 생겨났다. 뒤로 은호와 채빈이 따라 뛰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뛰는 박자에 맞추어 심장이 뛰는 듯했다. 숨이 턱까지, 아니 머리 끝까지 차 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이미 도로를 지나 숲을 지나고 있었다. 뒤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귀를 파고들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뒤쫓으라는 말이 섞여 있을 것이라는 것만은 확신했다. 앞서가던 이들이 온 몸을 스치며 지나가고 있었다. 위를 쳐다보니 나무들이 뺨뺨히 줄 서 있어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다. 미소가 입가에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들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방향을 바꿔가며 뛰었다. 윤슬은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잠시 뒤 하얀 연기가 걷히기 시작한 곳에 여자아이가 멈춰 섰다. 윤슬은 따라 멈추어 섰고, 은호와 채빈도 숨이 찬 듯 숨을 몰아쉬며 멈추어 섰다. 그 뒤로, 4명의 사람이 더 있었다.

윤슬은 놀라 뒷걸음질쳤다. 여자아이가 윤슬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윤슬은 다시 놀라 여자아이를 쳐다보았다. 연기가 가시기 시작한 그곳을 바라보니, 남자아이 두 명과 여자아이 한 명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들을 직시하고 있었다.

“누구...?” 윤슬이 더 말하려고 했지만 입이 따라주지 않았다. 한 번도 A구역에서 마주친 적도, B구역에서 마주친 적이 없었다. 모두 차림새가 여자아이와 같이 남루하고 지저분했다.

“우리는 C구역 사람들이예요. 얘기하자면 긴데, 따라잡힐 수 있으니까 걸으면서 얘기할게요.”

확실히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았다.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다. 공허한 눈빛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들 피곤한 듯한 눈치였지만, B구역 사람들과 같이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듯했다. 윤슬은 채빈과 은호의 곁으로 가 걷기 시작했다. 그들의 앞으로 여자아이가, 뒤로는 다른 아이들이 걷기 시작했다. 여자아이가 잠시 뒤 입을 뗐다.

“처음부터 얘기하자면, 이걸 알지 모르겠네요, A구역 사람들은, C구역 사람들은 A구역 사람들이 부리는 노예라고 보면 돼요.” 여자아이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다.

“우리는 딱히 철저하게 관리되지도 않죠, 뭐.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겠죠. C구역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고, C구역 사람들이 C구역 밖으로 나올 수 있을 리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수술, 아, 이걸 아세요…?” 윤슬은 고개를 가만히 끄덕였다. 여자아이는 다시 고개를 돌려 말했다.

“음, 그래서 수술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감정을 뺏기지 않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술이 제멋대로 되어 버려서 감정이 이상하게 존재하기도 해요. 그래서 A구역 사람들이 한 2달에 한 번 정도 C구역에 와서 수술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을 여기로 데려와서 시킨 다음 다시 돌려보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아까 제가 흰색 연기 피어나게 한 것도 원래는 우리끼리 돌아가려고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뒤에서 오는 다른 4명도 그쪽들을 예상 못 한 거고요. 근데 제가 그 군사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여기서 내려올 건데, 이쪽도 수술을 시켜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안 무서워하셔도 된다고요…. 아, 그리고 이렇게 도망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찾지도 않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쫓길까요…?” 여자아이가 말을 끝내고 윤슬을 보고 불안하게 살짝 웃었다. 윤슬도 알 수 없었다. 자신과 채빈, 은호를 수술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지 아닐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마. 나는 처음부터 A구역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채빈이 대답했다. 윤슬은 채빈을 흘깃 보았다. 지쳤지만 불안한 표정은 아니었다. 군사들에게 잡히지 않은 것에 대해 안도한 모양이었다. 여자아이는 잠시 멈춰서 고민하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오른쪽으로 멀리 던졌다.

“뭐-에요?” 윤슬이 물었다.

“소형 로봇이요. 꽤 큰 소리를 낼 텐데, 던진 데서 몇 킬로미터는 더 간 다음 울릴 거예요. 추적 방지용이라고 해야되나..?” 여자아이가 싱긋 웃었다. 이런 일을 많이 겪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준비성이 철저한 것을 보면.

“아-” 윤슬이 탄성을 내뿜었다. 채빈 역시 깊은 인상을 받은 모양이었다. 은호는 여자아이가 로봇을 던진 오른쪽을 가만히 쳐다보며 걸었다.

“아, 제 이름은 류찬솔이에요. 16살이구요. 혹시 이름을 물어봐도…괜찮을까요?” 윤슬은 찬솔이 나이에 비해 매우 어른스럽다고 느꼈다. 마치 채빈 같았다. 너무 많은 일들을 겪은 탓에, 몸보다 머리가 더 성숙해져 버린 것처럼.

“아, 난 이-”

“앤 이서운, 난 김민준, 앤 최지훈.” 채빈이 윤슬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윤슬은 채빈을 몇 초간 바라보았다. 채빈의 눈빛은 자신들을 구해준 사람을 대하는 것에 비해서는 차가웠다. 윤슬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 맞아. 난 이서윤, 16살이야. 민준 오빠는 17살, 지훈이는 나랑 동갑.” 여자아이가 알겠다는 눈빛을 고개를 끄덕였다. 의심의 눈빛 스쳐 지나가는 것을 윤슬은 놓치지 않았다. 서로 경계하고 있었다. 윤슬이 분위기를 조금 풀어보려 다시 말했다.

“그럼, 지금 C구역으로 가는 거야?”

찬솔이 뒤를 쳐다보고는 말했다.

“응, 일단 그리로 가려고. 아, 그리고 소개를 못 했는데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은 C구역에서 같이 지내던 친구들이야.” 찬솔이 그들에게 오라는 손짓을 해 보였다. 남자 둘과 여자 하나가 윤슬의 앞으로 걸어갔다.

“난 박진후, 애네는 김가람, 류민율.” 가장 키가 큰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와 꽤 어려 보이는 남자아이를 차례로 가리키며 말했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손을 작게 흔들어 보였다. 윤슬은 그 모습이 귀여워 보여 피식 웃었다.

“안녕. 넌 몇 살이야? 진짜 어려 보이는데-” 윤슬이 남자아이에게 물었다.

“14살이요.” 민율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 찢어져 가는 청바지와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윤슬이 놀라며 물었다.

“티셔츠가 거의 다 찢어져가네. 다른 옷은 없-” 윤슬은 묻는 도중 후회했다. C구역은 노예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마땅히 입을 옷이 없는데 당연하기도 했다. 윤슬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신의 가방에 있던 티셔츠를 건넸다. 민율은 잠시 티셔츠를 바라보더니, 윤슬을 보며 웃었다.

“감사합니다!” 해맑게 웃는 민율을 보자 윤슬은 마음이 따스해지는 것 같았다. 이런 웃음을 얼마나 바래 왔던가. 윤슬도 철없이 웃게 되었다. 그런 윤슬을 채빈과 은호가 바라보고 있었다. 채빈은 피식 웃었고, 은호는 그런 채빈까지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

찬솔이 이끄는 일행은 계속해서 숲속을 나아갔다. 윤슬은 찬솔이 이 길이 매우 익숙하다는 것을 느꼈다. 로봇을 던지던 때와 같이, 이러한 상황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변수가 생겨도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다. 아까 전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자신과 비교가 되어 한숨이 나왔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채빈이 다가왔다. 그 뒤로 은호도 따라왔다.

“무슨 일 생겼어? 아까전엔 잘 웃더니 왜 풀이 죽었어-” 채빈이 물었다. 윤슬은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 채빈을 보았다.

“아, 아니- 그냥... 나도 뭔가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맨날 짐이 되는것 같기도 하고...” 채빈이 곰곰히 생각하는 듯하더니 윤슬의 어깨에 한 손을 올렸다.

“그렇게 생각하지마. 그냥 도망가는데 너가 잘하는 게 아닐 뿐이야. 그런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 도움을 받아야 하는게 당연한거고. 모든 걸 너가 다 할 수는 없잖아?”

윤슬이 살짝 미소를 지었다. 위로가 되기는 했으나, 자신이 잘하는 게 무엇일지 알 수가 없었다. 그걸 채빈에게 물어볼 수는 없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은 자신이 찾아야 했다. 없으면 어찌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을 들은 듯 은호가 말했다.

“감정, 가르쳐 주는 거. 그게 너가 잘하는 거 아니야?” 무미건조하게 들릴 수는 있었으나, 윤슬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정말이었다. 자신이 은호에게 감정을 가르쳐 주려고 한

며칠만에 은호는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다. 항상 단답이던 대답이 한 글자, 한 글자씩 늘어났고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도 같았다. 윤슬이 은호를 보며 웃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 주면 고맙지…. 한 번도 안 해 본 건데, 가르쳐 줄 사람이 있었으면 했어. 나 빼고는 다들 B구역 사람들 같을 줄 알았거든.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안 그런 사람도 진짜 많은 것 같네. 한때는 그게 내 꿈이었어. 주변에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누군가에게 한없이 소중한 사람이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너하고 채….아니, 민준 오빠랑 같이 있는게 내 소원이 이뤄진 것 같아. 내가 아무리 감정을 쏟아내도 옆에서 있어주고…. 저번에 비왔을 때 기억나지? 그때 집에 다 젖어서 들어갔더니, 엄마가 나는 보지도 않고 젖은 바닥부터 닦더라고. 진짜 추웠는데, 나는 뭐 바닥보다도 못한 존재가—이렇게 생각한 적이 너무 많았어. 근데 너랑 있고 오빠랑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한 번도 든 적 없는 거 알아? 아, 내가 너무 황설수설했나? 어쨌든 같이 있어서 좋다고. 지금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 우리 셋이 붙어다니던 때 있잖아…. 그때는 아무 걱정도 없어서 좋았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을 다같이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거 같아…!” 윤슬은 바닥을 보며 말했다. 진심이 입 밖으로 나오자 왠지 모르게 쑥스러워졌다. 영원히 마음 속에만 담아 둘 줄 알았던 말을 전하자 기분이 후련해지기도 했다. 입꼬리가 말려 올라갔다. 심 없이 오래 걸은 탓에 발목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저려왔고, 종아리와 허벅지의 근육이 불타는 듯했지만 마음이 가벼워 누군가 힘줄을 조금 풀어내 주는 듯했다. 그 누군가는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윤슬은 생각했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인 은호와 채빈, 그리고 만난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았지만 정이 가는 C구역 아이들까지.

“나도 이렇게 있으니까 좋다. 우리 너무 힘들었어, 요 근래에.” 채빈이 말했다. 윤슬이 고개를 가만히 끄덕였다. 채빈의 입에서 힘들다는 말이 나온 것은 처음인 듯했다. 그렇게 보니 채빈에게 지난 며칠이 힘들기는 했나보다, 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 전부터 그랬을 것이다. 정확히는 6년 전 자신과 채빈, 은호가 채빈과 윤슬의 집에서 논 그 날 부터.

윤슬이 분위기가 다시 어두워지는 것을 눈치챘다. 다들 가장 힘든 순간들을 기억하니 그럴 것이다. C구역의 아이들마저 표정이 어두웠다. 윤슬은 어두운 분위기가 견디기 힘들어 입을 뻗었다. “저, C구역에서는 어떻게 지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서…. 대충만 들었지…” 민율이 윤슬의 곁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배가 안 고픈 날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있는 애들보다 없는 애들이 더 많고요. 감염병이 거의 몇 달에 한 번씩 돌아요. 한 사람이 걸리면 그 주변 사람들은 다 걸린다고 봐야 돼요. 저도 한 번 걸렸었는데, 누나가 A구역에 몰래 가—”

“류민율.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 찬솔이 차갑게 말했다. 민율이 찬솔을 돌아보고는 눈치를 보는 듯하더니 어색하게 웃고는 다시 말했다.

“어, 어쨌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안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A구역 집들은 막 엄청 높고 그렇잖아요, C구역은 2층을 넘는 집이 없어요. 도로는 흙이랑 자갈 뭐 이런 걸로 만들어졌고요, 집은 보통 판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나마 돈이 있는 사람들 집은 컨테이너를 차지하기도 해요. 맨날 맨날 싸움이 나요. 옆집 아저씨랑 누나랑도 매일—”

“류민율. 얘기 가려서 해.” 찬솔이 다시금 민율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민율은 풀이 죽어 다시 찬솔의 곁으로 가서 조용히 걸었다. 이번에는 윤슬보다 한 살 아래였던 가람이 윤슬의 곁으로 와서 말을 걸었다.

“찬솔 언니가 나이는 많지 않아도 항상 A구역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을 다시 C구역으로 돌려 보내주는 경우가 많아서 리더로 불려요. 아까 언니도 보셨죠? 로봇이랑 밀가루 등등…. 항상 다른 방법이 있더라구요, 찬솔 언니는.” 가람이 자랑스러운 듯이 말했다. 윤슬은 그 흰 연기가 밀가루라는 것을 깨닫고 얼굴을 만졌다. 희미하게 흰 가루들이 묻어 나왔다. 가람이 웃었다.

“아까 전에는 꽤 많이 묻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묻지는 않았어요.” 윤슬은 부끄러워져 얼굴을 몇 번 더 소매로 훔쳤다. 채빈과 은호 역시 자세히 보니 흰 가루가 조금씩 묻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윤슬은 웃었다. 은호와 채빈도 옷 소매로 얼굴을 몇 번 닦아내었다. 그 순간, 희미하게 말소리가 오른쪽에서 들려왔다. 소리는 작았지만 분명 소리치는 목소리였다. 웅얼거리는 소리라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윤슬이 놀라 오른쪽을 바라보고 멈췄다.

“들었어? 이쪽에서 소리치는 소리가…!” 윤슬이 다급히 말했다.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다. “걱정 마. 그 소형 로봇 소리야. 우리 말소리를 녹음해 두었거든. 지금쯤 군사들은 저쪽을 바보같이 쫓아가고 있겠지. 엄청 멀리서 나는 소리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군사들이 저기 도착할 즈음이면 우리는 더 멀리 있을텐데 뭐. 걱정되면 더 빨리 걷자.” 찬솔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윤슬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근데 우리가 C구역으로 가는 걸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럼 C구역에서 얼마 있지도 못하지 않을까…?” 윤슬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찬솔이 곰곰히 생각하는 듯했다.

“그럼 너는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네…” 찬솔이 고민 끝에 대답했다. 윤슬은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방금 만난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라서 다른 곳으로 같이 떠날 리는 거의 없었다. 집이 있고, 가족이 있었다. 이기적으로 생각한 것이었다. 윤슬은 채빈과 은호에게 물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린 갈 데가 없어. A구역도, B구역도, C구역도 다 안전하지가 않은데…. 그렇다고 숲에서 지낼 수도 없어. 여긴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떡해야 하지?” 다시 막막한 기분이 들었다. 그들이 소속된 곳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예 이 세 구역을 벗어난 다른 세계가 있다던 소문도 있던데.” 낮은 목소리가 들려 왼쪽을 보니 18살이라던 진후가 걷고 있었다. 건장한 체격에 짙은 이목구비가 강인한 인상을 주는 겉모습이었다.

“소문-?” 채빈이 되물었다. 흥미로워하면서도 의아해하는 눈치였다. 진후가 고개를 끄덕였다.

“A구역이나 B구역 사람들이 모르는 많은 것들을 C구역 사람들은 알고 있어. 예를 들면 옛날에 이 세상이 어땠는지라던가….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이라 왜곡된 부분도 많겠지만. 그리고 아예 이 밖으로 나갔다는 사람들에 대한 전설 아닌 전설도 있고.” 윤슬은 그 둘에 대해 옛날부터 궁금증이 많았던 터였다.

“옛날에 어땠는데요? 지금이랑 어떻게 달랐어요?” 윤슬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진후가 윤슬을 흘깃 보았다.

“처음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지. 우리같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 그러다가 지금의 사람들과 꽤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 모습을 서서히 바뀌어 간다는 의미의 ‘진화’를 거듭해 사람이 되었다고 해. 그 후로 이 세상의 지배자는 인간이었어. 아무도 감히 지능을 갖춘 동물에게 대적하지 못했지. 그래서 인간들은 우쭐해졌으나 뭐라나. 그러다가 더이상 정복할 거리가 보이지 않자 서로를 정복하기 시작했어. 원망의 대상을 서로로 삼고, 불행의 원인을 서로라고 떠밀었지.

그러다 보니 세상은 여러 개의 무리로 갈렸어. 어떤 쪽이 낫다는 말도 못할 정도로 서로를 세상이 피바다가 될 때까지 죽이고 또 죽였어. 결국 더 강한 쪽이 이김으로써 긴 전쟁은 끝을 맺었겠지. 근데 참 웃긴게, 사람들은 적이 없으면 적을 만들어서라도 싸우고 싶나 봐. 입으로는 평화, 평화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대적할 상대가 없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그 이긴 쪽은 또 다시 나뉘고, 또 전쟁을 반복하고…. 어떻게 순환되는 건지는 대충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때쯤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던 인간들은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따위는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고. 원래 하찮게 여겼던 것들이 마지막 순간에 뒤통수를 치는 법이야. 그만큼 충격이 클 테니. 환경오염은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를 구석에 몰아넣었어. 그제서야 제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해결책을 생각해냈지. 이제 더이상 환경을 건드리지 말자. 우리는 주어진 것을 조금만 사용하여 살자. 이렇게 해서 지금의 구역들이 만들어졌고 아직 인간은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거지. 바깥에 나간 사람은 별로 없으니 이 밖이 어떤지 아는 사람은 잘 없고.” 진후는 이야기를 끝마치고는 한숨을 내쉬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 밖의 세상이 어떤지 궁금해하는 것 같기도,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했다. 윤슬 역시 궁금하면서도 두려웠다. 진후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는 바깥 세상이 사람의 발길이 끊긴지 오래라는 뜻이었다. 어쩌면 인간보다 더 지능적이고 강한 존재가 누비고 있을지도 모르는 터였다.

윤슬의 미간에 주름이 졌다. 바깥 세상에 나가는 것이 맞을지 검토할 선택의 여지는 없었지만 과연 그들의 앞에 어떤 길이 놓여 있을지는 모르기에 신중한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진후가 잠시 고민하더니 다시 앞을 바라보고는 입을 뗐다.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도 꽤 역사라고 할 만한 게 있는 건- 아, 아무래도 모르겠지.” 윤슬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진후를 바라보았다. 채빈과 은호 역시 진후를 호기심 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A구역 그 누구도 말하지 않은 데다 그 역사를 C구역 사람에게서 들을 줄은 몰랐다는 눈치였다.

“너도 알겠지만 구역들이 세워진 이후 바이러스 9C90이 나타나. B구역과 A구역에서 제대로 배웠다면 알겠지만 줄여 말해 강렬한 감정을 느끼면 뇌사로 이어져 거의 즉사한다고 볼 수 있었던 강력한 바이러스였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에 인간에게 충격은 더 컸고. 옛날에는 감정을 이 애처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잘 없었으니 사람들은 쓰러져가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응이 필요했어. 그게 바로 ‘대수술’, 즉 사람들을 전부 수술시킨다는 의미로 쓰였던 단어. 그 병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바이러스에 반응하는 호르몬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최초의 수술이었지. 바이러스 제거에서 보면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사람들은 더이상 죽지 않았지만 마치 죽은 것처럼 살기 시작했어. 여기서부터는 모르던 걸거야. 그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된 이후, 사람들은 수술을 그만하자고 주장했지만 A구역의 사람들은 인구 조절의 목적을 앞세워 수술을 강행했지. 정작 자신들은 받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그렇게 해서 A구역 외의 사람들은 수술이 필수가 되었어. 사실 최근까지 진행된 수술의 목적은 인구조절이 아니라 사람들을 교묘하게 다루기 위함이었다고 보면 되겠네, 뭐.” 여기까지 말한 진후는 팔을 뻗으며 스트레칭하고 한숨을 다시 내쉬었다. 윤슬은 머리에 입력하기 어려운 정보가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자 생각이 푹바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느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정보였다. 그때 문득 은호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은호가 채빈의 아버지에게서 엿들었던 말이 이러한 것이었을까 의문이 피어올랐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은호가 갑작스럽게 멈추어 섰다. 윤슬이 이때까지 봐왔던 표정 중 가장 강렬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픔이었다. 다른 여지가 없었다. 채빈의 눈에서 수없이 봐왔던 표정, 은호가 채빈의 집을 뛰쳐나가던 그 날 밤 은호의 마지막 표정이었다. 윤슬은 우뚝 서서 은호의 얼굴을 살폈다.

“윤은호! 너 괜찮아...? 표정이 왜-” 은호의 무릎이 꺾이며 정강이가 바닥에 충돌했고, 상체가 앞으로 넘어졌다. 채빈과 윤슬이 간신히 은호의 상체를 잡아 올렸다. 몸에 힘이 없었다. 눈은 감고 있었다. 윤슬은 다급히 숨을 쉬는지 확인했다. 다행히 호흡은 이상이 없었고, 채빈이 은호를 업었다. 찬술을 비롯한 일행이 넘어지는 소리를 들은 듯 뒤로 돌아보더니 채빈이 은호를 업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찬술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은호가 갑자기- 쓰러졌어. 힘들었나 봐. 잠시 쉬면 안돼?” 윤슬의 얼굴에도 걱정이 묻어났다. 채빈을 돌아보자, 그의 눈빛도 윤슬과 마찬가지로 말해주고 있었다. 찬술은 고개를 끄덕였고, 가까이 있는 돌에 걸터앉았다.

윤슬은 채빈을 도와 은호를 나무의 기둥에 기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윤슬은 은호의 갑작스러웠던 아픔의 표정과 쓰러짐이 관련이 있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육체적인 아픔이 불러오는 표정이 아니었다. 단순히 그런 고통이라면 단순한 눈빛을 담고 있어야 하는데, 아까 은호의 표정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표정이었다. 마치 과거의 아픔이 수면으로 떠오르는 듯이-

“아-!” 윤슬이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질렀다.

\*

모두의 시선이 윤슬로 쏠렸다. 갑작스러운 이목의 집중에 윤슬의 벌어졌던 입이 닫혔다. 윤슬은 침을 꿀꺽 삼켰다. 단지 이론일 뿐이었지만,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컸다. 자신에게도 일어났던 일이기에. 채빈을 비롯한 사람들이 윤슬에게 무언가 말하기를 바란다는 눈빛으로 계속해서 윤슬을 바라보자, 윤슬은 입을 열었다.

“저- 채빈오빠. 이건 내 생각인데, 기억이 돌아오는 게 아닐까? 나도 이렇게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옛날 기억수술 전의 일들을 생각해냈잖아. 이것도 내 생각이긴 한데, 기억이 돌아오는 특정한 계기가 있는 거 같아. 나는 A구역을 들어서고 나서 나랑 오빠랑 은호랑 같이 지내는 생각을 했는데, 딱 그때 정신을 잃은 거 같거든. 내가 잃고 있던 기억의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었고. 그대로라면, 은호가 정신을 잃은 딱 그 순간에 뭘갈 본 게 아닐까...?” 모든 내용이 가정에 전제하고 있었지만, 채빈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느낀 것 같았다. 그는 잠시 아래를 보며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하더니, 고개를 서서히 들어 올렸다.

“이 숲속에서 기억을 떠올릴 만한 무언가가 있었을까...?” 채빈이 의문스러운 투로 말했다. 사실이였다. 방금 그들이 지나쳐 온 숲속을 비롯해 저 먼 앞까지는 나무와 풀만이 뽁뽁히 자라 있을 뿐이었고, 만약 기억이 숲으로 인해 떠오른 것이라면 이때까지 윤슬과 은호가 지나온 숲이 무나도 많았다.

“무언가를 본 게 아니라면? 기억은 후각으로부터 전달되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시각 외에도 다른 것들이 기억을 떠오르게 한 걸 수도 있지. 청각, 미각 등도 있고.” 그때 진후가 툭 내뱉었다.

“아, 진후오빠가 말한 그 역사에서 무언가가 은호의 기억을-!” 윤슬은 말하다 말고 숨을 깊이 들이쉬며 눈동자를 크게 떴다. 채빈이 윤슬을 바라보며 눈썹을 치켜올렸다.

“뭔데 그래?” 채빈이 물었다.

“그날 밤이야. 그날 밤에 은호가 오빠 아버지 말을 엿들었을 때 있잖아, 그때 이후로 은호랑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 오빠 아버지는 은호가 무언가를 알고 있기에 그렇게 우리한테 화를 냈고, 은호랑 나, 그리고 오빠의 기억 수술을 진행시킨 것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해보면, 오빠 아버지가 역사에 관해 무슨 말을 했고, 은호는 그걸 들으면 안 되는 거였겠지…? 너무 부족한 근거에 대한 추측이긴 한데, 일단 은호가 깨어나면 알려주겠지?” 윤슬의 얼굴이 상기되었다. 이 세계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았다. 아니, 알아야 하는 것보다 많이. 정보의 무게는 무거웠다. 알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표적이 되는 것이 비밀이었다. 윤슬은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 C구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다.

“근데 A구역이랑 거리가 제일 먼 C구역이 어떻게 이렇게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윤슬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가람이 윤슬을 동그란 눈으로 쳐다보더니, 되물었다.

“언니는 모르세요?” 윤슬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미간을 잠시 찌푸렸다 폈다를 반복하며 무언가를 떠올리려고 노력했지만, 원래 알고 있던 것 외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아, 언니가 16살이라고 했으니까 언니가 태어나던 해네요. 그때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우리 엄마랑 아빠도 거기 참가했죠. 전 원래 A구역이었어요. 가족이 다 A구역이었는데, 쿠데타가 진압되면서 거기 동조했던 사람들은 모두 죽거나 C구역으로 쫓겨났어요. 저희는 운 좋게도 쫓겨났어요. 쿠데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엄마랑 아빠가 알아요. 저한테도 안 알려주신 걸 보면 쉽게는 안 가르쳐 주시겠죠…? 그래도 군사들보다 C구역에 먼저 도착한다면 잠깐 들러서 물어보세요. 꼭 알아야 한다면 알려주실 거예요.” 가람이 조심스럽지만 확고하게 말을 꺼냈다. 쿠데타? 쿠데타라니? 이 시스템에 대응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신선하고, 충격이었으며, 놀라웠다. 눈이 크게 떠지고, 입술이 벌어지는 것을 느꼈다. 윤슬의 머릿속에서 아직 맞춰지지 않은 퍼즐 조각이 서로 스치며 떠다니는 기분이었다. 필요한 조각 중 하나가 빠져 모든 것이 연결이 되지 않았다. 분명 중요한 정보는 모두 있었지만, 그것을 이어줄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C구역에 가야만 했다.

\*

“C구역에 가야겠어. 오빠, 우리 정보가 필요해. 정보가 있어야만 이 구역들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돼. 그래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생기지 않을까…?” 윤슬이 채빈을 보며 말했다. 채빈은 윤슬의 눈을 한동안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위험할텐데… 그만한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어, 그 정보가? 그 정보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더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 오히려 더 쫓길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 목표는 정부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그저 도망치는 거야. 정신 좀 차려.” 채빈이 딱 잘라 냉철한 투로 말하자 윤슬은 움츠러들었다.

“아-아니, 그런 뜻으로 말하려던 건 아니고, 아니-하, 지금 그냥 피곤해서 그래. 미안.”

윤슬은 채빈이 평정심을 잃어가는 것 같았다. 그렇게 냉철해 보였던 채빈이 서서히 무너져 가는 것도 같아 불안해졌다.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윤슬은 채빈을 완전히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직 표면밖에 모르면서 깊숙히까지 안다고 생각했던 일이 있었기에 더욱 그랬다. 어쩌면 채빈은 상황이 상황인 만큼 자신을 돌보거나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윤슬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잠든 듯한 은호 옆에 앉아서 풀을 만지작거리는 것 외에는.

“언제 출발할까요? ‘채빈’ 씨. ‘은호’는 금방 깨어날 것 같지는 않고, 너 진짜 이름은 뭐야?” 찬솔이 빙그레 웃으며 처음엔 채빈을 보며, 그 다음엔 은호를 보다 마지막으로 윤슬을 바라보며 말을 맺었다.

“아... 내가 다 말해 버렸네, 미안... 난 윤슬이야, 이윤슬.” 윤슬이 채빈에게서 찬솔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미안한 웃음을 지었다. 채빈은 시선을 회피했으며, 찬솔은 그런 채빈을 보고 피식 웃으며 돌아섰다.

“그럼 언제 출발할까요?” 찬솔이 다시금 물었다.

“지금.” 채빈이 배낭을 들며 말했다.

“은호를 누가 업어야 하는데, 교대로 하는 거 어때요?” 윤슬이 가방을 한쪽 어깨에 걸쳐메고 급히 말했다. 채빈이 아무 말 없이 은호를 등에 업었다. 윤슬은 서둘러 가 채빈의 배낭을 앞으로 메고 자신의 가방을 뒤로 땀다.

“이리 줘도 돼.” 채빈이 아까의 일 때문에 여전히 서먹한지 윤슬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다. 윤슬은 채빈이 괜히 자존심 세우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들어 웃음이 나왔다. 숨죽여 웃는 윤슬을 본 채빈이 윤슬이 앞으로 메고 있던 가방을 내려 은호를 업고 있는 상태에서 땀다.

“오빠! 가방까지 들면 힘들어-! 왜그래... 나 화 안 났어! 오빠 피곤한 거 나도 알고 있어. 괜찮다니까?” 윤슬은 자신이 말하면서도 채빈을 달래는 듯한 말투인 것을 깨달았다. 채빈은 얼굴이 붉어져 저만치 걸어가 버렸다. 윤슬은 그런 채빈을 보고 채빈 역시 어린아이같은 면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웃었다. 항상 운동을 잘했던 채빈이었지만 몇십 킬로그램씩이나 되는 은호와 십 킬로그램은 족히 되는 배낭을 동시에 메고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윤슬은 채빈을 따라 앞으로 뛰어갔다.

채빈은 별 말 없이 다른 사람들의 보조에 맞추어 걷고 있었다. 윤슬은 채빈의 소매를 잡았다. 채빈은 뒤를 돌아보았고, 그게 윤슬이란 걸 깨닫자마자 눈을 피했다. 기어이 윤슬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니-오빠! 내가 괜찮다는데 왜그래. 이러다가 오빠 힘들어서, 어? 은호도 못 메고 가방까지 못 멜 수도 있잖아. 그냥 나 줘. 응? 지친다니까?” 윤슬은 채빈이 앞으로 메고 있던 가방을 거머쥐었다. 채빈은 가방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한숨을 쉬고는 은호를 내려놓은 다음 가방을 풀어 윤슬에게 건넸다. 윤슬은 웃고는 가방을 들어 앞으로 메고 자신의 가방을 뒤로 땀다.

“C구역 가는 거 말이야, 꼭 그 정보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뭔데?” 채빈이 말없이 걷다 물었다. 윤슬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하려 했으나,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이유가 무엇이였을까? 이 나누어진 구역들에 대해 더 알면 자신이 그 정보의 가치에 걸맞는 일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무거운 정보를 머릿속에 담는다 하더라도 B구역 사람들의 감정을 되찾을수 있을지도 모르며, 채빈의 말대로 정부는 그들을 더욱더 치열하게 쫓을 것을 몰 보듯 뻔히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슬은 모든 것을 알고 싶다는 욕구를 억누를 수가 없었다. 어쩌면 이 상황을 해결할 방안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품게 되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코가 석 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순간 무장한 군사들에게 쫓기고 있는데, 이 세상을 뒤집을 생각은 하는 것이 옳지 않았다.

“알고 싶으니까. 그냥 알고 싶어서. 생각해 보니까 별 이유가 없어. 근데 지금 C구역에 안 가면 다시는 못 갈 것 같아. 그리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C구역은 감시가 그렇게 심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거기 어딘가에서 숨어 살면 안되는 걸까…?” 윤슬은 말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이 안일하다는 것을 느꼈다. 아무리 감시가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들키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하루하루를 쫓기는 신세로 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곳으로 간다 해도 상황이 달라지는 않을 것 같았다. 일단은 계속 나아가되, 은호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채빈의 쪽을 흘끗 보았지만 업혀 있는 은호는 아까와 변함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채빈은 한동안 답이 없었다. 그 역시 윤슬의 생각이 안이라고 느낀 것일까. 은호의 팔이 채빈이 걷는 박자에 맞추어 그의 어깨 위로, 위 아래를 반복하며 흔들렸다.

그때 B구역을 나서지 않았다면-? 윤슬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이제 와서 이런 어이없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 못마땅했지만, 잊어보려 해도 그 의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만약 채빈의 편지를 믿지 않아 B구역에서 계속 생활했더라면 계속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순간, 아니라는 생각이 스쳤다. 카메라 수술이 아무리 위장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자신을 경계하고 있음을 윤슬은 알고 있었다. 애초에 A구역에서 살던 시절이 있었기에 B구역에 있다 하더라도 경계 대상인 것은 거의 당연한 일이라고 봐야 했다. 죽을 때까지 기억을 되찾기 전처럼 살 수 있을 지 알 수 없었다.

조금이라도 쫓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을 끌어들이 수 밖에 없었다. 순전히 생존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다 능숙해 보였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C구역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고, 잡혀가 봤자 잘 도망칠 수 있는데, 굳이 채빈, 은호와 윤슬을 따라 이 세 구역 밖으로 나가려 하지는 않을 듯했다. 아무리 밖의 세상이 궁금하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걸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은 윤슬도 잘 알고 있었기에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다. 자신이 B구역을 떠났을 때를 떠올려 보았다. 앞으로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던 때였지만, 무언가에 홀린듯이 편지 하나를 믿고 떠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자신의 지워졌던 기억들이 새로운 길들로 이끌어 준 것만 같았다. 원래대로라면 채빈과 윤슬은 가족이었기에, 아무리 기억을 지웠다 하더라도 10년간 같이 지내기에 머리 대신 몸이 기억한 것이었다. 채빈을 만났을 때 빈 곳이 채워진 듯한 기분도 그 때문이었을까…? 그것을 이 수술이 완벽하지는 않다는 증거로 삼을 수는 없을까 생각도 들었다. 윤슬과 은호 모두 기억을 찾는다면 의견을 뒷받침해 줄 것만 같았다.

앞서 가는 채빈과 업혀 있는 은호에게 눈길이 갔다. 은호의 몸은 아직도 힘이 빠져 축 늘어져 있었다. 그 모든 걸 떠안고 가는 채빈이 힘겨워 보였다. 은호의 몸무게 뿐만 아니라 그의 기억까지 모두 메고 가는 것 같았다. 과거에 자신이 제안한 놀이 하나에 은호까지 가족의 처참한 역사에 끼여 버리게 해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물론 어릴 적이었지만, 윤슬마저 그 기억이 생생한 것을 떠올리면 채빈은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울 지도 몰랐다. 그 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모든 걸 기억이 지워지기 전까지 은호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안쓰럽기도 했다.

윤슬의 뺨히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는지 채빈이 윤슬을 뒤돌아보았고, 눈이 마주쳤다. 윤슬은 자신이 또 다른 생각으로 빠져 버렸다는 것을 알아챘다. C구역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라는

중요한 문제가 놓여 있었는데, 혼자 망상 속에 빠져버린 것이다. 윤슬의 입에서 탄식과 같은 한숨이 터져 나왔다. 한숨을 내쉬면 마음 속의 덩어리가 조금이나마 빠져나갈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았다. 벌린 입으로 새로운 문제들이 몸속에 새로이 자리잡는 것 같았다. 주저앉고 싶었지만 앞뒤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발이 움직였다. 뒤쳐질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걷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 달리 발이 앞으로 전진하자 윤슬은 신기함까지도 느꼈다. 한 단체에 소속되는 기분이 이런 것일까라는 의문이 드는 동시에, 다시 한 번 중요한 문제를 도피한 듯한 자신의 방식에 윤슬은 흠칫 놀랐다.

“은호는 언제 깨어날 거 같아...?” 윤슬이 뒤쳐진 발걸음을 재촉해 채빈의 곁으로 다가갔다.

“글쎄, 난 지금 애 얼굴이 보이지를 않아서.” 채빈이 앞만 보며 대답했다. 윤슬은 생각 속으로 다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 하기 어려웠던 질문을 눈을 질끈 감고 내뱉었다.

“우리 어떻게 될까-?” 채빈은 윤슬을 흠칫 보았다. 가장 궁금했지만 그 누구도 함부로 묻지 못하던 문장이었다. 감히 물었다가 답이 없는 것을 입을 움직여 소리로 내는 것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은 아닐까. 이미 질문은 모두의 귀에 들리는 주파수로 만들어진 후였으며, 다시 주워담을 수 없는 것들 중 하나가 말이었다.

“....” 채빈은 침묵만을 지켰다. 머리에서 땀이 볼로 흘러내렸다. 내색 하나 하지 않던 채빈이었지만 윤슬이 옆에서 보기만 해도 걱정될 정도로 힘들어 보였다. 걷기 시작한 지 한 시간 정도가 지난 것 같았다. 윤슬은 채빈에게 쉬자고 말해봤자 은호를 내려놓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찬솔에게 가 쉬었다 가자고 제안하기로 했다. 때마침 찬솔은 저 앞에서 민율과 함께 채빈과 윤슬을 기다리고 있었다.

“있잖아- 채빈오빠가 너무 지쳐 보여. 누구랑 교대하면 안될까? 나랑 해도 상관없으니까, 잠시만 멈추자. 응?” 윤슬은 걱정이 가득한 눈으로 찬솔을 바라보며 거의 애절하듯이 말했다. 왜 말이 그렇도록 부탁하듯이 튀어나왔는지는 알수 없었지만, 문장을 머릿속으로 검토하기도 전에 재확인 없이 제출된 과제처럼 나온 말투는 오히려 윤슬 자신이 더 힘들어 보이는 듯했다.

“어-? 그래. 그러자. 근데 너무 많이 쉬어도 잡힐 수도 있으니까, 박진후한테 부탁해.” 찬솔은 별것 아니라는 듯이 대답한 후, 진후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확실히 일행 중에서는 진후가 가장 건장했다. 진후는 그들이 멈춰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채빈에게 은호를 내려놓으라고 손짓했다. 채빈은 머뭇거리기 없이 은호를 팔뚝에 얹었다. 의식이 이렇게 오래 없는 것에 걱정이 되기 시작할 정도였다.

“나도...이랬어?” 윤슬이 채빈에게 물었다. “이렇게 눕혀도 깨어나지도 않고 그랬어? 이렇게 돼도 괜찮은거야?” 이번에는 은호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며 물었다. 침대에 눕혀 놓았다면 잔다고 해도 믿을 것 같았지만, 미세하게 피곤함이 깃들여 있었다. 인상도 조금 찌푸려진 듯했고, 머리도 땀에 젖어 있었다. 아까 걸은 것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기억이 돌아오는 과정인 걸까, 아니면 그저 피로함 때문에 쓰러진 것 뿐이었을까. 이제는 둘 중 어느 쪽이라든, 깨어나기만 하면 좋겠다는 바람뿐이었다. 만약 기억이 돌아오는 것이라면, 깨어나기까지는 몇시간이 더 지나야 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태까지 깨어나지 않는 것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이마에 젖어 찰싹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윤슬은 쓸어넘겨 주었다.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은 이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헛갈렸다. 그저 소중한 사람도 아니었으며, 그저 슬픈 기억이 떠오르지도 않았으며, 그저 함께 있으면 행복한 것도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이 미묘하게 섞이고 합쳐진 기분이었다. 아픈 과거와, 슬픔과 아련함과,

행복했던 기억과, 좋았던 그 기억들이 모두 뒤섞여 하나가 되었는데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채빈은 은호의 옆에 앉아 있었다. 발밑에 깔린 잔디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다. 윤슬은 숙였던 몸을 펴서 팔을 뻗었다. 가방이 꽤 무거웠지만 내려놓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어올릴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방 끈을 손으로 꼭 잡은 채 어깨에서 잠시 떼어 놓으니 어깨로 시원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 땀이 마르는 촉감이 피부로 전해져 왔다.

진후는 은호를 업기 위해 상체를 죽였고, 찬솔과 윤슬이 은호가 업히는 것을 도왔다. 은호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이마에서 잠시 들렸다 내려앉았다. 윤슬은 채빈의 가방을 다시 채빈에게 건넸다. 채빈은 묵묵하게 가방을 들어올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가방을 땀다.

쫓겨야 할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자신들이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었으며 누군가에게 비밀을 전달하려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오히려 무거운 비밀들을 아는 것은 자신들이 아닌 C구역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애초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기에 알아도 상관하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었지만, 그들 때문에 이렇게 찬솔을 비롯한 사람들이 같이 쫓기는 것에 대해 마음이 무거웠다. 순간, 윤슬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합당한 방법이 아니었고, 도와준 데에 보답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핑계가 분명하고 어떻게 보면 악랄하다고까지 볼 수 있는 말이었지만, 이 말을 한다면 다른 이들이 윤슬을 따라 나설 것이 분명하다고 느꼈다. 아니, 확신까지는 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되기를 믿고 있었다. 침을 꿀꺽 삼킨 뒤, 윤슬은 가방 끈을 다시금 움켜쥐고 입을 뗐다.

“그런데 정부가 못 잡아서 안달인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은 과연 무사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겪은 일들을 모두 말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면 찬솔이 너가 C구역에 돌아가고, 우리는 이 세 구역 바깥으로 간다 치더라도 너가 C구역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난... 난 아니라고 생각해. 정부가 너를 뒤쫓을 거야. 이때까지는 집요하게 너를 잡아간 적은 없지만, 그 이후로는 너가 죽을 때까지 군사들이 너 기억 수술이랑 감정 수술을 못 시켜서 안달일 거라고.” 말해 버린 뒤, 윤슬의 머릿속에는 ‘내뱉어 버렸다’라는 생각만이 떠돌았다. 찬솔의 뒷모습은 걷기를 멈추지 않았지만, 어쩐지 어두워 보였다. 이제 그들을 도와준 것을 후회할 것이다. 시선이 저절로 아래를 향했다. 차마 얼굴을 들어 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며칠 사이에 닳아 버린 운동화가 잔디를 밟으며 나아가고 있었다. 고개의 각도를 살짝 드니 저 앞에 멈춰 서 있는 두 쌍의 발이 있었다. 찬솔과 민율이 분명했다. 윤슬은 그 자리에 멈춰 서려는 발들의 의지를 겨우 꺾고 그들의 앞에 섰다. 옆에서 채빈이 놀란 눈으로 윤슬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안의 의미를 모두 읽은 것일까? 아니면 그 사실 자체를 이때까지 인지하지 못한 것이 놀라운 것인지도 몰랐다. 찬솔은 윤슬을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지금 그걸 설득이라고 하는 거야?” 찬솔이 비웃음과 차가움으로 뭉쳐 말했다. 윤슬은 의도를 간파당한 것이라고 생각이 든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냉기 가득한 눈빛을 예상하며 시선이 찬솔로 향하도록 고개를 든 민율의 차가운 안광에 가슴이 철렁했다. 너무 뻘한 것이었던 걸까.

“나는-”

“그렇게까지 말해야겠어? 왜 꼭 그런 식으로 말해야 하는데?” 윤슬은 흠칫 놀라 옆을 보았다. 채빈이 찰싹맞게 찬솔에게 말하고 있었다. C구역에 가자고 했던 자신의 의견을 반박하던 냉랭한 목소리보다 한층, 아니 몇 배나 더 두렵게 느껴졌다. 동시에 든든함이 느껴졌다.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다. 그러나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싸움은 너무 위험했다. 하나로 뭉쳐도 모자랄 판에 나뉘어지는 것은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만큼이나 위기가 될 수 있었다.

“나는-맞아. 너가 한 말이 맞아. 설득하려고 한 말, 맞아.”

“넌 그런-”

“끝까지 들어봐. 너네가 우리를 따라와 준다면 그나마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너네는 이미 집이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 따라와 주지는 않겠지, 당연히. 그래도 현실적으로 한 번만 생각해 봐 줘. 정부에서 애타게 찾고 있는 우리가 너네랑 같이 있었다고 하면 너네까지 잡으려고 하는 건 시간문제야. 지금 C구역으로 가는 건 위험해. 우리뿐만이 아니라 너네까지. 군사들이 이미 모든 C구역의 입구를 둘러쌌을 거야. 모두 무장했을 거고…. 무사히 잘 들어간다 하더라도 감시가 훨씬 심해진 상태인데 오히려 너희 가족들만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거야. 안그래?” 윤슬은 말을 자르려는 찬술의 말을 자르고는 모두의 눈을 한 번 한 번 짚어가듯이 맞춰가며 주장을 이어나갔다. 확실히 현실적인 방안이었다. 당장으로서도 구역들 밖으로 나가는 것이 모두에게 제일 안전했다. 찬술은 윤슬의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게 옳은지 생각하는 중일 것이다.

윤슬 또한 다시 생각 속에 파묻혔다. A구역의 사람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핵심적인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갑작스럽게 든 생각이었으나, C구역 사람들은 이미 그들이 아는 것을 모조리 다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보다 더 알고 있는 듯했다. 그런데 겨우 조그만 조각의 정보를 안다고 그렇게 군사까지 보내며 잡으려고 악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이유만은 아닌 것 같았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로 했다. C구역의 사람들과 도망쳤으니, 선택지는 C구역 아니면 바깥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C구역의 모든 입구를 막고 있을 것이며, 바깥으로 나가는 게이트가 있다면 그곳 또한 막을 것이다. 남은 선택지는 정식 입구가 아닌 곳으로 들어가거나 나가는 것 뿐인데, C구역은 땅이 한정적이라 잡히는 것은 시간문제니 위험했다. 입구나 출구가 아닌 곳으로 구역들 바깥의 세상으로 나가는 것 뿐인데, 벽 같은 것이 A구역처럼 세워져 있다면 나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방법이 없는 것일까. 윤슬이 어떤 선택지를 고른다 해도 막다른 골목이었다. 사실 모든 선택지가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을까.

“네 말이 맞는 것 같네. 그럼 루트를 바꿔야 해. 근데 나침반이 없는데 어떡하지…? 뒤에 애들한테 나침반 있는지 좀 물어봐줘봐.” 찬술이 윤슬에게 아까 냉랭하게 말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말했다. 윤슬은 고개를 끄덕이고 뒤로 돌려다, 채빈에게서 받은 나침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목에 걸어진 금빛 줄이 숲속의 나무 사이들로 들어온 햇빛을 반사해 반짝였다.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니 체온에 의해 따뜻해진 나침반이 손에 잡혔다. 다시 손을 옷 밖으로 꺼내자 금빛의 매끄러운 표면이 이질적으로까지 느껴졌다. 더러워진 옷 소매와 얼굴과 달리 나침반은 티 하나 없이 깨끗해 보였다.

“여기.” 윤슬이 손을 뻗어 나침반을 찬술에게 건넸다. 찬술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눈빛으로 나침반을 열어 빨간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게 만들었다.

“이건 어디서 난 거야?” 찬술이 나침반을 들고 방향을 오른쪽으로 꺾으며 물었다.

“어-? 아, 채빈오빠가 준 거야.” 윤슬은 나침반을 찬술을 뒤따르며 말했다. 찬술은 이번에는 채빈을 쳐다보며 물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채빈은 말하기 꺼려진다는 표정으로 찬술의 얼굴을 훑더니 시선을 돌렸다. 윤슬이 보기에는 회피한 것도 같았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자 윤슬은 무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궁금해졌다.

“왜? 이거에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거야-?” 윤슬은 찬슬에게 그렇게 물으며 나침반을 흘끗 보았지만 별 특별한 점은 없는 것 같았다. 이 이외의 나침반은 본적이 없어 딱히 그렇게 생각하기도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글이 적혀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기계가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닌것 같았다. 찬슬은 계속해서 나침반과 앞을 번갈아 보며 대답했다.

“어-? 아, 아니야. 그냥 예뻐서.” 윤슬은 그 둘이 자신에게 뭔가를 털어놓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졌다. 하도 비밀이 많았던 터라 숨기는 것에 지친 터라 더이상 묻고 싶지도 않았다. 윤슬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채빈과 찬슬은 서로 의미심장해 보이는 눈빛을 주고받은 뒤 서로에게서 시선을 획 돌렸다. 몇 초 뒤에 채빈이 한숨을 내쉬며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 와서 무언갈 숨기는 건 의미가 없어. 너 이때까지 A구역이나 B구역에서 ‘나침반’이라는 걸 본 적이 없지. 그만큼 흔한 물건이 아니야. 몇십 년 전부터 더이상 만들지 않아서 지금 남아있는 건 다 예전 물건인 셈이지. 만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딱히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 이유가 이 도시의 설계와 관련되어 있어 보여. 아까 집에서 보여준 지도, 기억나?” 윤슬이 고개를 끄덕였다. B구역이 맨 위, A구역이 그 아래, 그리고 C구역이 제일 아래에 위치해 있었으며 그 주변은 모두 숲인 구조였다.

“지도가 되게 간단했잖아. 위치된 곳이 다 곡선이 아닌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한 방향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다른 곳이 나오지. 예를 들어 B구역에서 A구역으로 가고싶다면 남쪽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적힌 S의 방향으로 가면 되고, 아예 숲을 지나 바깥으로 나가고 싶다면 북쪽으로, 거기에 적힌 N의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도망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야. 다들 욕구를 잃었으니 딱히 무언가를 하고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도 않는 거고. 게다가 군사들이 원칙적으로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A구역을 둘러싸고 있으니 A구역의 사람들이 만약의 경우에 도망치려 한다 하더라도 막기 쉽겠지. 정확한 지도는 아버지가 1급 공무원이라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고. 하, 그렇게 간단한 지도 하나까지 일급 기밀이라니…. 웃기네, 참. 1학년짜리가 그린 것보다도 단순한데 말이야.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가, 의심도 된다니까.” 채빈의 말투는 뒤로 갈수록 가라앉아 갔다. 옛날의 기억이 떠오른 것 같았다. 아버지가 종이 한 장을 아들에게 그렇게 숨기는 일이 섭섭했던 어린 시절이 떠오른 듯한 표정이었다. 채빈의 집에서 보았던 표정이 다시금 떠오르자 윤슬은 웬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아파 왔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자신인 것 같았다. 애초에 자신이 A구역으로 배정되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터이다. 채빈이 기억 수술을 받았을 일도, 은호가 들어선 안되는 말들을 들었을 일도 없었던 일일 것이다.

“